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안 보 형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지도교수 모 경 환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안 보 형

안보형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과학, 수학 중심의 영재교육이 사회, 인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시도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더욱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그 학생이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배움'을 체험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하려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여,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므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4학년도에 진행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하였고, 인문사회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세 명의 학생과 수업을 담당한 한 명의 교사와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1)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첫째,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보통 학생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세 학생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 학생들에게서 관찰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을 말랜드와 렌줄리가 제시한 영재의 특성과 연결하여, '동기', '창의성', '지적 능력', '리더십', '특수 학업적성능력'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는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학생과 그 중 일부만 갖춘 학생이 있었다. 역사 속 '여섯 위인' 중에서도 다섯 가지가 모두 드러나는 인재가 있고, 몇 가지는 보이지 않는 인재가 있다. 그러나 여섯 위인의 공통점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동기',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이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선발 A 그룹' 학생들은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선발 B 그룹' 학생들은 높은 '지적 능력'과 '리더'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섯 위인의 공통점인 '동기'와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선발 B 그룹' 학생들은 '선발된 전교 1등'일 뿐, '인문사회 영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역사적 현상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낸다. 더 나은 인간의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뇌한다.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탁월한 지적 능력과 특출한 사고능력, 그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 이것이 모든 교과목 학업성적이 뛰어나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일 것이다. 과학이나 수학, 예술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문사회 분야만의 특질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인문사회 영역인 사회와 인문 분야뿐 아니라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얻는 ‘공통과정’, 자신의 관심과 연관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나 ‘철학/인문’ 분야, 또는 ‘역사/지리’ 분야를 선택하여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듣는 ‘전문과정’, 교과학문적인 영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재캠프’, 학생들이 인문사회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유 연구를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하도록 하는 ‘연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학생은 공통과정을 통해 “주로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를 접하였고, 전문과정으로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 깊은 주제”들을 배웠으며, 영재캠프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색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연구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깊이 있게” 본인의 관심사를 탐구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세 학생이 체험한 공통과정, 전문과정, 영재캠프, 연구과정 프로그램에는 기존 영재교육의 문화 풍토가 배어있었다.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각각 다른 분야에 속하는 과학영재교육원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각 영역별 영재의 특성은 다르다. 과학, 수학, 음악, 미술이 ‘눈에 보이는 창의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Big-C에 해당한다면, 사회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비가시적인 little-c에 해당한다.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는 인문사회 영역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성을 사회과교육의 특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

다.

사회과교육의 전통적인 교육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교육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 사회과의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세부 목표로 제시된다. 이러한 사회과의 교과 역량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사회 영재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교과 역량은 인문사회 영재교육 목표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의 답을 찾고 싶었다.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의 상호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살펴본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해석해보았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수준 높은 인문사회 분야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간다. 창조적 대가들이 어린 시절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인이 되어 창의성을 발현하였듯이, 인문사회 영재의 창의

적 성취는 개인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시작되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더 나은 개인'을 통한 '더 나은 사회'를 가능케 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동기를 부여받아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미래의 나'를 설계함으로써 '자아 성장'을 경험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획해나간다. 경제, 정치, 사회, 역사, 철학 분야에 대한 '몰입'의 즐거움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 영재는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구상해나간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융합과 통합'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바라본다. 경제, 정치, 법, 철학, 문학, 지리, 역사 등 전형적인 인문사회 영역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수학, 과학 분야의 수업까지 학생들에게 다채롭게 제공된다. 학생들의 통합형 수업 체험은 학기말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도 이루어진다.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연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방식은 융합적이었다. 앞으로도 인문사회 영재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학생들은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서로의 독특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고를 펼쳐나간다. 학교에서 항상 칭찬을 받아온 학생들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점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과학영재 선발에는 여전히 사교육의 영향

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합격생이 소속된 학교의 해당 구를 분석해보면, 강남 3구 소재의 중학교와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배경지식을 근거로 재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만큼, 단순한 암기나 주입식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요즈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것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이라서 가능하다고 본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의 교육적 함의를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에 묶여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관찰·추천제는 '동기'나 '특수 학업적성능력'보다는 '학업 성적'과 '리더십'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주먹구구식 '성적순'으로 진행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좀 더 체계적인 판별 방식으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수업'은 넘치고, '교사 중심 수업'은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유행처럼 번져왔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고급 장비와 실험 기구를 마음껏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선호한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남다른 실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의 주제나 과정, 프로젝트 수업이 소속 학교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지적 토대를 목말라하던 학생들은

교사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한 '배움'을 갈망하고, 학생들은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교사 중심 수업'이 더욱 제공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에 놓여 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과 학생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발표와 시상으로 끝날 뿐, 연구논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반응을 전달하는 일, 즉 '피드백'은 없다. 학생들은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 교사들은 영재학생들이 학습을 통한 지적 희열과 만족감에 가치를 두는 '과제지향적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에 가치를 두는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가 부족하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종착역인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대부분의 팀별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역사 등 사회과 영역에 해당하지만, 지도교사는 비(非)사회과인 경우가 꽤 많았다. 팀별 연구 수행에 대한 지도교사의 계속적인 지도가 산출물 제작과 연구논문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문사회 영재수업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과 이러한 교원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요어 : 인문사회 영재 특성, 인문사회 영재교육 특징, 사회과교육 목표, 창의적 사고력, Big-C와 little-c, 연구논문 발표대회, 질적 연구,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학 번 : 2012-30394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영재와 영재교육 ····· 7
1) 영재와 영재교육의 역사 ····· 7
2) 영재교육의 필요성 ····· 10
(1) 교육 기회의 평등 ····· 10
(2)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다운 교육' ····· 11
3)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 18
(1) 영재교육의 도입과 성장 ····· 18
(2) 분야별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 22

2. 인문사회 영재와 영재교육 ····· 32
1) 소외되어 온 인문사회 영재 ····· 32
2) 우리나라 인문사회 영재교육 현황 ····· 37
3) 해외 인문사회 영재교육 사례 ····· 40
(1)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영재교육센터의 사회과 교육과정 ····· 40
(2)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의 인문사회 교육과정 ····· 44
(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프로그램 ····· 46

3. 선행연구 고찰 ····· 47

Ⅲ. 연구방법 ····· 53

1. 연구방법 ····· 53
1) 문화기술적 연구 ····· 54
2) 사례연구 ····· 56
2. 연구현장 ····· 57
3. 연구참여자 ····· 61
1) 학생 ····· 61
2) 교사 ····· 62
4. 연구절차 ····· 63

Ⅳ. 누가 인문사회 영재인가? ····· 69

1. 인문사회 영재의 이야기 ····· 69
1) 권영재의 성장과정 ····· 69
(1) 수학영재에서 인문사회 영재로 ····· 70
(2) 언어에 대한 관심 ····· 72
(3) 리더로서의 역할과 장래 희망 ····· 73
2) 권영재의 인문사회: <컵라면의 인문사회> ····· 75
(1)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 76
(2) 카테고리 <My Thoughts> ····· 77
(3) 카테고리 <인문사회 공부 TIP!> ····· 82
(4) 카테고리 <초짜 경제학> ····· 83

2.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 90
1) 영재교육의 지향점 ····· 91
2)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 96
(1) 호기심, 집중, 끈기 ····· 96
(2) 독특한 생각 ····· 100

(3) 높은 학업 성적 ····· 103
(4)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 ····· 105
(5) 인문사회에 대한 흥미와 열정 ····· 107
3)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와 여섯 위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 110
4) 타 분야 영재와는 다른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 113

Ⅴ.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19

1. 인문사회 영재교육 개관 ····· 120
1)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 120
(1) 설립 연혁과 운영 방침 ····· 120
(2) 학생 선발 절차 ····· 121
2)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 123
(1) 공통과정 ····· 124
(2) 전문과정 ····· 128
(3) 영재캠프 ····· 134
(4) 연구과정 ····· 143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징 ····· 153
1) 학생 선발 방식의 풍토 ····· 153
2) 교육과정의 특징 ····· 157
(1) 공통과정 ····· 157
(2) 전문과정 ····· 159
(3) 영재캠프 ····· 162
(4) 연구과정 ····· 163
3)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정체성 ····· 169
(1) 영재교육의 문화 풍토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 169
(2) 사회과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공통점 ····· 173

Ⅵ.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 ····· 177

1.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 ····· 178
1) 창의적 사고 ····· 179
2) 자아 성장 ····· 183
3) 융합과 통합 ····· 186
4)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 ····· 189
5)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힘 ····· 191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한계와 과제 ····· 196
1)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 ····· 197
2) '넘치는' 학생 중심 수업과 '부족한' 교사 중심 수업 ····· 206
3)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 ····· 212
4) 인문사회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부족 ····· 218

Ⅶ. 결론 및 제언 ····· 224

1. 결론 ····· 225
2. 제언 ····· 238

참고문헌 ····· 243
Abstract ····· 257

표 목 차

<표 Ⅱ-1> KEDI 「교육개발」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논문 제목 ···· 12
<표 Ⅱ-2> 영재교육 기관 현황 ···· 21
<표 Ⅱ-3>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 21
<표 Ⅱ-4> 영재교육 담당 교원 현황 ···· 21
<표 Ⅱ-5> 2012년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 37
<표 Ⅱ-6> 2014년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 38
<표 Ⅱ-7>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영재교육센터 사회과 교육과정 ··· 41
<표 Ⅱ-8> 통합교육과정 모형(ICM)의 특징 ···· 43
<표 Ⅱ-9>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 인문사회 교육과정 ····· 45
<표 Ⅱ-10>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 인문사회 교육과정 프로그램 ···· 45
<표 Ⅲ-1> 국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세 곳의 차이점 ···· 60
<표 Ⅲ-2> 연구 참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 ···· 62
<표 Ⅲ-3> 연구 참여 교사의 개인적 특성 ···· 62
<표 Ⅲ-4>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참여관찰 일정 ····· 65
<표 Ⅲ-5> 연구참여자 면담 일정 ···· 66
<표 Ⅳ-1> 권영재의 "초짜 경제학" 01~48 주제 ···· 84
<표 Ⅴ-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과정 ···· 122
<표 Ⅴ-2>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일일 시간표 ···· 123
<표 Ⅴ-3>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 123
<표 Ⅴ-4>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34
<표 Ⅴ-5> "사회 현상 탐구 실습: 스마트폰을 활용한 UCC 제작" 진행 순서 ···· 139

<표 Ⅴ-6> 2014학년도 연구과정 운영 일정 ····· 143
<표 Ⅴ-7>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 및 일정 ····· 154
<표 Ⅴ-8>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 ····· 155
<표 Ⅴ-9>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 164
<표 Ⅴ-10>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 166
<표 Ⅵ-1> 2012~2015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강남권·비강남권 중학교 학생 수 ····· 192
<표 Ⅵ-2> 2016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모집 요강 ····· 202
<표 Ⅵ-3>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세부추진 계획 안내 ····· 215
<표 Ⅵ-4>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 218
<표 Ⅵ-5>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 220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인문사회 영재교육과 '문질빈빈' ····· 35
<그림 Ⅱ-2> 2014학년도 서울시내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과 학생 비율 ····· 39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 ····· 58
<그림 Ⅳ-1>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이 지향하는 '여섯 위인의 삶' ···· 93
<그림 Ⅳ-2>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와 '여섯 위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113
<그림 Ⅴ-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순서 ····· 124
<그림 Ⅴ-2> 3학년 공통과정 이상준 조의 '순환성장형 보드게임' ··· 127
<그림 Ⅴ-3>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공통과정 ····· 158
<그림 Ⅴ-4>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전문과정 ····· 160
<그림 Ⅴ-5>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 162
<그림 Ⅴ-6> 사회과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 목표의 공통점 ····· 175
<그림 Ⅵ-1> 2012~2015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강남권·비강남권 중학교 학생 비율 ····· 193
<그림 Ⅶ-1> 보그다노프 벨스키(1918): 「교실 속 아이들」 ····· 224

사 진 목 차

<사진 Ⅲ-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 63
<사진 Ⅳ-1> 권영재의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 ····· 75
<사진 Ⅳ-2> 권영재가 확인한 '요동' 지방과 '요서' 지방 ····· 83
<사진 Ⅳ-3> 권영재의 "경제 25. 외부효과" PPT 자료 ····· 86
<사진 Ⅴ-1>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구슬 나르기' ···· 136
<사진 Ⅴ-2>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인간 매듭 풀기' ··· 138
<사진 Ⅴ-3>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100초 영화제' 동영상 촬영 ····· 140
<사진 Ⅴ-4> 3학년 영재캠프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후배들에게 남기는 진심 어린 충고" 상영 ····· 142
<사진 Ⅴ-5> 2학년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발표 ····· 14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문과 간다고 하면 수학에 자신 없어서냐고 물어봐요. 사회가 좋아서 선택한 건데... 이과 간 친구들은 과학이나 수학 영재수업을 듣는데, 저는 남다른 사회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과제에 도전 의식이 강하고,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특별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학생들을 지켜보는 나는 안타깝고 안쓰럽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내가 왜 교직에 몸담았는지를 잊고 있었다.
>
> - 2013. 10. 나의 교사생활에 대한 회상 일지

중등학교 주요 과목은 ‘국・영・수・사・과’라고들 한다. 내신 관리에 가장 신경 쓰이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이 문・이과생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사회는 문과생이, 과학은 이과생이 듣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문과생은 ‘사회탐구영역’에, 이과생은 ‘과학탐구영역’에 응시한다. 사회가 인문계열의 대명사라면, 과학은 이공계열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주인공은 과학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과학고에 간다. 과학고에 못가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 영재수업을 듣는다. 평범하지 않은 이과생들은 어디에서든 ‘특별한’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나 문과생은 다르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고, 인문사회 영역에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이어도 ‘흔치 않고 남다른’ 수업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많은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들을 뿐이다. 이 학생들에게 수업은 이미 알고 있는 학습과제를 반복하고 재생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도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받는 일은 없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그렇다. 이과생보다 문과생이 많지만, ‘과학영재학

급'은 있고 '사회영재학급'은 없다. 그동안 흔히 말하는 영재는 '과학영재'였다.

경제, 정치, 문화, 철학 분야의 독서에 몰두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호기심을 좇아 사회문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은 자신의 학문적 욕구를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는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마름은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이러한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을 교사가, 학교가, 국가가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혜강(惠岡) 최한기는 「인정(人政)」 '교인문(敎人門)'편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질을 설파한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멀리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사람을 보고 가르치는 것과 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며, 그 사람을 헤아려 보고 가르치는 것과 헤아리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최한기, 1860, p. 43)." 학생 한 명 한 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열정과 동기를 헤아려보고, 그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채우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敎授) 배우는(學習)' 일이다. 교육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끌어내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걸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교육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자아실현'이라는 이상이다. 부단한 자기계발과 자아발견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에 대한 확신과 신념일 것이다. 누군가는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의식과 국가 차원의 현실 인식 때문인가? 과거의 '소수'를 위한 영재교육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모든 학생'을 위한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년~201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영재

교육 분야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과학, 수학 중심의 영재교육을 사회, 인문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서울국제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등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2014학년도에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는 서울만 해도 10개 공립고와 18개 사립고에 이른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시도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더욱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그 학생이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배움'을 체험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하려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호흡과 숨결을 체험하고, 직접 겪어내는 연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 현장으로 선정하여,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과연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인문사회 영재라 할 수 있는지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할 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원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그러한 수업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1)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

시대에 따라 영재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 시대가 가치를 두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와 문화별로 영재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최근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가 아닌 학생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과연 인문사회 영재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교사의 '가르침'과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의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은 보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하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1)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2)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살펴본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징을 통해 알게 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와 '교육'에 대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관점은 어떠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영재의 열정과 동기를 채워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여,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그 내부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이 곧 연구의 범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정적 범위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다른 지역이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살펴보지 못한 채, 한 곳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현장으로 선정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각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와 교사가 수업을 참관하러 다녀갈 정도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전술하였듯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대학과 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서울시내 28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등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각각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각기 다른 학사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지적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둘째,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는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가 제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가르침을 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체계나 교수행위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하나의 연구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장기간 관찰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피상적 일반성으로는 구할 수 없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깊이'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월코트(Wolcott)가 말한 것처럼, 질적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의 폭보다는 깊이를 더 중시해야 한다(Wolcott, 1994;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 사례 연구의 강점은 특정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있다.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었는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인간'과 '교육'에 대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관점은 어떠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영재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을 관찰하기에 앞서, 영재교육의 이론적 측면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역사는 어떠하며, 영재교육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나라 각 분야별 영재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으며,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영재와 영재교육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아실현이다. 학습자의 의지와 욕구에 바탕을 두는 교육은 부단한 자기 계발과 자아 발견이라는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자아의 본질을 완성해간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은 지적 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부국강병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의 전홍택 소장이 언급하였듯이,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14)는 인식이 한국 영재교육의 도입과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과 합치한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그것의 필요성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한국의 영재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얼마만큼 와있으며, 각 분야별 영재와 영재교육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1) 영재와 영재교육의 역사

20세기 초, 미국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자는 터먼(Terman)이다. 1916년, 터먼과 그의 동료들은 비네(Binet)의 지능검사에 스턴버그(Sternberg)의 정신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라고 명명하는데,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탠포드-비네 지능검사(Stanford-Binet Intelligence Scales)이다. 터먼과 동료들은 스탠포드-비네 지능검사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아동 1,500여명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및 직업세계에서의 활동을 1922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추적 연구를 진행한다. 그의 연구 결과는 「천재에 대한 유전적 연구(Genetic Studies of Genius)」로 출판되었다(Davis et al., 2010). 이처럼 영재교육 초기에는 스탠포드-비네 지능검사를 통한 영재 판별이 이루어졌지만, IQ에 기초한 단일 차원의 정의는 사라지고 영재의 의미는 점차 확대된다.

러시아 위성 스푸트니크호의 발사 이후, 그동안의 미국 교육이 영재들에게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72년, 미국 국무부에 제출된 말랜드(Marland) 보고서에는 영재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판별된 아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영재가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뛰어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은 '일반적 지적 능력', '특수 학업적성능력', '창의적 혹은 생산적 사고', '리더십', '시각 및 공연예술 능력', '신체운동 능력' 분야 중에서 우수한 성취를 입증했거나 그러한 성취를 할 잠재력이 있다(Marland, 1972)는 것이다. 말랜드 보고서에서는 영재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교수전략과 함께 영재학교, 영재학급, 풀아웃(pull-out) 제도 등의 조직적-행정적 지원도 강조된다.

렌줄리(Renzulli)는 말랜드가 제시한 미국 국무부 정의가 영재성의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지적인 요소 외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고의 과정과 산물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 그는 1978년, 세고리 모형(the three-ring

conception)으로 보다 확장된 영재의 개념을 주창한다(Renzulli, 1978). 그때까지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능검사'였지만, 그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과제 집착력'과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뛰어난 성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렌줄리는 평균 이상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뛰어난 성취를 하기에 충분하고,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도 영재성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코네티컷 대학을 중심으로 국립 영재교육 연구소(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를 설립한 렌줄리는 영재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다(Davis et al., 2010). 그에 의하면, 영재는 '학업 영재'와 '창의적·생산적 영재'로 나뉜다. 학업 영재아동은 높은 시험 점수와 등수,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는 능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창의적·생산적 영재아동은 예술작업, 작곡, 시, 과학 프로젝트와 같은 창의적 산출물에서 특출하다. 그에 의하면, 과제 집착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창의적·생산적 영재'는 반드시 똑똑하지는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공심장을 발명한 로버트 자빅(Robert Jarvik) 박사가 고교 성적과 SAT 성적이 좋지 않아 미국 대학이 아닌 이탈리아에 있는 의대에 진학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개 '학업 영재'이기보다는 '창의적·생산적 영재'라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바이다(신동아, 2008).

가드너 역시 단일한 IQ 검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이론을 제시한다. 다중지능이론은 본래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등 일곱 가지 지능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후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이 추가되었고, '실존지능(existential intelligence)'은 '후보 지능'으로 제시되었다(Gardner, 1983).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모든 아이들은 같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운다.

이러한 학계의 추세에 따라, 1960년대 말에 단지 7개 주에서만 제정되었던 영재교육법(박성익 외, 2009)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된다. 많은 교사들과 행정가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교육 당국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호주, 헝가리, 이스라엘, 남아공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영재교육에 관한 정책과 관련 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송상헌, 2006a).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비롯한 수십여 개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Davis et al., 2010). 이처럼 영재교육은 점차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 영재교육의 필요성

(1) 교육 기회의 평등

영재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략 이렇다. 영재들은 그들의 재능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 호기심이 높고,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더 많은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영재를 위한 교육이 사교육 열풍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학업을 우수하게 해내는 학생이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 교육의 기본 가치는 '기회의 균등'이므로, 영재에게 교육기회를 더욱 많이 배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재교육 반대론자들의 논리이다[1].

1) 경향신문(2007년 11월 6일자), 세계일보(2012년 6월 18일자, 2010년 4월 12일자), 오마이뉴스(2009년 6월 16일자), 한겨레신문(2015년 9월 21일자, 2011년 1월 14일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능력’에 따른 평등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은 ‘다른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보통 학생에 비해 부진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보통 학생에 비해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의 학생들에 비해 그들은 ‘소수 집단’이고 ‘소외 계층’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등주의’는 학습자의 능력과 이에 따른 학습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에 비해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충족시키고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3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 19조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기회의 평등’이지 않은가? 우수한 학생이 보통 학생보다 많은 자원이나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동등한 몫, 즉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다.

(2)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다운 교육’

영재교육을 옹호하는 대부분 학자와 정치인의 생각은 이렇다. 영재육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사회의 부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2005년 12월 12일자) 참조

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두뇌를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고귀한 인적 자원인 우수한 영재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국가적 현실이자 과제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한다는 개인주의적 관점보다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국가·사회적 관점이 더 우선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교육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KEDI의 대표적 정기간행물인 「교육개발」 창간호가 1979년 7월 발행되었는데, 영재교육이 태동해가던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고급 두뇌의 양산과 인력 개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논문(김신복, 1979)이 게재되어 있다. 그 후, 과학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80년대부터 영재교육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온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아성취보다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온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은 「교육개발」의 여러 논문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교육개발」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KEDI 「교육개발」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논문 제목

순번	호차(발행연도)	저자	제목
1	통권 1호(1979)	김신복	고급 두뇌의 양산과 인력 개발 효율화

2) 국민일보(2006년 6월 20일자), 내일신문(2008년 9월 2일자), 동아일보(2012년 5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2000년 7월 27일자), 문화일보(2009년 1월 8일자), 서울신문(2002년 4월 11일자) 참조

2	통권 34호(1985)	노종희	과학기술계 고급 인력 장기양성 방안
3	통권 35호(1985)	한종하	인력개발의 효율화
4	통권 88호(1994)	한종하	미래는 고급두뇌 개발에 달려있다
5	통권 92호(1994)	김종서	청소년은 국가의 원동력
6	통권 124호(2000)	강무섭	인적 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7	통권 129호(2001)	유현숙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8	통권 129호(2001)	김태준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9	통권 137호(2003)	이용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고등학교
10	통권 137호(2003)	정기오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 부총리 제도를 중심으로
11	통권 141호(2003)	홍영란	우리의 인적 자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12	통권 146호(2004)	권두언	우수인재의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하자
13	통권 184호(2013)	김미란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 혁신 방안
14	통권 186호(2013)	에후드 바라크	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
15	통권 189호(2014)	서예원	21세기 인재강국 DNA, 우리가 만든다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논문 제목과 그 기조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원동력”이자 “발전의 핵심”인 “인력의 양산” 혹은 “인적 자원의

육성”이 절실하다. “인간 자본”을 “양성”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통해 “두뇌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인재 강국”을 만들기 위한 학교 교육의 “기능”이다. 학생이 자발적인 흥미와 열정으로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대로 “키워지는 것”, 학교 교육의 존재 이유를 본질이 아닌 “기능”에서 찾는 것,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다. 이처럼 교육을 ‘인간의 성장’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수단’이라는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풍토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다.

2013년 10월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년~2017년)’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자산인 창의적·융합적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혁신과 다양한 잠재력 계발이라는 개인적 필요를 동시에 실현시킨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 영재교육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제 ‘개인적 성취’보다는 ‘사회적 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훨씬 길고 정교하다. 이는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

> 21세기는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창의력을 갖춘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의 순기능은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두뇌의 척도가 국력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에 뛰어난 두뇌의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경쟁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것만이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송인섭, 2002, p. 25).

과연 ‘사회적 기여’와 ‘국력 신장’이 영재교육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고, 가치인가? 이러한 사고가 영재교육을 ‘교육다운 교육’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교육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 그 사회의 문화가 지향하는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다운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품성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조용환, 1997). 결국 학습자의 의지와 욕구, 그것을 통한 개인적 성취감을 누리게 한다면, 그 교육은 '교육다운 교육'이다. '더 나은 인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발전이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더 나은 인간'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은 인위적인 일이다. 이는 '교육답지 않은 교육'이다.

가드너(Gardner, 1961)가 제시한 교육의 수월성에도 국가 중심적 사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주창한 수월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기 계발과 자아 발견이라는 욕구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영재교육이 바로 '교육다운 교육'인 것이다.

영재교육은 '더 나은 세상'보다는 '더 나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 현장이나 정책에서 영재교육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문화담론'을 마주하게 된다. 조용환(2001)은 문화담론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존과 실존의 방식에 관한 담론"임을 밝힌다. 첫째, '자원인구담론'의 시각에서 보면, 좁은 땅덩어리뿐인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재교육은 우리 사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발전담론'은 국가가 개인에 앞서며,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에 있다. 이때 영재는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셋째, '기능주의담론'에서는 사람의 '의미'보다는 그가 가진 '기능'을 우선시한다(조용환, 2001). 영재의 '기능'은 창의적인 사고로 가시적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이다.

세 가지 문화담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고, '개인'이 아

니라 '국가'이고, '본질'이 아니라 '기능'이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학생들이 가시적 산출물을 창조하여,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영재교육의 존재 이유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영재교육은 '영재가 얼마나 사회적 헌신을 해내는가?'라는 문화담론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영재가 얼마나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가?'라는 '교육다운 교육'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려는 실존주의는 19세기의 합리주의적 관념론 혹은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도전에서 시작된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반면에 인간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역현상도 초래하였다(박의수 외, 1998, p. 127). 실존주의는 현대문명의 비인간화에 대한 반항으로 등장한다.

'실존'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이다. 실존철학의 '실존'은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현존'을 의미한다. 실존철학에서 인간존재는 미리 짜여진 우주의 질서, 사회적 규범, 도덕적 판단기준에 매일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생소한 광야에 내던짐을 당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자기 책임 하에서 형성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Sartre, 1947; 한명희·고진호, 2010, p. 12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실존철학에서는 인간이 자기 책임 하에서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규범을 선택하는 행위 혹은 규범에 대한 인격적 결단과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실존적 '자유'의 구체적 의미는 '선택의 자유'인 것이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는 '주체적 개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적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실존철학적 교육은 과학만능주의, 비인간주의를 타파하고,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한명희·고진호, 2010, p. 131). 이는 실존주의가 사회개선과 다수의 행복이라는 목적보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과도 맥이 통한다. 실존주의에 따르면

각자는 유일하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다. 학습자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는 개인을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적합하게 만드는 일체의 교육을 부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신장하고 창조적인 개성을 갖도록 격려해야지, 관습에 순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박의수 외, 1998). 이는 가드너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획일화되어왔고, 학생들은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아왔다는 사실을 비판한다(Gardner, 1983). 그러한 접근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학생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보편화된 교육과 집단적 획일화에 대한 '비판'이고, 현대 교육이 인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일침'이다.

실존주의 교육철학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표준적 속성에 따른 교육보다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둔다. 이는 기술 문명과 관료기구, 객관주의에 대한 항변이고, 산업사회에서의 조직화로 인한 인간소외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박의수 외, 1998). 이와 같은 실존주의 교육철학에서 본다면, 영재라는 '개인'보다는 영재를 요구하는 '사회', '개인을 위한 영재교육'이 아닌 '국가를 위한 영재산업'이 주인공이 되는 현 교육풍토를 '인간소외' 현상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간과하고 획일화된 일반법칙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평준화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지 않을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철저한 선택과 책임, 그리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이다. 실존주의 교육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수많은 것으로부터 그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교는 선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되, 선택의 종류를 일방적으로 혹은 획일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가르침'에 앞서 '배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학생이 존재하는 한 배움의 기쁨과 보람, 참된 의미도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

정하고 존중하여 배려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철학이고, 원리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더 나은 인간'을 육성하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에 높은 가치를 둠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다운 교육', '영재교육다운 영재교육'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3)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1) 영재교육의 도입과 성장

가.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이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계발하고 과학 우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공계 진로를 도와줌으로써, 장차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김미숙, 2007, p. 9). 1987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2010년부터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었으며, 전환된 후에도 교명은 '과학고등학교'로 유지되고 있다.

나. 「영재교육진흥법」(2000년)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02년)

2000년 1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법률 제 6215호)이 제정·공포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영재'와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영재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

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5조 1항에는 "영재교육 대상자는 일반지능, 특수 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4월 18일,「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된 이후, 일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재교육을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어 왔다.

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년～2017년)

영재교육의 도입기인 제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년～2007년)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영재교육의 발전기인 제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년～2012년)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간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연수 및 프로그램의 확대로 영재교육의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혜 분야의 편중으로 인하여 다양한 재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이 미흡하였다. 또한,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융합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모경환·박정서·안보형, 2014, pp. 106-107).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년～2017년)을 발표하였다. 영재교육의 도약기로서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융합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프로젝트 학습의 일반고 확대를 지원하며, 융합형 교육과정의 개발 및 융합영재교육원 신설을 추진하고, 영재교육기관에 자율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교육부, 2013,

pp. 2-3).

융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은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영재교육은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에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적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I)의 영재학생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물학, 역사,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법, 도덕, 비판적 사고, 문학 이해, 사회관계 형성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MINT(Mathematics, Informatics, Natural sciences, Technology) 교육으로 불리는 STEM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학문의 통섭(Consilience)이나 융합(Convergence)을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에서 미래 예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문제해결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영재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최근 싱가포르예술학교(The School of the Arts)는 학생들에게 영문학, 모국어, 통합인문사회과학(인류학, 지질학, 역사, 철학 및 사회학 등), 수학, 통합과학, 예술을 포함하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다문화 사회를 이끌 예술가와 창의적인 전문인들을 육성하고 있다(이재분, 2012, pp. 123-162).

우리나라 영재교육도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발은 기존의 시험위주의 선발에서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토대로 하는 잠재력 있는 영재를 발굴하는 것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기관의 현황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 기관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시·도 교육청, 대학 부설), 영재학급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 기관의 수는 2005년에는 488개였으나, 2014년에는 그것의 6배에 달하는 2,920개에 이른다.

<표 Ⅱ-2> 영재교육 기관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영재교육 기관수(개)	488	575	663	867	1,280	1,840	2,586	2,868	3,011	2,92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표 Ⅱ-3>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재교육 대상자수 (명)	31,100	39,011	46,006	58,953	73,865	92,198	111,818	118,377	121,433	117,949
전국 초중등 학생수 (명)	7,757,900	7,724,840	7,757,023	7,617,800	7,387,047	7,262,715	7,012,196	6,721,176	6,481,492	6,285,792
비율 (%)	0.40	0.50	0.59	0.77	1.00	1.27	1.59	1.76	1.87	1.8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표 Ⅱ-4> 영재교육 담당 교원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재교육 담당 교원수 (명)	7,084	11,245	14,791	19,729	23,013	25,150	26,814	27,26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영재교육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전국 초·중등학생 수 대비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1.88%에 달하였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수도 2007년(7,084명)에 비해 2014년에는(27,263명) 4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가 전문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면, 각 분야별 영재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분야별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람마다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다르다. 많은 학자들이 영재성의 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가네(Gagné)는 지적, 창의적, 사회정서적, 감각운동적 분야로 나눈다. 전술하였듯이, 가드너는 영재성을 크게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 등 9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재성이 나타나는 분야를 수학영재, 과학영재, 음악영재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박성익 외, 2009). 여기에서는 과학영재와 수학영재, 예술영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과학영재와 영재교육

(가) 과학영재교육의 역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영재교육은 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성이 있는 학생만을

위한 학교로, 일반학생과 분리 교육하며, 전원 기숙 생활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전국에 7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송인섭・한기순, 2008), 2015년 현재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는 20개교, 과학영재학교는 7개교이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등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범주에 포함되며, 광역단위 선발 방식으로 관내 거주자가 지원한다. 교육과정도 일반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필수 이수단위가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교과를 심도 있게 수학한다. 반면에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전국단위 선발 방식이므로 전국 모든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과정도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색 있는 커리큘럼의 편성이 가능하다. 1998년,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대학 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은 2015년 현재, 전국 27개 대학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나) 과학영재의 특성

그동안 영재교육은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하다. 그러나 '과학영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과학영재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김주훈 외(1996)는 과학영재가 '영재의 개념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 분야에 특별한 과제 집착력을 보이고,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고, 조석희 등(1997)은 과학영재를 '전문가가 과학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거나 이룰 것으로 판정한 사람으로, 그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는 정규 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조석희 외, 1997). 이처럼 과학영재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영재성의 개념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박성익 외(2009)에 의하면, 과학영재에 대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과학영재는 높은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 분야에서의 학업성취도와 과학 적성으로 반영되는 과학 특수 능력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는다. 둘째, 과학영재는 많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과학영재는 과학 분야의 과제집착력, 흥미, 동기, 자신감 등의 비지적 요인에서 뛰어남을 보인다. 이들이 정리한 과학영재의 특성은 말랜드와 렌줄리가 함께 제시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말랜드가 언급한 특수 학업적성능력과 렌줄리가 중시한 과제집착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은 그들의 특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과학영재교육의 전문가들은 과학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성익 외, 2009).

첫째, 의문 또는 문제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보다는 창의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둘째, 탐구과정 중심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학영재를 위한 과학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실험실 작업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설 및 실험기구가 충분하게 갖춰져야 하며, 항상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전이나 흥미는 우수한 시설과 기구를 다룸으로써 더욱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학내용의 습득을 강조해야 한다. 탄탄한 내용적 기반 없이 창의적인 방법만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내용 없는 방법은 공허할 뿐이다. 다섯째, 관찰과 이론에 대한 학습이어야 한다. 관찰에 이한 이론의 구성이나 이론에 바탕을 둔 관찰 결과의 예측을 훈련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섯째,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토론의 부족, 교과서에 치중한 학습, 실험시간의 부족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과학 학습 환경이다. 일곱째, 학생들의 상위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별개의 사실을 학습하기보다는 문제의 인식과 분석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과학영재는 성공적인 과학자와 상호작용을 할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성공적인 과학자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실제 과학자의 활동, 신념, 특성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홉째, 과학영역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과학연구를 보다 일찍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문제해결(problem-solving)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발견(problem-finding)을 강조해야 한다. 과학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문제를 영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된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학습 모형이다. 문제 중심 학습의 목적은 유연한 지식,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 학습, 효과적인 협업 능력, 내재적 동기를 학생들이 계발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안내하고 보조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과는 매우 다르다. 이와 비슷한 것이 프로젝트 학습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세워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모형이다.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복잡한 실제 상황의 문제를 협동을 통하여 해결해나간다. 교사 주도적인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강조된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시되는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 수학영재와 영재교육

(가) 수학영재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과학영재교육이 시행되던 초반에는 과학영재와 수학영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학영재교육은 각 대학이나 지역 교육청의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학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력을 가진 아동들의 특징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영기・도종훈(2001)은 수학영재가 수학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수학의 학문적 구조를 인식하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므로, 과학영재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수학영재가 아무리 뛰어난 지적 재능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의적인 면이 함께 발달하지 않으면, 그 영재성이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사회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러시아 수학자 크루테스키(Krutetskii, 1976)에 의하면, 수학영재가 보이는 징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계산능력이 뛰어나다. 둘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단축된 사고활동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학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보이기도 한다(강옥기, 1991에서 재인용). 이에 더해 크루테스키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영재의 행동특성을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정보 파지 능력의 3단계로 나눈다. 그는 수학영재가 자기 주위의 환경을 수학적으로 끼워 맞추려 하고, 현상의 수학적 측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공간적・양적 관계를 결합시킴으로써 함수적 관련성을 알아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종률, 2008). 말하자면,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수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수학영재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운영 체제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박종률(2008)은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제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 활동을 개발·육성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리나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 아닌 주제 중심의 탐구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원리와 법칙을 생성하기, 규칙성을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사고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추론에 대해 검증하기,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해석하기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송상헌(2006b) 역시 우리가 영재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핵심은 관련 분야에서의 창조적 산물의 생산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성의 지식으로만 수학영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기존 지식의 많은 학습량보다는 창의적 접근과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사고 태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문제풀이 중심 수업에서 탐구나 발명, 토론을 위주로 하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학영재교육 프로그램도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 중심 학습, 토론식 학습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다. 예술영재와 영재교육

(가) 예술영재교육의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을 위한 학교는 과학영재교육보다 예술과 체육 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예술영재교육은 음악, 미술, 무용에 재능이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교육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예술영재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 1953년에 서울예술고등학교, 1965년에 경북예술고등학교, 1972년에 국악고등학교, 1974년에 충북예술고등학교, 1976년에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개교하였고, 고등학교뿐 아니라 예원학교(1966)와 선화예술학교(1973) 등 중학교에서도

예술영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예술적 재능인의 성장을 돕고 있다. 1993년에 개교한 한국종합예술학교는 대학 과정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조기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한국예술고등학교가 개교하여 음악과, 미술과, 연극영화과를 개설하였다(송인섭・한기순, 2008).

2002년, 문화관광부의 '문화 예술의 지식 자산화를 위한 전문인력육성 시행방안'은 문화 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예술영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향한다(한국예술영재학회, 2005). 우리나라에는 예술영재의 특성에 적합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인식 하에 많은 예술계 중・고등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나) 예술영재의 특성

한국예술 영재교육원에서는 예술 분야의 영재에 관해 "예술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뛰어난 '예술성'을 토대로, 예술적 지식들을 내면화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예술을 찾아가는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건희, 2012). 예술 분야의 영재성은 과학이나 수학 등 학문 분야에서의 영재성과는 달리, 높은 IQ나 탁월한 학업 성적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음악, 미술, 무용 분야 영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음악영재의 특성

일반적으로 음악영재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모든 음악영재가 이른 나이에 영재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음악적

잠재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계발되기도 한다.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 2000)는 음악 영재의 핵심적 능력은 조성, 하모니, 리듬과 같은 음악적 구조에의 민감성과 음악의 표현 특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힌다. 음악 구조에 민감한 아동들은 음악을 듣고 쉽게 목소리나 악기로 재연할 수 있으며,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음악 생성력을 보이기도 한다.

위너와 마르티노가 음악영재의 속성을 '음악성' 위주로 제시하였다면, 한국예술영재학회(2005)는 음악영재의 특성이 음악성이라는 하나의 특정 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음악영재의 특성은 음악성뿐 아니라, 창의성과 정의적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에 있어서의 창의적 산출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의 영재성에 포함되는 여러 특징적 요인들은 선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 충분히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영재의 발굴과 교육 및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원영실(2013)은 음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의 관찰정보 개발 과정에서 음악영재성의 심리학적 구인을 탐색하여, 음악영재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영재의 특성에 관한 렌줄리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영재성이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 음악에 대한 과제집착력이 서로 얽혀 있는 속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음악성, 창의성, 정의적 특성을 음악영재의 속성으로 제시한 한국예술영재학회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미술영재의 특성

미술영재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아동에 비해 앞설 뿐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완성한다. 위너와 마르티노(Winner & Martino, 2000)에 의하면, 미술영재는 일반아동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림을 그리고, 시각적 기억력이 탁월하며, 미술적 능력을 계발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

만의 특유한 방법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김건희(2012)는 시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재현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시각 정보에 대해 끈기 있게 탐구하여 내면화하는 것이 미술영재의 행동 특성이라고 제시한다. 보통 미술영재는 높은 지적 능력보다는 높은 시각적, 공간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브리테인(Brittain, 1987)은 이러한 미술영재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이다. 미술영재는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 둘째, 고도로 발달된 감수성이다. 미술영재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각을 통합하는 감수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셋째,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이다. 미술영재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하는 고도의 상상력이 잠재되어 있다. 넷째, 표현의 직접성이다. 미술영재는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직관적인 자질로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다섯째, 고도의 자아동일시(self-identification)이다. 미술영재에게 그림을 그리는 연필은 몸과 분리된 도구가 아닌 몸의 일부이고, 이를 통해 미술영재는 주제와 완전한 정서적 유대를 통해 하나가 된다(박성익 외, 2009에서 재인용).

브리테인이 제시한 유창성과 감수성, 상상력, 직접성, 자아동일시는 밀브래스(Milbrath)가 언급한 '세계를 다르게 보는 눈'과도 연관된다. 미술영재는 시각적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부호화하고, 세계를 개념보다는 형상과 시각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세계 그 자체를 그리는 활동에 참여하여 잘못된 점을 발견함으로써, 세상을 종이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Winner & Martino, 2000).

③ 무용영재의 특성

무용 전문가들과 교육자들 간에도 무용영재의 특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무용영재성을 분석한 오레지나 외(2005)에 의하면, 무용영재는 '무용 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으로 무용 체격(dance physique), 무용 체력(dance fitness), 무용 동작 능력(dance movement ability), 무용 성향(dance disposition)을 제시하는데, 이 중 무용 동작 능력에는 재현 능력과 창작 능력이 포함되고, 무용 성향은 표현성과 독창성, 과제집착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무용 교육은 이러한 특성을 갖춘 아동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하여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음악, 미술, 무용 분야 등 각각의 예술영재 교육기관에서는 영재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영재 교육과정은 예술영재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보조자로서 학습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한국예술영재학회, 2005). 그러나 일반적인 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소홀히 하거나, 특정 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김경자 외, 1997).

음악영재교육은 근본적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이므로,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실현장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한 교실 내에서도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여, 보다 수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최은식, 2003). 그러나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답습하는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이미경, 2010). 미술영재의 미술적 재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재료보다는 문제에, 그림을 그리는 기교보다는 자신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고, 미술의 다양한 매체와 소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소재별로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는 방법(조석희, 1996)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무용영재는 다양한 무용 동작을 최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

해 신체적 요인과 동작기술 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 태도 등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원영실, 2013).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영재교육, 수학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면,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현재 어디쯤을 걷고 있는 것일까?

2. 인문사회 영재와 영재교육

우리나라의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학, 수학 중심의 영재교육이 사회, 언어, 예술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학, 수학,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 역사 및 특징이 지금껏 살펴본 대로라면,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역사 속에서 얼마만큼 걸어왔으며, 현재 어디쯤을 걷고 있는가? 우선 우리나라의 영재와 인문사회 영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외되어 온 인문사회 영재

'영재(英才)'의 '영(英)'은 '뛰어날 영'이고, '재(才)'는 '재주 재'이다. 영재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재주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무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존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영재는 천재와 어떻게 다른가? 천재(天才)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하늘이 내려준 인재'로도 많이 쓰이는 걸 보면,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진 선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천재가 아닌가 싶다. '천재 음악가'라고 불리는 모차르트는 네 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이중섭과 스페인의 피카소도 '천재 화가'로 기억된다. 이른바 어린 시절 '신동(神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천재로 남기도 한다. 신동과 천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달리, 영재는 선천적 요인뿐 아니라, 후천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적 요인인 IQ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노력에 의해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존재가 영재 아닐까? '천재'의 개념보다는 이러한 '영재'의 개념이 사회과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천재 수학' 문제지를 풀어본 기억은 있지만, '천재 사회' 문제지를 풀어본 적은 없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역사 속에 있지만, '천재 사회학자'라는 표현이나 그에 대한 기록은 없다. 사회는 과학이나 미술, 음악과는 달리 역사에 남을 가시적 결과물을 단시간에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사이먼턴(Simonton, 1994)은 뛰어난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기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창의성의 유형은 "Big-C(Big Creativity)"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몇몇 학자들은 유용하고 중요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닌 공헌, 즉 "little-c(little creativity)"에 대해 연구하였다. 코프만(Kaufman)과 베게토(Beghetto)는 "mini-c(mini creativity)", 즉 개인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창의성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은 "mini-c" 창의성을 "경험과 행동과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참신한 해석"이라고 정의한다(Smith & Smith, 2010).

가드너(Gardner, 1993)는 「열정과 기질(Creating Minds)」에서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엘리엇, 스트라빈스키, 피카소가 연구실 혹은 작업실에서의 창조자라면, 간디는 특정 시기에 공개적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밝힌다. 이러한 면에서 간디는 Big-C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드너는 셰익스피어와 괴테도 뛰어난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한다(Gardner, 1983). 베게토(Beghetto, 2010, p. 455) 역시 모차르트와 피카소뿐 아니라, 간디의 창의성도 Big-C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마더 테레사도 사회적 정당성을 다루며 Big-C를 창조하였음을 확언한다(Beghetto, 2007, p. 140). 사이먼턴은 그가 연구한 리더(leaders)는 지도자이면서 창조자로서, 301명의 천재 중 3분의 1이 정치인, 혁명가 등의 리더에 해당하고, 이들은 일반지능, 통합적 복합성, 동

기, 끈기, 투지 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imonton, 2010, p. 15). 코즈벨트 등(Kozbelt, Beghetto & Runco, 2010)도 역사에 남을 문학 작품, 회화, 영화, 학문적 발견이 Big-C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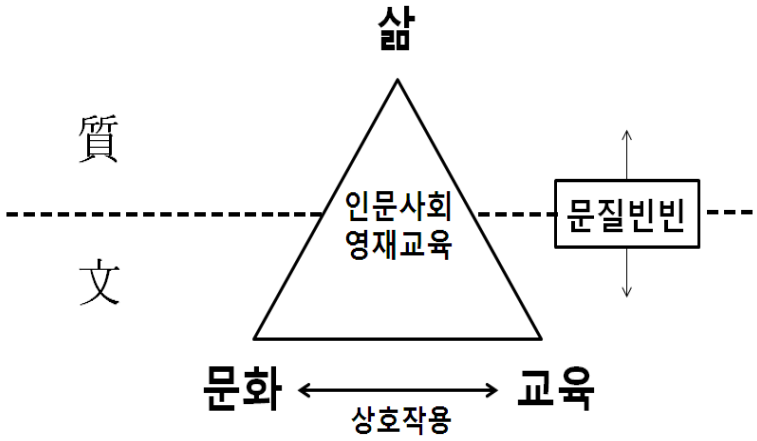
이처럼 Big-C는 과학과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도 관찰되지만, 사회 분야는 역사에 남을 가시적 창출물을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어렵다. 사이먼턴(Simonton, 1997)은 직업에 따라 창의성이 다른 시점에서 발휘된다고 하였는데, 그가 물리학 분야에서는 나이가 어린 시기에 창의성이 발휘된다면, 역사와 같은 분야는 몇 십 년이 지나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ternberg & Kaufman, 2010, p. 473).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조숙함이나 신동의 자질이 금방 눈에 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문사회 영재로서의 자질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의 도덕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한 사안에 특히 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가시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과학, 음악, 미술이 '눈에 보이는 창의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Big-C에 해당한다면, 사회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비가시적인 little-c나 mini-c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시적 결과물에 높은 가치를 두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과학영재에 비해 인문사회 영재의 재능 계발에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과학이 아닌 사회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가시적 산출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예술가의 창의성이 담긴 작품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했던 본인의 의도도 거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안보형, 2012).

학문 분야별로 질(質)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다르므로, 문(文)도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과학 영역에서는 'Creativity'를 '창조성(創造性)'으로 해석하지만, 사회 영역에서는 이를 '창의성(創意性)'이라 표현한다. 사회 분야의 창의성(創意性)에는 '뜻 의(意)'자가 들어가지만, 과학 분야의 창조성(創造性)에는 '만들 조(造)'자가 포함된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비

(非)가시적인 '뜻(意)'을 세우려 하는 것이 사회영재라면,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 가시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造)' 것이 과학영재이다. 스턴버그와 코프만(Sternberg & Kaufman, 2010)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인이나 조직은 짧은 시간 내에 성과물을 산출하기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직시한다.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산출물을 내보일 수 있는 '창조(創造)적인' 과학영재가 우대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창의(創意)적인' 사회영재가 홀대받아온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가보라와 코프만(Gabora & Kaufman, 2010)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10,000~12,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농업과 바퀴의 발달이 시작되었고, 5,000~6,000년 전에는 문자가 발달하게 되었다. 4,000년 전에는 천문학과 수학이 나타났고, 2,500년 전에는 철학적 아이디어가 표현되었으며, 1,000년 전에는 인쇄기가 발명되었다. 500년 전부터는 현대 과학 방법론이 등장하는데, 이 영향으로 최근 100여 년간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의 창의성 돌파구(creative breakthroughs)는 과학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언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면, 과거의 영재와 현재의 영재가 어떻게 다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영재성의 개념은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 Ⅱ-1> 인문사회 영재교육과 '문질빈빈'[3]

문화와 교육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형식'으로서 부단히 영향을 주고받는다(조용환, 2001). '현상의 이름'으로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현상 그 자체'로서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아니다. 어떠한 태도나 행동, 성질을 '인문사회 영재교육'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문'으로서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서 살펴보려면, 일단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4]. 그렇다면 '영재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문'으로 규정되었을까?

'영재교육'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敎授), 배우는(學習)'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통교육은 영재교육이 뜻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서당 교육은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속에서 학생 개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학습 내용은 없었고,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 진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뛰어난 학생은 능력에 따라 빠르게, 혹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서당의 특징이라면 '문(文)'에 대한 숭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학문과 유학을 숭상하여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하였고, 유학경전에 대한 지식과 논술을 시험하는 문과시험 출신의 관리가 문관

3) 조용환(2012a).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 15권, 제 2호, p. 14 참조

4) 「논어」에서 공자는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질이 문을 압도하면 거칠고, 문이 질을 압도하면 틀에 갇히게 된다. 문과 질의 어우러짐,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라고 하였다. 질이며 바탕인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이다. 그와 달리 문화는 인간이 생존과 실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선택하고 길들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긴 것이다. 문화는 각 집단이 선택한 삶의 길이며 방식이다. 질적 연구는 문에서 질로 돌아가기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문질빈빈을 추구한다(조용환, 2011, pp. 11-13). 이 태도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 즉 문적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덥석 받아들이지 않는 변증법적 대화의 태도이다. 문으로 '구성'된 것들을 '해체'하여 질적 가능성의 바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더 나은 문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기존의 해석들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는 해석학적 순환의 태도이다(Derrida, 1967, 1976, 1989; 조용환, 2012a에서 재인용, pp. 10-11). 문질빈빈은 질에서 문을 구성하고, 문을 질로 해체하고, 다시 질에서 문을 구성하는 구성-해체-재구성의 과정을 주목하고 또 실행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12a, p. 13).

이 되었다. 반면에 오늘날 중시되는 과학자가 당시에는 중인 계급에 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영재들이 우대를 받고, 과학영재들이 홀대를 받는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고대 스파르타에서 영재성은 전투기술로 정의되었고, 로마에서는 건축과 법학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당나라는 문학과 유교사상을 중시하였다.

시대에 따라 영재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 시대가 가치를 두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인 유학사상이 인문사회를 중시했다면,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은 과학을 중시하는 문화를 낳았을 것이다. 요즘 빈번하게 화두로 등장하는 '통합'과 '융합' 트렌드가 과학 위주의 영재교육을 국어, 사회, 예술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문사회 영재를 중시하는 문화가 백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닐까?

2) 우리나라 인문사회 영재교육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해오면서, 영재교육 기관과 대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중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은 3% 전후로 여전히 적은 편이다.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이 전체 대상자 중 82.6%(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수학·과학 위주의 편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5> 2012년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구분	수학·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체육	인문사회	기타
학생수(명)	98,452	4,248	3,869	3,233	4,192	3,268	1,115
비율(%)	83.2	3.6	3.3	2.7	3.5	2.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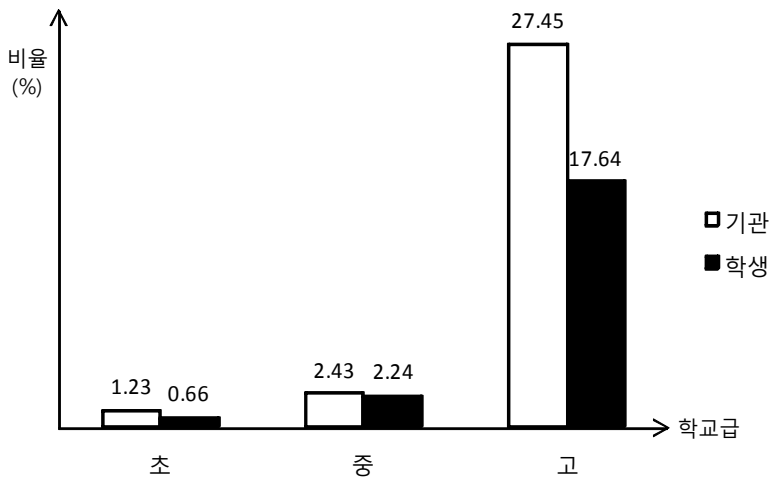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표 Ⅱ-6> 2014년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구분	수학	과학	수학·과학	발명	정보과학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학생수(명)	16,272	20,407	60,752	4,382	3,090	3,209	1,729	1,844	767	3,800	1,697	117,949
비율(%)	13.8	17.3	51.5	3.7	2.6	2.7	1.5	1.6	0.7	3.2	1.4	100.0
	82.6			17.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그러나 2012년 2.8%였던 인문사회 분야 영재학생의 비율은 2014년에 3.2%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정보 사이트 '서울영재교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내 '초등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는 총 243개 중 3개, '학생 수'는 총 9,054명 중 60명, '중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는 총 123개 중 3개, '학생 수'는 총 5,355명 중 120명에 불과하지만, '고등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는 총 102개 중 28개, '학생 수'는 총 3,400명 중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영재교육 기관 수 대비 초등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가 1.23%, 전체 영재교육 학생 수 대비 초등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학생 수가 0.66%에 해당하고, 중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는 2.43%, 학생 수는 2.24%에 불과하는 반면, 고등학생 대상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 수는 27.45%, 학생 수는 17.64%에 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훨씬 더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4학년도에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는 서울만 해도 서울고, 서울사대부고, 용산고 등 10개의 공립고와 18개의 사립고에 이른다.



<그림 Ⅱ-2> 2014학년도 서울시내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과 학생 비율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9년 서울국제고등학교,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2012년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부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국제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는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창의성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40명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한다.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 4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초등 분야(초등학교 5~6학년)와 중등 분야(중학교 1~2학년)로 나뉘어 수업을 듣는다. 오리엔테이션 입문 교육 4차시, 인문사회 영역의 주제별 교육 72차시, 리더로서의 인성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전체 및 영역별 리더십 교육 24차시, 총 100차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

영재교육원은 인문과학(문학, 철학, 역사학)과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등 인문사회 전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총 2년간 운영된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산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나 대학 부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인문사회 영재학급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1983년, 과학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과학고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출범한 지 30여년이 흐른 지금,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현시대 영재교육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지, 그 학생이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배움'을 체험하는지, 그러한 상호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면밀히 탐색함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3) 해외 인문사회 영재교육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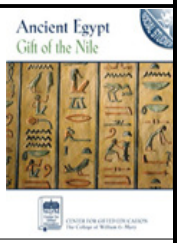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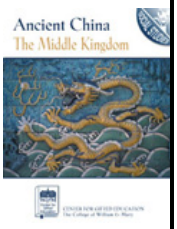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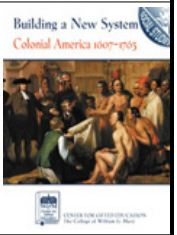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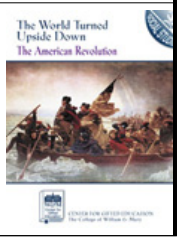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수업 전략과 교육과정 구성 방식으로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영재교육센터의 사회과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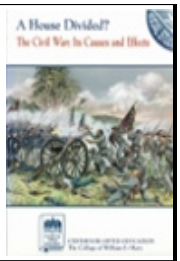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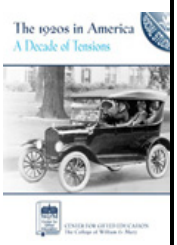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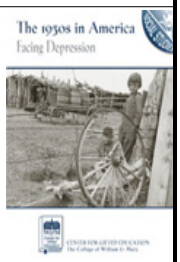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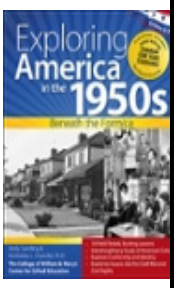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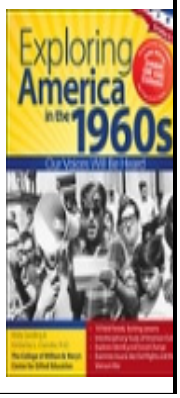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영재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언어(Language Arts),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 분야로 나뉜다. 이곳의 영재교육과정은 반타셀바스카(VanTassel-Baska)가 개발한 통합교육과정 모형(Integrated Curriculum Model: ICM)으로 구성된다. ICM은 과학, 언어, 수학,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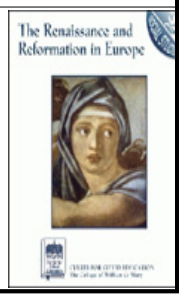
등의 교과에 적용되어온 유용한 모델이다. 사회과 영재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핵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자료 분석과 비판적 사고, 개념 발달을 강조한다. 사회과는 미국의 역사, 미국 정부, 고대문화, 그 외에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5].

<표 Ⅱ-7>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영재교육센터 사회과 교육과정

	주 제	내 용	교 재
1	고대 이집트 : 나일강의 선물	2~3학년이 대상이다. 고대 이집트의 농업, 경제, 언어, 리더십을 탐구하고, 현재 자신의 삶과 고대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2	고대 중국 : 중기 왕국	2~3학년이 대상이다. 고대 중국의 농업, 언어, 리더십, 무역을 탐구하여, 현재 자신의 삶과 고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새로운 체제 구축 : 식민지 시대의 미국	4~5학년이 대상이다. 초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탐구하여, 당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집단에서의 생활양식과 비교하도록 한다.	
4	세상이 바뀌다 : 미국 혁명	4~5학년이 대상이다. 독립전쟁의 연대기와 주요 사건을 탐구하고, 그것을 발생시킨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도록 한다.	

5)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School of Education (http://education.wm.edu/centers) 참조

5	내분 : 남북전쟁의 원인과 영향	5~6학년이 대상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연대기와 사건을 살펴보고,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6	1920년대 미국 : 긴장의 10년	6~7학년이 대상이다. 1920년대의 기록물뿐 아니라 음악과 광고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당시의 시대적 가치, 생활양식, 경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탐구하도록 한다.	
7	1930년대 미국 : 대공황	6~7학년이 대상이다.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제시하고,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대공황의 원인과 영향을 탐구하도록 한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지리, 정부, 경제의 변화도 파악하도록 한다.	
8	1950년대 미국 탐험 : 포마이카(Formica)	6~8학년이 대상이다. 1950년대의 문학, 예술, 음악을 탐구하여, 그들 주변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트세대(Beat Generation)와 같은 문화 아이콘을 통해 미국에서의 충돌과 조화, 공존을 이해하도록 한다.	
9	1960년대 미국 탐험 : 우리 목소리가 들려	6~8학년이 대상이다 1960년대의 문학, 예술, 음악을 통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 시대의 정체성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탐구하도록 한다. 케네디, 비틀즈, 앤디 워홀, 비치 보이즈와 같은 문화 아이콘이 시민 권리와 여성 인권 운동, 베트남 전쟁처럼 거대한 이슈였음을 조사하도록 한다.	

10	백악관으로 가는 길 : 미국의 대통령 선거	6~8학년이 대상이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캠페인, 선거, 학술자료, 통계를 조사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과 상황을 분석하여 리더십을 탐구하도록 한다.	
11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0~12학년이 대상이다. 중세 시대의 탐험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배경을 추적하도록 한다.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적 변화를 파악하여, 그 시기의 정치, 종교, 경제적 권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도록 한다.	

영재학생들은 수준 높은 내용, 고차적 기능과 과정, 지적 도전, 통합적 학습 주제의 학습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ICM은 교육과정의 개정 및 수업 실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VanTassel-Baska, 2009).

<표 Ⅱ-8> 통합교육과정 모형(ICM)의 특징

특 징	내 용
의미 중심 (meaning-based)	'의미 중심' 학습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알 필요가 있는 현실 세계의 주제와 문제라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역사적인 사건과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사건과 문제에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학문 내 (intradisciplinary), 학제 간 (interdisciplinary) 연관성	'학문 내, 학제 간 연관성'은 매우 중요한 수업 원리이다. 학생들은 각 학문의 주요한 개념과 쟁점, 주제를 다루며 이 과정에서 개별 학문의 구조에 기초한 학문 내적 연관성을 탐구한다. 또한 통합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주제는 다양한 학문의 구조를 넘나들게 된다.

메타인지 (meta cognition)	'메타인지'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관찰하고 평가한다. 사회과에서 학생들은 메타인지 기능을 적용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주어진 사회문제에 대한 규정과 그 해결책을 탐색하는 전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사고 습관 (habits of mind)	'사고 습관'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고 습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사한 생각을 함양하게 한다. 사회과에서 요구되는 사고 습관은 인과관계의 복잡성과 편견에 대한 반성과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탐구중심 학습과 문제해결 (inquiry-based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탐구중심 학습과 문제해결'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함께 활동한다.
학습도구로서의 기술 (technologies as integrative tools)	사회과의 '학습도구로서의 기술'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인터넷을 통한 연구로부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타국 학생과의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 학습단위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실제적 평가 (authentic assessments)	'실제적 평가'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의미 있는 학습결과를 파악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같은 접근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의 실제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

(2)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의 인문사회 교육과정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영재아동센터(The Center for Talented Youth: CTY)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3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프로그램은 2~6학년과 7~12학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7~12학년 프로그램은 네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집중 학습’, ‘학문 탐구’, ‘시민 리더십’, ‘21세기 글로벌 이슈’로 구성된다[6].

<표 Ⅱ-9>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 인문사회 교육과정

	프로그램	대 상
1	집중 학습 (Intensive Studies)	7학년 이상
2	학문 탐구 (Academic Explorations)	7학년 이상
3	시민 리더십 (Civic Leadership)	10~12학년
4	21세기 글로벌 이슈 (Global Issues in the 21st Century)	10~12학년

CTY의 언어와 사회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작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다르게 구성되고, 3주 동안 운영된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역사나 시대별 특징과 차이에 대한 거시적 안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중등 이상은 좀 더 세부적이고 심화된 주제나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고전 철학과 역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 비판함으로써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표 Ⅱ-10>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영재아동센터 인문사회 교육과정 프로그램

	2~6학년 대상	7~12학년 대상	
		심화 과정	학문 탐색 과정

6)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Center for Talented Youth (http://cty.jhu.edu/summer) 참조

<table>
<tr><td rowspan="4">인문학</td><td rowspan="4">여행 탐방
고대 세계
큰 철학적 질문
논의
모의 UN과 지리
심화
중세
르네상스</td><td rowspan="2">고전</td><td>고대 그리스 원전 읽기
라틴어 원전 읽기
언어학</td><td rowspan="4">인종과 정치
유명 판례
: 미국의 법
역사
철학
논리 개론
생명 윤리학
어원 연구
심리학 기초</td></tr>
<tr><td rowspan="2">철학</td><td>논리학: 추론 원리
윤리학
실존주의
마음에 대한 사색</td></tr>
<tr><td rowspan="2">역사와
사회
과학</td><td rowspan="2">미국 법과 정치
국제 정치
인지 심리</td></tr>
<tr><td>작문</td><td>이야기와 시를
통한 글쓰기 탐색
쓰기와 읽기
워크숍
현대 판타지 쓰기
워크숍
상상적 글쓰기
영웅과 악당</td><td colspan="2">논픽션 창의적 쓰기
소설과 시 쓰기
대중매체 속 유명 인물 탐구
문학과 예술 비평
대중문화 비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td><td>에세이 작품 쓰기
문학탐방과 글쓰기
문학과 영화
그래픽 소설 쓰기</td></tr>
</tabl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4)

(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프로그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HSSR)는 예술과 사회과학 학부(FASS)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영재교육분과(GE Branch), 교육과정 계획개발부(CPDD), 교육부(MOE)에서 담당하고 있다. HSSR은 여섯 가지 분야, 즉 '중국어와 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경제학(Economics)', '지리학(Geography)', '역사학(History)', '영어 문학(Literature in English)', '말레이어와 문학(Malay Language and Literature)' 중 뛰어난 소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

다고 판단된 'A' 레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다. HSSR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연구 방법을 습득하며, 자신의 연구 분야의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하고, 독립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을 기르도록 한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연구를 하면서, 좋은 연구문제나 가설을 설정하고, 문헌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것이 끝나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지도교수(supervisor)는 참가학생들에게 전문가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학생은 3,500~4,500자 정도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중국어와 문학에 관한 경우는 4,500~6,500자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문제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발표 등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논문의 탁월함과 우수함 등으로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다[7].

지금까지 살펴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대체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인간의 삶과 사회현상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지

7)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Gifted Education Programme (http://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gifted-education-programme) 참조

않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나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머물러 왔다.

우선 국내 연구로는 KEDI의 연구 자료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는 KEDI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왔다. KEDI 영재교육연구센터는 1987년, 영재교육연구실로 출발하였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되었다.

'인문사회 영재'라고 명시된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8년 KEDI에서 이루어진 <인문사회 영재 판별도구 연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 영역이 아닌 언어 영역에서의 영재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보다 통합적인 의미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명남 외(2008a)의 연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KEDI는 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전명남 외(2008a)에 따르면, '인재양성'과 '인재활용'을 포괄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영재교육을 볼 때, 영재학생들의 인문사회 능력은 사회, 인문 분야뿐 아니라, 이공계 분야의 영재들에게도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 이 연구는 영재들이 독서, 글쓰기/논술, 인문사회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본 취지를 둔다. 이를 위해 '독서 프로그램', '글쓰기/논술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전명남 외(2008b)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고안한다. 이들이 개발한 '인문사회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는 중등탐색 단계 Ⅰ/Ⅱ, 중등발전 단계 Ⅰ/Ⅱ, 중등심화 단계 Ⅰ/Ⅱ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독서 영역, 글쓰기/논술 영역, 연구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중등탐색 단계 Ⅰ'의 독서 영역은 '철학과 얼굴' 등의 주제로, 글쓰기/논술 영역은 '소중한 나의 한 표' 등의 주제로, 연구 영역

은 ‘우리가 만드는 행복의 도시’ 등의 주제로 개발되었다. KEDI의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과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튜터링과 멘토링 등의 자기 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한국영재교육학회에서 2002년부터 발행해온 「영재와 영재교육」에서 송인섭 외(2009)는 인문사회 영재를 “영재들의 일반적 특징인 종합적 고등 사고능력, 즉 추론적 사고, 역사 인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시각, 논리적 유추 등의 인지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특히 인문사회 분야 즉 어휘력, 문예창작, 통역, 번역, 토론, 자기성찰 등과 관계있는 문학(文), 사회(史), 철학(哲)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를 개념화하는 작업은 일관된 결론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한다. 더불어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방향을 ‘인문사회적 통찰력 기르기’, ‘융합의 힘 키우기’, ‘창의력 키우기’, ‘리더십 키우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내용은 역사, 경제, 지리, 철학, 윤리, 사회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 모형은 문제 중심 학습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프로젝트학습 모형, 렌줄리(Renzulli)의 3단계 심화학습 모형 등이 권장되어야 함을 밝힌다는 점에서 KEDI가 제시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료 개발에 치우쳐왔던 학계 경향과는 달리,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있다. 모경환・박정서・안보형(2014)은 1990년 이후 서구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수혜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아직까지 영재교육이 학교 체제 안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영재교육이 학교 밖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영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반학교의 인문사회 영재 프로그램으로 렌줄리의 학교전체 심화학습 모형(school-wide enrichment model)을 적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 자료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 추세는 국외 연구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RIC(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과 ProQuest 등의 전자 검색을 통해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해외 논문을 검색해 보면, '인문'을 뜻하는 'humanities'와 '사회'를 의미하는 'society'가 함께 제시된 논문은 부재하다. 주로 'linguistic'이나 'verbal', 'language' 등의 용어로 검색이 되는데, 이는 가드너(Gardner, 1983)가 다중지능이론에서 제시한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의 특성이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등과는 뚜렷하게 대비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라는 특수 학업적성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국외 논문에는 'linguistic gifted', 'verbally gifted' 등의 '언어영재' 개념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꽤 있는데(Black, 1999; Frey, 2000; Dolette, 2002; Alber & Gammill, 2005; Smith, 2008), 국내에서 '인문사회 영재'로 처음 명시된 KEDI의 '인문사회 영재 판별도구 연구'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언어영재만을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초기에는 주로 언어영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국외의 연구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드너(Gardner, 1983)는 '언어지능'뿐 아니라 교사, 정치가, 지도자 등에 관련한 지능으로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도 제시하였다. 또한,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같은 예술가나 과학자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역에 깊이 몰입하는 레이저형 프로파일(laser profile)에 속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서로 다른 요소를 종합하여 큰 그림을 완성하는 정치가나 사업가는 서치라이트형 프로파일(search-light profil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Gardner, 1983, pp. 60-61). 이는 '언어'뿐 아니라 '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인문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영재성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social studies)에 관련된 인문사회 영재교육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자료 개발도 국외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룩스클레어

(Troxclair, 2000)는 미국사회과교육학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의 표준교육과정(1994)에 적합한 영재교육과정으로 자기 주도 학습과 멘토십(independent study and mentorships)을 제안한다. 멘토십은 자기 주도 학습과 프로젝트 과정에서 유사한 열정과 흥미, 학습 유형을 가진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특히 정규 학급에서 영재의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파워스(Powers, 2008)도 자기 주도 학습을 제안하는데, 사회과의 개념이 예술, 문학, 정치, 정권,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간의 폭넓은 경험을 반영하므로, 자기 주도 학습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실제적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과의 자기 주도 학습은 영재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전략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 있다.

더플리(Diffily, 2002)는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이 영재의 학습적 요구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는 프로젝트 학습이 수준별 교육의 체계를 제공하고, 교사가 영재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며, 학생들은 직접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교사는 영재들이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 중심 학습을 제시한 호켓(Hockett, 2007)은 미래문제 해결 프로그램(The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을 제안한다. 최근 사회과에서는 학습자를 수동적인 지식의 습득자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식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문제 중심 학습은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관을 잘 구현한 학습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과 영재교육의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아온 미래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문제 중심 학습을 두 가지 요소로 통합하는 학교기반 프로그램(school-based program)이다. 먼저, 팀 문제해결(team problem-solving)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과학적 이슈와 관련된 미래의 도전을 해결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community problem-solving) 과정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 지역공동체 또는 주에

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미래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영재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활동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서구에서도 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만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치우쳐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하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내부를 심층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 내부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내부를 심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사례연구(ethnographic case study)'로 이루어진다. 조용환(1999)에 의하면,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첫째, 연구하려고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나 사전지식이 거의 없을 때, 둘째, 복잡하고도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셋째,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의 역동에 관해 총체적으로 연구할 때. 넷째, 사건의 맥락과 흐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다섯째,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조용환, 1999, p. 123).

앞서 밝혔듯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실제로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며, 그들이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므로, 문화기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질적 접근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재고등학교'[8] 인

8) 논문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재고등학교'는 가명임을 밝힌다.

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 현장으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참여관찰을 하고, 구성원들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렇다면 문화기술적 연구와 사례연구는 어떠한 특징과 유형, 절차를 갖고 있으며, 본 연구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문화기술적 연구

조용환(1999)에 의하면,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 집단의 생활세계 속에서 참여관찰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사람들의 가치, 지식,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조용환, 1999, p. 114). 해리스(Harris)도 이와 유사하게 문화기술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culture-sharing group)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의 공유되고 학습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한 형태이다(Harris, 1968; Creswell, 2013, p. 117에서 재인용).

연구의 과정과 결과로서, 문화기술지는 해당 연구의 최종적 산물일 뿐 아니라, 문화공유집단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과정으로서, 문화기술지는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수반하게 되는데, 대개 연구자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몰입된 참여관찰을 통해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하게 되며, 집단 참여자들을 관찰하거나 면담을 하게 된다.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문화공유집단의 행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한다(Creswell, 2013, p. 117).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인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학생과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1년 동안 참여관찰하였고,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2년간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장기간의 관찰을 수행하였다.

문화기술지에서 연구자는 문화공유집단의 정신적 활동의 패턴, 즉 사회 조직(예: 사회적 네트워크)과 관념적 체계(예: 세계관, 아이디어)의 패턴을 찾고자 한다. 문화공유집단의 패턴을 찾는 것은 광범위한 현장연구

에 참여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현장연구에서는 주로 면담, 관찰, 상징, 인공물 그리고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Wolcott, 2008a; Creswell, 2013, p. 11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뿐 아니라, 연구 현장인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상징, 인공물, 현지 자료를 통한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월코트는 연구자가 다른 관찰자의 시각을 애써 취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조용환(1999)은 "다른 관찰자"의 범주에 사람뿐 아니라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과 같은 인공적 관찰기구도 포함시키는 것을 권하는데, 그 기구들은 사람의 눈이 놓치는 많은 상과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용환, 1999, p. 46). 크레스웰도 문화기술지에는 사진과 비디오, 전자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문화기술지 등 많은 유형이 있음을 언급하였다(Creswell, 2013, p. 1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관찰자"인 카메라가 현장을 관찰한 '사진'도 '인문사회 영재'와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기술 부분에 함께 제시한다.

문화기술지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집단에 대해 연구할 문화적 주제나 이슈를 선택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화공유집단이 작동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자료를 분석한다. 월코트에 의하면, 분석 과정은 기술 단계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재료들을 강조하거나 표, 차트, 다이어그램, 그림 등을 통해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분류체계를 만들고, 비교표를 생성하며, 의미론적 표를 개발하는 것이다(Wolcott, 1994; Creswell, 2013, p. 234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석의 최종 산물은 연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집단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적 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집단의 욕구를 옹호하거나 다루기 위해 사회에 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 (Creswell, 2013, pp. 123-124).

본 연구는 문화공유집단인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 대하여 연구할 주제로 '누가 인문사회 영재인가?'와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가르침'과 '배움'을 기술하고, 연구자인 본인의 관점과 연구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적 묘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사례연구

크레스웰은 사례연구를 연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일 수 있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하나의 유형이자, 방법론으로 바라본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예: 관찰, 면담, 시청각 자료, 문서,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한다. 사례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복합적 사례 혹은 단일한 사례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단일한 사례를 연구할 것인지, 복합적 사례를 연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Creswell, 2013, pp. 125-130). 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전체적인 분석이 약화되고 개별 사례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단일 사례로 선정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사례연구 접근이 연구 문제에 적합한지 결정하고, 한 개인이나 여러 사람, 프로그램, 사건, 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는데, 좋은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은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으로부터 관찰, 문서, 기록물, 물리적 인공물, 시청각 자료 등 여러 형태의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Creswell, 2013, p. 129). 따라서 본 연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

재교육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관찰하고,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하며, 현지 문서와 기록물, 시청각 자료와 같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사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며, 또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등장했던 단일한 이슈나 여러 이슈들을 언급하는 것이다(Creswell, 2013, p. 1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일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이슈와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 위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맥락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해석 단계에서는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의 상호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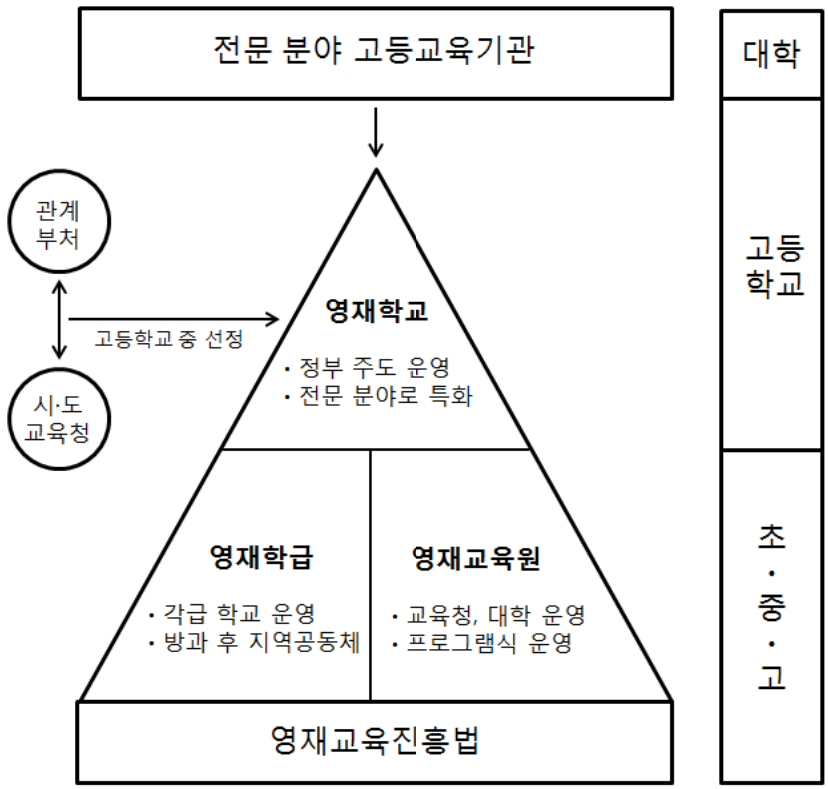
크레스웰에 의하면, 문화공유집단이 생활하는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은 문화기술지로 드러나게 되고, 경계를 가진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Creswell, p. 1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관찰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심층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연구현장

본 연구의 참여관찰 현장은 ‘인재고등학교’ 부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기관은 단위학교나 지역 공동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급’과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부설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로 구성된다.

‘영재학교’는 전문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장 뛰어난 잠재능력을 가진 영재를 대상으로 고등학교급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영재학교는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과학 분야로만 특화되

어 운영되어 왔다. ‘영재학급’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인근의 여러 학교가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영재학급 역시 과학과 수학 과목을 위주로 이루어져왔지만(김미숙, 2008), 2014년에는 인문사회 영재학급을 운영한 고등학교가 서울만 해도 28개교에 이를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 대학 등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참관 현장인 ‘영재교육원’이다. 영재교육원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은 특히, 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pull-out)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KEDI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관 유형별로 볼 때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된 비율이 높은 곳은 단위학교 영재학급(41.12%)보다는 영재교육원(58.88%)이다(KEDI, 2014). 인문사회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9년 '인재고등학교',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2012년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이들 영재교육원의 공통된 목적이다. 그러나 세 곳의 영재교육원은 설립·운영 시기와 선발 지역, 대상 학년과 운영 기간 등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2009년에 설립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1학년생 40명을 선발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간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6학년 20명과 중학교 1~2학년 20명을 선발하여, 1년간 인문사회 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 6학년생 40명을 선발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 현장으로 선정한다.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중학생만을 대상으로 1년간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중학교의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에 걸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첫 발을 내딛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해온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에 비해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

구의 현장으로 선정되었다.

<표 Ⅲ-1> 국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세 곳의 차이점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
설립 및 운영 시기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2학년도
대상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2~3학년생 (중학교 1학년 때 40명 선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생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40명 선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1~2학년생 (초등학교 6학년 때 40명 선발)
운영 기간	2년	1년	2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2009년 3월 2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본교 부설 영재교육원 인가를 받았고, 2010년 2월에는 영재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와 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다녀가기도 한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인재고등학교’ 소속 교사이고, 영재교육원 수업을 하고 타 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 몇 명이 수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대부분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였고, ‘영재교육 기본과정 직무연수(60시간)’를 받았으며, ‘영재교육 심화과정 직무연수(60시간)’를 받은 교사도 있다.

2013년 9월,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고, 해당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학교장 추천으로 1, 2차 전형이 진행되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을 관찰하는 3차 전형과 심층 면접인 4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라는 5차 전형으로, 최종 4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이 때 선발된 세 명의 학생과 이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한 두 명의 교사가 본 연구의 참여자이다.

3. 연구참여자

질적 접근에서는 ‘연구대상(research subject)’이라는 용어보다는 ‘제보자(informant)’, ‘참여자(participant)’, ‘현지인(the native)’, 또는 ‘그 사람들(the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구대상’이라는 용어는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연구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조용환, 1999, pp. 22-23),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능동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명명한다.

1) 학생

2014년 1월 27일,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권영재[9]의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를 통해 그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권영재와 함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된 김민지와 양준석도 연구에 참여하였다. 김민지는 권영재, 양준석과 달리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양준석은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권영재, 김민지와 달리 ‘법조인’을 꿈꾸며 ‘철학’ 분야에 심취해 있다는 점에서 연

9) 논문에 등장하는 학생명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연구 참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

이름	성별	소속 / 직위	주요 사항	기타
권영재	남	동작구 D중학교 3학년생 (2015학년도 기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	주요 면담 참여자
김민지	여	영등포구 D중학교 3학년생 (2015학년도 기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	면담 참여자
양준석	남	성북구 S중학교 3학년생 (2015학년도 기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	면담 참여자

2) 교사

2014년 3월 10일, '인재고등학교' 일반사회과 이교사에게 수업 참관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통과정'과 '전문과정', '영재캠프' 참관은 이교사의 정치, 경제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재캠프' 중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은 유교사의 수업 참관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 외에 '연구과정', '특강 및 행사'는 교과목 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진행되므로, 일반사회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들에 관련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3> 연구 참여 교사의 개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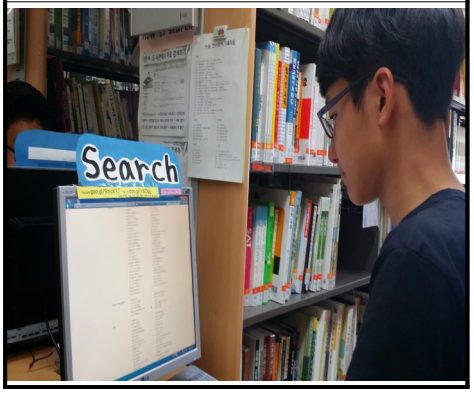
이름	성별	소속 / 직위	주요 사항	기타
이교사	남	'인재고등학교' 인문영재부 교사	교직 경력 17년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수업 경력 5년 (2015학년도 기준)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 영재캠프 수업 참관, 면담
유교사	남	'인재고등학교' 창의문화체험부 부장교사	교직 경력 20년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수업 경력 3년 (2015학년도 기준)	영재캠프 수업 참관

4. 연구절차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학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2학년 과정은 연간 총 50차시 100시간, 3학년 과정은 총 47차시 94시간으로 토요일에 진행된다. 2학년 '공통과정'은 교과별 강사교육(16차시), '전문과정'은 체험 활동 및 특강(6차시), '연구과정'은 팀별 논문제작과 발표(10차시), '영재캠프'는 현장 실습과 리더십 함양 과정(15차시)으로 이루어진다. 3학년은 '공통과정' 13차시, '전문과정' 6차시, '연구과정' 13차시, '영재캠프' 12차시로 진행된다.

공통과정
2학년-16차시 / 3학년-13차시

전문과정
2학년-6차시 / 3학년-6차시



연구과정 2학년-10차시 / 3학년-13차시	영재캠프 2학년-15차시 / 3학년-12차시

<사진 Ⅲ-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학생은 중학교 2학년 40명(2학급), 3학년 38명(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수업은 주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철학, 인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수업은 토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진행된다. 수업은 주로 '인재고등학교' 소속 교사가 담당한다.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개원식 특강은 대학 교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 개원식이 있었던 2014년 3월 하순부터 수료식이 있었던 11월 하순을 거쳐, 제 7기 신입생 개원식이 있었던 2015년 3월 하순까지, 총 13개월의 기간 동안 12차례(22차시 44시수)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또한, 권영재를 처음 알게 된 2014년 1월 하순부터 2016년 1월 하순까지 약 24개월의 기간 동안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된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 그리고 이들의 수업을 담당한 '인재고등학교' 소속 이교사와 10차례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관찰은 대부분 '인재고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시청각실, 강당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은 주로 커피숍의 스터디룸에서 이루어졌다. 수업 참관은 수업 주제와 영역에 따라 각각 1차시(2시수), 2차시(4시수),

3차시(6시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10차례에 걸친 면담은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기로 기록하고 텍스트로 옮겨, 분석 자료로 삼았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외에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안내문, 홈페이지와 권영재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이 분석 자료에 포함되었다. 13개월 동안 이루어진 참여관찰과 24개월간의 심층면담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Ⅲ-4>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참여관찰 일정

순번	일자	내용	장소	차시(시수)
1	2014. 3. 22.(토)	2014학년도 개원식/특강	시청각실	2차시(4시수)
2	2014. 3. 29.(토)	2학년 공통과정	교실	1차시(2시수)
3	2014. 4. 5.(토)	2학년 영재캠프	회의실, 강당	3차시(6시수)
4	2014. 5. 10.(토)	3학년 공통과정	교실	1차시(2시수)
5	2014. 6. 14.(토)	2학년 전문과정	교실, 도서관	1차시(2시수)
6	2014. 8. 9.(토)	3학년 영재캠프	도서관, 운동장, 교실	3차시(6시수)
7	2014. 8. 30.(토)	2학년 연구과정 1	도서관	2차시(4시수)
8	2014. 8. 30.(토)	3학년 연구발표대회	시청각실	2차시(4시수)
9	2014. 10. 18.(토)	2학년 연구과정 2	도서관	2차시(4시수)
10	2014. 10. 18.(토)	2학년 연구발표대회	시청각실	2차시(4시수)

11	2014. 11. 22.(토)	2014학년도 수료식	시청각실	1차시(2시수)
12	2015. 3. 28.(토)	2015학년도 개원식/특강	시청각실	2차시(4시수)
총 22차시(44시수)				

<표 Ⅲ-5> 연구참여자 면담 일정

순번	일자	면담
1	2014. 1. 27.(월)	권영재와의 첫 만남 :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
2	2014. 3. 30.(일)	권영재 인터뷰
3	2014. 8. 17.(일)	권영재 인터뷰
4	2014. 8. 30.(토)	권영재 인터뷰
5	2014. 10. 22.(수)	권영재 인터뷰
6	2015. 1. 31.(토)	권영재 인터뷰
7	2015. 9. 5.(토)	권영재 인터뷰 :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
8	2015. 9. 5.(토)	김민지 인터뷰 :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
9	2015. 9. 5.(토)	양준석 인터뷰 :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
10	2015. 11. 11.(수)	이교사 인터뷰
기타	2014. 1. 27.(월) ~ 2016. 1. 31.(일)	권영재의 블로그를 통한 인터뷰

연구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여에 걸친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의 방식으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얻게 된 연구 자료가 연구의 맥락에서 분리됨으로써 의미를 손상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코딩 작업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렴, 검토, 정리하는 방식의 코딩 작업을 채택하였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참여관찰과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 심층면담을 통해 모은 자료는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도 분석되었으며, 이 같은 작업은 그 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참여관찰이 마무리되는 2015년 4월경부터 보다 집중적인 전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분석 초기에는 대략 2년간의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분석의 틀을 잡고자 개방적 코딩(open coding)[10]을 하였다. 그 후에는 개방적 코딩에서 정리된 생각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주제에 맞추어서 소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11]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된 연구참여자인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 이교사, 유교사에게 연구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인 허락을 받았다. 관찰과 면담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참여자 이름과 소속 학교명은 가명을 사용하였고, 사진 속 인물은 모자이크로 처리하였으며, 모든 관찰과 면담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사례로 한 것이지만, 사례의 특수성보다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외에도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화여자대학교-서

10) 개방적 코딩은 분석 초기에 행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하고 검토해보는 방식을 말한다(조용환, 1999, p. 53).

11) 선택적 코딩은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p. 54).

대문 영재교육센터,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부터 넓게는 영재교육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과학영재교육과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자료까지 최대한 수집하여 분석과 해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Ⅳ. 누가 인문사회 영재인가?

과연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보통 학생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점을 늘 궁금해 하던 연구자에게 답의 윤곽을 보여주는 학생이 있었다. 2014년 1월 27일, 포털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 우연히 권영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권영재는 블로그 <컴라면의 인문사회>에서 “My Thoughts”, “초짜 경제학”, “초짜 철학”, “초짜 한국사” 등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란 무엇인가”, “탈레스의 이오니아 학파”, “청동기 시대” 등의 포스팅 내용을 처음 보았을 때, 지적 능력이 탁월한 고등학교 1~2학년생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생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최종합격자라는 점이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제 6회 개원식이 있던 2014년 3월 22일, 신입생 대표로 입학선서를 하는 권영재 학생을 보며 다시 한 번 놀랐다. 권영재는 흔히 말하는 ‘지적 능력’으로 우수한 성취를 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떠할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을 짚어내려 한다.

1. 인문사회 영재의 이야기

권영재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학 영재”였다. 그러나 5학년 때부터 “사회”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문사회” 분야에 몰두하던 중학교 1학년 겨울,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권영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권영재는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을까?

1) 권영재의 성장과정: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수학영재에서 인문사회 영재로

권영재가 처음부터 '사회'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수학영재"라는 말에 더 친숙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도표" 만드는 걸 즐겼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균관대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고, 4학년이 되어서 "수학 영재원"에 다닐 때만해도 부모는 권영재가 "이과 영재"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권영재가 사회 과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들과 미국에 가면서부터이다. 혼자서 한국의 5학년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모든 과목 중 가장 좋아한 것이 "사회"였다. 다만 "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 연구자: 경제나 사회, 철학 등을 유독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 건 언제쯤이에요?
>
> 권영재: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수학을 좀 더 잘 했달까? (웃음)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제가 그런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학년 때 미국에 갔을 때 수학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냥 5학년 공부를 했었어요. 그 때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사회에 확실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과목 중에서 사회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역사를 안 좋아했었어요. (웃음) 5학년 과목이 역사잖아요. 그 때 제가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 때 한국 교육과정은 5학년용 문제지를 사갔는데, 역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서 그때는 싫어했는데, 6학년 때 그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
> - 2014. 3. 30. 인터뷰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6학년 때 "2012학년도 서울시 초등학생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면서 시작된다. 학교 내 토론대회를

거쳐 서울시 예선에 참가하였고,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올라가게 된다. 결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 「고려사」, 「백범일지」” 내용을 단시일에 파악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와 애정이 생긴다.

연구자: 싫어하던 역사에 애정이 생긴 게 작년이라고요?

권영재: 네. 6학년 때 독서토론대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대회하고 나가서, 서울시 예선을 두 번 하고, 서울시 결선까지 간 거예요. 학교 대표가 돼서 나갔는데, 첫 예선에서 주제가 역사더라고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삼국사기」하고 「고려사」하고 「백범일지」를 읽고 오라는데, 제가 엄청 당황한 거죠. 근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 2014. 3. 30. 인터뷰에서

최종 7명의 학생이 참가한 독서토론대회 결선의 주제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본받아야 할 인물”이었다. 권영재는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에 비해 존재감이 덜했던 “소수림왕”을 제시하며, 결선에서 “1등”을 차지한다.

연구자: 토론대회 주제가 뭐였어요?

권영재: 아까 시민교육 얘기하셨을 때 생각났는데, 그 때 결승 주제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수림왕으로 했어요. 삼국이 다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 그리고 교육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세 개를 다 한 왕이 소수림왕밖에 없더라고요. 세 나라 중에. 그 뒤에 아무래도 광개토대왕이 있고 장수왕도 있고 이래서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이유 때문에 소수림왕으로 했어요. 결선에서 1등을 했어요.

– 2014. 3. 30. 인터뷰에서

(2) 언어에 대한 관심

독서와 토론을 좋아하는 권영재는 언어 능력도 뛰어나다. 「겨울왕국」의 한스가 악인이라는 것을 영어 원문과 가사 속 단서를 분석하여 일찌감치 알아챈다. 5학년 때 「해리 포터」 원문을 몇 번씩 읽다보니, “오역”된 부분이 자주 눈에 띄었다. 요즘엔 “국어학”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권영재는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미국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한인교회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었는데, 지금 가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해 주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다.

> 연구자: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 권영재: 저는 되게 강하죠. 미국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미국 사람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가서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저도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5학년 때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 부모님은 미국인인데 한국인 입양아가 있었는데, 아이한테 한국문화를 알려주려고 한인교회에 데리고 온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 되게 어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가르쳤었는데, 지금 가면 훨씬 잘했을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국어도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
> – 2015. 1. 31.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 입양된 친구들과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

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무꾼」을 번역하여 이메일로 전달하려고 한다. 번역을 통한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봉사시간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입양된 친구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다.

> 그 재단이 있어요. 한국인 입양아를 돕는 재단 같은 게 있는데, 한국문화에 뜻 있는 애들한테 뿌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거죠. 거기에 전래동화 책을 번역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네 명이서 한 권씩 맡았는데, 저는 「선녀와 나무꾼」 번역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봉사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전달하는 거니까.
>
> - 2015. 1. 31.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3) 리더로서의 역할과 장래 희망

권영재가 독서와 토론, 번역과 같은 공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낯을 가리는” 면도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해왔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교회장,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리더 역할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데 그쳤다면, 중학생이 되어서는 “실질적인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교부회장이 되었다. 권영재가 다니는 D중학교에서는 3학년이 전교회장과 부회장을, 2학년은 전교부회장을 맡아서 하는데, 권영재는 선거에서 “월요일”이 되면 실내화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을 위해 “교무실 앞 수납장”에 실내화를 비치해 놓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2학년 때 전교부회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이를 실천하여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다.

처음 보면 말을 잘 못하고, 외향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4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반을 이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때 이후로 제가 사회성 같은 것도 많이 기른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회장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공약을 내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중학교 들어오니까 되게 실질적인 공약을 실현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때 실내화 안 가져온 애들 많아서 비상 실내화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교무실 앞에 선생님들이 수납장 하나를 주셨어요. 수납장에 실내화를 몇 개 사놓고 매일 아침에 돌아가면서 실내화를 빌려줬는데 월요일에 빌리러 되게 많이 와요. 특히 270사이즈 인기가 제일 많아요. 260과 270이 항상 모자라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웃음)

- 2014. 8. 17.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권영재는 학교 축제 때 사회를 보고, 공연도 한다. 1학년 때는 학교축제 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선보인 "크레용 팝의 '빠빠빠' 공연"을 했고, 2학년 때는 "AOA의 '짧은 치마' 공연"을 했다. 율동을 좋아하는 것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학교축제에서 사회를 보고 전교생 앞에서 공연도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성과 진취성도 엿볼 수 있다. 그가 요즘 생각하는 장래 희망은 "경제학 분야의 교수"이다. 기존 "미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주류 경제학"을 더욱 연구해서 "주류 경제학"으로 끌어 올리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가 있다.

연구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권영재: 제 장래희망은 경제학 분야의 교수예요. 새로운 연구를 끊임없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수가 되고 싶어요. 경제학의 경우에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경제학은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한 기존 미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동경제 같은 비주류 경제학을 더욱 연구해서 주류 경제학으로 끌어 올

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경제학 분야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권영재는 중학교 1학년 때 포털 서비스 블로그인 <컴라면의 인문사회>를 개설하였고, "초짜 경제학", "초짜 철학", "초짜 한국사", "My Thoughts" 등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권영재가 지금껏 살펴본 대로 성장해 왔다면, 현재는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을까?

2) 권영재의 인문사회: <컴라면의 인문사회>

<사진 Ⅳ-1> 권영재의 블로그 "컴라면의 인문사회"

권영재의 블로그 <컴라면의 인문사회> 첫 페이지에는 세계 지도 속 대한민국이 "Center of the World"라고 적혀 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

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던 소망이 배어있는 듯 하다. <컵라면의 인문사회>에는 "My Thoughts", "초짜 경제학", "초짜 철학", "초짜 한국사"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컵라면의 인문사회>를 만들게 된 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있다는 걸 접하면서부터다.

> 연구자: <컵라면의 인문사회> 만든 게 작년 가을쯤이잖아요. 애초에 만들게 된 배경이 뭐예요?
> 권영재: 제가 블로그 만들게 된 건 인문사회 영재원을 접한 다음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래서 인문사회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노트나 이런데 하긴 했는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타이핑을 하거나 그래야 공부가 되더라고요. 시험기간에도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해서 타이핑을 해서 공부하면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어요.
>
> - 2014. 8. 17. 인터뷰에서

(1)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권영재가 <컵라면의 인문사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안녕하세요?> 카테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 철학, 한국사 등을 다루면서 "나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동기'도 찾게 된다. 본인의 탐구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다.

> 안녕하세요? 컵라면이에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 하고 3달 정도 된 거 같아요. 첫 자기소개 글을 올린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들어와 댓글을 남기고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도 많아요. 사실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저의 공부를 위한 것이었어요. 항상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

심히 하겠습니다.

- 2015. 1. 25. <안녕하세요?> 카테고리에서

"컵라면"이 요즘 흔히 말하는 '파워 블로거'도 아닌데, <컵라면의 인문사회>에는 "많은 이웃"들이 스스로 찾아와 의견을 내놓거나 조언을 구한다. 그렇다면,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들까지도 "중학생"인 컵라면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영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2) 카테고리 <My Thoughts>

권영재는 카테고리 <My Thoughts>에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생각"을 담아낸다. 학교나 영재교육원에서 수행평가나 과제로 내준 것도 아니다. 권영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서 스스로 궁금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짚어내며, 문제점을 간파하고, 대안을 탐구해 나간다.

가. 생각: "말을 글로 배웠어요."

권영재는 "국문법"을 배우는 것이 "되게" 재미있다. 문학보다는 "국어학"을 더 좋아한다. 국어학은 "임의로 만들어진 언어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과정"이 재미있다. 국어학이나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평소에 관심 있던 "국문법의 허점에 대한 보완점", 언어 간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또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의 차이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 싶다.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표준 발음법"을 배우다보니, 또래 청소년들이 간과하는 "발음법 조항"이 눈에 띈다. 이 조항은 청소년들에게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요즘 학교 국어시간에 '표준 발음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배우면서 "아~ 이런 규칙이?"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지만, 유독 청소년

들만 지키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

> 제 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 * 참고로 (붙임) 조항의 경우 표준발음법 제 18항에 의해 ‘ㄱ, ㅂ’도 ‘ㅇ, ㅁ’이 된다.
> 제 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조항만 보면 무슨 말인지 영... 예를 한 번 볼까? 제 19항의 경우에는 ‘점령’을 ‘점녕’으로, ‘대통령’을 ‘대통녕’으로, ‘작렬’을 ‘장녈’으로 발음하는 것이 있다. 제 29항의 경우에는 ‘솜이불’을 ‘솜니불’로, ‘식용유’를 ‘시굥뉴’로 읽는다. 표준발음법 제 19항과 29항은 모두 매우 일리가 있는 조항들이다. 19항은 ‘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ㄹ’로 발음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또 29항의 경우 이미 ‘담요’는 ‘담뇨’로 발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 2014. 12. 24.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청소년들이 이 “두 조항”의 발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모 세대의 어린이들”과 “현대의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는 방식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의 어린이들은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글”을 배웠다. 그 전에는 “글”이 아닌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어린이들은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익히지만, 표준 발음을 배우지는 않는다. 어린이들의 대화에서 나오기 힘든 단어들은 발음법이 적용되는 “말”이 아닌 발음법과 거리가 먼 “글”로 접하게 된다. 권영재는 현대의 어린이들이 대통령을 ‘대통녕’이 아닌 “대통령”으로, 식용유를 ‘시굥뉴’가 아닌 “시굥유”로, 솜이불을 ‘솜니불’이 아닌 “소미불”로 읽게 된 것이 이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 어째서 이 두 조항의 표준발음을 잘 지키고 있는 어른들과는 달리 현재의 학생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걸까? 나의 조심스러운 추

> 측은, 최근 '말을 글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가 학교를 다니던 6, 70년대만 하더라도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글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8살이 되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글을 전혀 배우지 않고,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대통령', '솜이불' 등의 단어도 자연히 '대통녕', '솜니불'로 익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어린이들은 어떤가?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익힌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는 표준 발음 같은 걸 안 배운다. 게다가 너무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게 되자 말보다 글로 먼저 접하는 단어들이 생기게 된다. '대통령', '식용유' 같은 단어는 다섯, 여섯 살짜리 아이의 대화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단어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듣기도 전에 책이나 주위 간판이나 TV 자막에서 이 단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대로 읽어버린다. '대통령', '시굥유', '소미불' 등으로 말이다.
>
> – 2014. 12. 24.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익히는 현대의 어린이들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TV 자막"을 통해 "보게" 된다. 현재는 "틀리게 발음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발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말"이 아닌 "글"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은 모두 "글"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권영재는 이처럼 "말을 글로 배우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켜지지 않는 발음 조항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 앞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이 더 빨라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어떤 단어를 읽을 때 조상 대대로 지켜지던 표준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를 읽는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무작정 글부터 가르치는 문화가 더 확산

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발음 조항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세대는 어쩌면 '담요'도 '다묘'로, '물약'도 '무략'으로 읽게 될지 모른다. 몇 십 년 안에 표준 발음법이 크게 바뀌어 버릴 것 같다.

- 2014. 12. 24.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나. 생각: "걸핑맴이 새로운 대세"

권영재는 어릴 때부터 "율동"을 좋아했다. 중학교 1학년 축제 때는 친구들과 "크레용팝의 '빠빠빠'" 공연을 하였고, 전교 부회장으로 사회를 보던 2학년 축제에서는 "AOA의 '짧은 치마'" 안무를 선보였다. 그 날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있기 하루 전날이기도 했다.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최종논문 내는 게 금요일 정오까지였어요. 제가 금요일 날 사실 축제였어요. 이번에 축제 때 참가도 하고 사회도 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바로 자버렸어요. (웃음) 어릴 때부터 율동을 좋아했거든요. 이번엔 친구 7명이 방과 후에 모여서 연습했어요. (웃음)

- 2014. 10. 18.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취미가 댄스인 학생은 흔하다. 아이돌 그룹의 팬인 학생도 많다. 그러나 권영재는 축제 때 걸 그룹 공연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걸 그룹을 향한 남성팬들의 '팬심'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짚어내며 현재의 사회현상을 직시한다.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성의 이미지가 순종적인 여성상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 걸 그룹이 설정한 콘셉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알파 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요즘 잘 나가는 걸 그룹인 "걸핑맴(걸스데이, 에이핑크, AOA)"은 "알파 걸"이 아닌 "고전적인 여성상"의 이미지로 "새로운 대세"로 등장한다.

> 걸스데이, 에이핑크, AOA는 '알파 걸'이라는 기존 걸 그룹계의 정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에이핑크는 누가 봐도 알파 걸의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센 언니 컨셉'이 한창 유행을 할 때에도 에이핑크는 시종일관 핑클이나 S.E.S가 과거에 추구했던 '순수'의 컨셉을 유지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걸스데이와 AOA도 마찬가지다. 걸스데이의 노래 'Something'의 경우, 이별 후 여성이 능동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AOA의 히트곡 '단발머리'도 그렇다.
>
> - 2014. 12. 25.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그렇다면, 기존의 "알파 걸" 이미지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확산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에는 "당당한 여성"이 최고의 걸 그룹 콘셉트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이후 "성별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된장녀"나 "김치녀" 등으로 불리는 일부 여성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 최근 SNS나 인터넷 상에서 남녀 갈등은 매우 극심해졌다.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이를 둘러싼 성별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SNS 상에서 '된장녀', '김치녀' 등으로도 불리는 극히 일부의 여성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남성들은 다시 과거처럼 '순종적인 여성상'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걸 그룹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요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브로'의 '그런 남자'가 있다. 노래 속에 일명 '된장녀'들에 대한 비판을 담아 큰 인기를 얻었다.
>
> - 2014. 12. 25.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최근 SNS나 인터넷 상에서 남녀 갈등이 극심해졌고, 남성들은 다시 "순종적인 여성상"을 찾기 시작하였다. 걸 그룹의 이미지가 과거 "알파

걸”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변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자라는 학생들”의 “잘못된 성 관념”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된다. 걸 그룹의 이미지가 과도하게 “남성 중심적”으로 변모하는 것을 경계한다.

> 이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현상일 수도 있다. 특히 걸스데이와 AOA 같이 ‘순종적인 여성상’과 ‘성’을 합하여 표현한다면,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여자들만 잘났다’는 식의 지나친 페미니즘 문화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고전적인 여성미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걸 그룹들의 컨셉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
> – 2014. 12. 25. <My Thoughts> 카테고리에서

(3) 카테고리 <인문사회 공부 TIP!>: “정답은 바로 랴오허강입니다.”

새 카테고리인 <인문사회 공부 TIP!>이 생긴 것은 권영재가 “인문사회”를 공부하면서 “헷갈려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에 관한 “그래프의 이해”, 철학 영역인 “유명론”과 “실재론”, 한국사의 “요동 요서” 등은 권영재가 공부하면서 궁금해 하던 인문사회 학습 개념이다. 그 중 한국사에 관련한 “요동, 요서” 포스팅을 열어 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요동, 요서” 지역이 실제 어디인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철기 시대에는 요동 지방과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에는 요서, 산둥, 규슈 지방까지 진출했다.” “고구려는 부여 계통의 이주민과 압록강 근처 토착민이 요동 지방에 건국한 국가이다.” 초등학교 5학년, 처음 한국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 ‘요동’, ‘요서’라는 지명을 보고 저는 머리가 땡...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명인데, 도대체 어딘지는 설명도 안 나오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컵라면 씨, 요동과 요소 지방은 도대체 어디죠? 뭐죠, 이

지도는? 클로즈업!

- 2014. 5. 4. <인문사회 공부 TIP!> 카테고리에서

<사진 Ⅳ-2> 권영재가 확인한 '요동' 지방과 '요서' 지방

요동 지방과 요서 지방은 "랴오허 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낸다. 교과서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실제 "요동"과 "요서"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내면서, 궁금증을 풀어간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권영재는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아낸다.

요동 지방과 요서 지방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요동 요소로 나뉜 거지? 정답은 바로바로 '랴오허 강'입니다. 랴오허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요동 지방, 서쪽에 있으면 요서 지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한반도 북서쪽 지역이나 만주 지방은 요동 지방이고요. 황허 강 북쪽 부분의 평야는 요서 지방이 되겠죠. 이제 헷갈리지 않죠?

- 2014. 5. 4. <인문사회 공부 TIP!> 카테고리에서

(4) 카테고리 <초짜 경제학>

: "공무원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기는 처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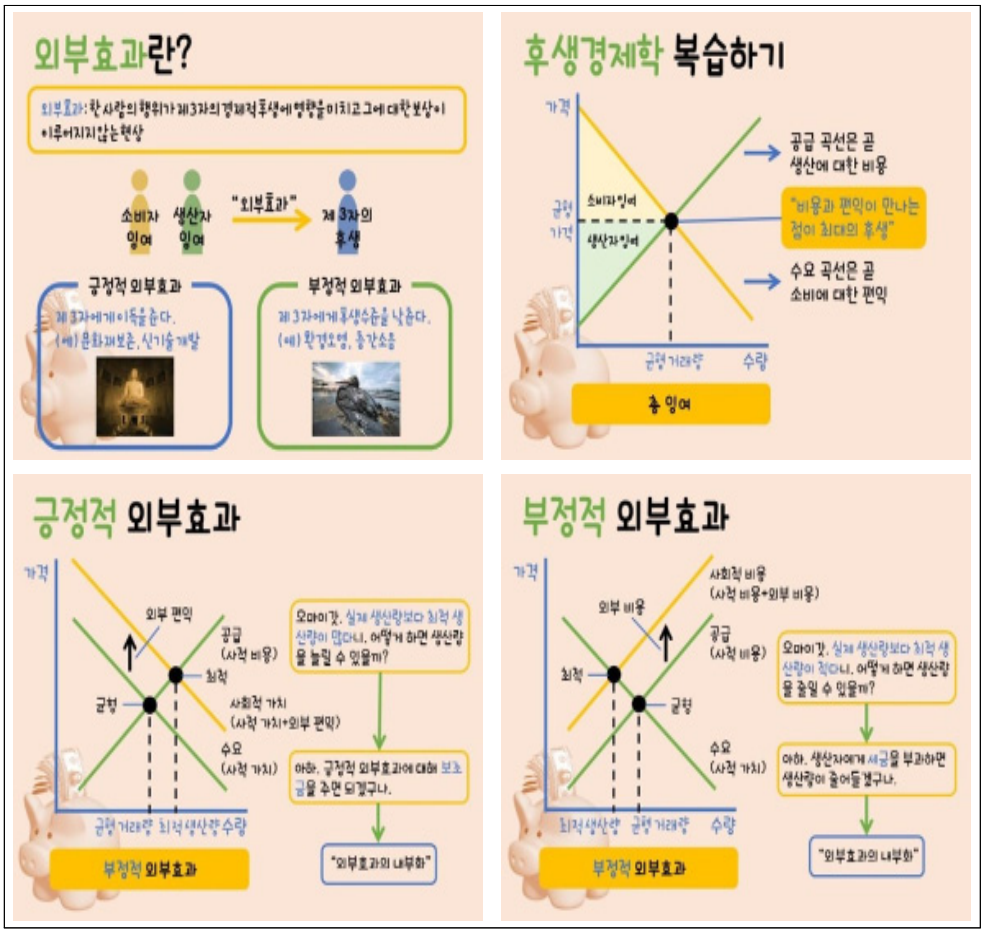
<컴라면의 인문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초짜 경제학>이다. <초짜 철학>은 “01. 철학이 뭔데”부터 “36. 데카르트”까지, <초짜 한국사>는 “01. 역사의 의미”에서 “06. 고조선”까지 진행되어 왔다. <초짜 경제학>은 “01. 경제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48. 독점적 경쟁의 특성”까지 나아간 상태인데, 그동안의 포스팅 주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1> 권영재의 “초짜 경제학” 01～48 주제

연번	주제(게시 날짜)		연번	주제(게시 날짜)	
01	경제란 무엇인가? (2013. 11. 24.)	경제학의 기초	25	외부효과 (2015. 4. 2.)	공공경제학
02	경제학은 왜 배우지? (2014. 7. 28.)		26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 정책 (2015. 4. 4.)	
03	선택 (2014. 7. 29.)		27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책 (2015. 4. 5.)	
04	시장 경제 (2014. 10. 29.)		28	재화의 유형 (2015. 4. 29.)	
05	국가 경제 (2014. 11. 4.)		29	공공재 (2015. 4. 30.)	
06	경제학의 방법론 (2014. 12. 22.)		30	공유자원 (2015. 5. 3.)	
07	기본적인 경제 모형 (2014. 12. 31.)		31	한국 재정의 개괄 (2015. 5. 6.)	
08	경제 정책 (2015. 1. 23.)		32	조세의 효율성 (2015. 5. 7.)	
09	교역의 이득 (2015. 2. 2.)		33	조세의 공평성 (2015. 5. 11.)	
10	시장의 수요와 공급 (2015. 2. 5.)		34	비용 (2015. 5. 12.)	
11	수요와 공급의 결합 (2015. 2. 5.)		35	생산과 비용 (2015. 5. 17.)	

12	수요와 공급의 사례 (2015. 2. 8.)	시장의 작동원리	36	여러 가지 비용 개념 (2015. 6. 5.)	산업조직론
13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2015. 3. 7.)		37	일반적인 비용 곡선 (2015. 6. 6.)	
14	탄력성의 응용 (2015. 3. 8.)		38	경쟁기업의 공급 곡선 (2015. 6. 8.)	
15	탄력성의 사례 (2015. 3. 12.)		39	기업의 조업 중단과 퇴출 (2015. 6. 9.)	
16	가격 통제 (2015. 3. 14.)		40	경쟁시장의 공급 곡선 (2015. 6. 11.)	
17	조세 (2015. 3. 15.)		41	경쟁시장의 수요 변화 (2015. 6. 13.)	
18	소비자 잉여 (2015. 3. 17.)	후생경제학	42	독점 (2015. 7. 16.)	
19	생산자 잉여 (2015. 3. 19.)		43	독점기업의 생산 (2015. 9. 25.)	
20	시장의 효율성 (2015. 3. 24.)		44	독점기업의 이윤 (2015. 9. 30.)	
21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2015. 3. 26.)		45	가격차별 (2015. 10. 6.)	
22	경제적 순손실의 응용 (2015. 3. 28.)		46	독점에 대한 정책 (2015. 10. 9.)	
23	국제 무역의 원리 (2015. 3. 29.)		47	독점적 경쟁 (2015. 10. 22.)	
24	무역 제한 정책 (2015. 3. 31.)		48	독점적 경쟁의 특성 (2015. 11. 12.)	

권영재는 <초짜 경제학> 포스팅을 2013년 11월에 시작하였고, 2015년 11월까지 4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탐구해왔다.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학습 개념을 PPT로 작성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글을 함께 올린다. “경제 25. 외부효과”가 한 예다.



<사진 Ⅳ-3> 권영재의 "경제 25. 외부효과" PPT 자료

권영재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제시한다. 교육은 교육의 생산자인 "학교"와 소비자인 "학생" 외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후생"을 최대한 보려면,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장학금"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후생경제학을 끝내고 드디어 공공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내

용에 입성! 정말 기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후생 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만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제 3자도 경제활동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소비자도 아니고 자동차 생산자도 아닌 제 3자가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해요. (중략)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생각해볼까요? 교육은 교육의 생산자(학교)와 교육의 소비자(학생) 외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최대의 사회적 후생을 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급도 외부효과를 피부에 와 닿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일종입니다.

– 2015. 4. 2. “경제 25. 외부효과”에서

권영재는 앞서 “경제 18. 소비자 잉여”와 “경제 19. 생산자 잉여”, “경제 20. 시장의 효율성”에서 다루었던 개념을 다시 되새기며,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일종”을 PPT로 발표하듯 설명한다. 권영재가 “나의 공부”를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한지 “1년하고도 3달”이 되었다. 나만이 홀로 공부하던 <컵라면의 인문사회>는 이제 “많은 이웃”들의 스터디 룸이 되어간다.

Hyejin: 공무원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기는 처음입니다. 감사해요.

정soon: 고맙습니다. 생산자잉여가 경제지대와 같은 건가요? 중개사시험 공부 중입니다. 지대에 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미영: 진짜~ 도움 많이 돼요! 항상 잘 읽고 있어요!

컵라면: 감사합니다!

– 2015. 3. 19. “경제 19. 생산자잉여” 덧글에서

효봉: 완전경쟁 시장에서 MR이 수평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컵라면: MR은 한계수입, 즉 재화 1개를 더 생산했을 때 얻는 수입이에요.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500원이라면 판매량에 따른 수입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늘겠죠? 즉 재화 1개를 생산할 때마다 무조건 500원씩 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수입이 일정해서 MR 곡선도 수평인 것이에요.

- 2015. 6. 8. "경제 38. 경쟁기업의 공급곡선" 덧글에서

형순: MC는 U자 곡선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인 경우에도 이윤이 0일 수 있나요?

컵라면: 현실 속 대부분의 기업에서 MC 곡선이 U자 비스무리하게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시장에 대한 원활한 분석을 위해 "한계생산물 체감 현상은 첫 번째 재화부터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다 보니 그냥 우상향의 직선 그래프로 통 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에도 이윤이 0이 될 수 있냐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시기에 상관없이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일치하면 이윤은 0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경제 35부터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2015. 6. 11. "경제 40. 경쟁시장의 공급 곡선" 덧글에서

昭憲: 안녕하세요. 경제학 고수님... 독점하니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 독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어떤 노동조합만이 노도공급을 독점하고 있을 때... 고용량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독점기업의 생산이론과 비슷한 건가요?

컵라면: 노동공급이 독점될 수는 없겠죠! 같은 조합이라 해도 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노동 수요는 독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또 전혀 다른 문제로 복잡해서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건 "독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을 경우에 카르텔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떨어져요. 이 때문에 다른 노동시장의 임금이 싸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 2015. 10. 11. “경제43. 독점기업의 생산” 덧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중개사 시험”을 앞둔 사람도, “컵라면”과 함께 공부하는 “이웃”이다. 대학 시험 기간에는 “대학생”들에게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컵라면이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H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은 모두 놀란다.

혜서니: 아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였나요? 와... 멋집니다.
행복해지기: ... 미시 공부하면서 참고했는데... 중학생이셨나요...
休庭: 반전이네요... 전 컵라면님 경제학 공부하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하하, 매번 글 읽고 공부 잘 하고 있어요.
송지: 헉... 저도 국제정치경제나 행정학 공부하면서 포스팅 참고했었는데 중학생이셨다니... 반성하게 되네요.
컵라면: 아니에요. 자주 찾아오세요~

- 2015. 12. 5. “경제54. 노동 공급” 덧글에서

<컵라면의 인문사회>에서 이런 이웃들과의 만남은 권영재를 “뿌듯”하게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더욱 바빠지겠지만 블로그 활동은 계속할 생각이다. <컵라면의 인문사회>는 “컵라면”에게 “인문사회”를 향한 커다란 동기와 열정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블로그에 자주 들르는 이웃들이 많던데요?
권영재: 네.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루에 백 명은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무슨 육아 블로그나 이런 건 이웃들이 다 비슷하니까 소통하면서 “아이 잘 컸네요” 하잖아요. (웃

음)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쪽지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많네요?” 이런 글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방문 횟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니까 뿌듯함도 있고.

- 2015. 1. 31. 인터뷰에서

2.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한다. 축제 때는 잘 나가는 걸 그룹 공연을 한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낯을 좀 가린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해왔다. 요즘엔 키 크는 방법에 제일 관심이 많다. 피아노와 클라리넷 연주를 즐긴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즐겁다. 백제, 고구려 시대 “요동, 요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교과서에는 없다. “랴오허 강”이 경계라는 걸 알아낸다. “유명론”과 “실재론”도 흥미롭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스페이스”의 마케팅 전략이 궁금하다. 아이돌 그룹 “걸핑맴(걸스데이, 에이핑크, AOA)”이 “새로운 대세”로 등장한 이유가 석연찮다. 히트곡 “짧은 치마”와 “단발머리” 가사를 분석한다. 「겨울왕국」의 “한스”가 악인이라는 것을 영어 원문과 가사 속 단서를 통해 일찌감치 알아챈다. 18세기 백자 “달 항아리”를 좋아한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예술 작품에 들어가니 “참된 아름다움”이 보인다. 책 읽고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다. 어렸을 때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더 좋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경제학 분야의 교수”가 되고 싶다.

- 2015. 1. 31. 나의 현장노트에서

지금껏 살펴본 권영재의 일상이다. 축구와 걸 그룹을 좋아하고, 키 크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은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춤추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피아노와 클라리넷 연주를 즐기며, 낯가림이 조금 있지만 계속 반장과 회장을 해왔다는 점은 권영재만의 독특한 성격일 것이다.

매사에 궁금한 게 많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 관심을 두는 것, 독서와 토론을 즐기는 것은 과학영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글 쓰는 것과 시를 좋아하고, 문화와 사회, 경제와 정치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과학영재와 다르다. 물론 과학영재로 선발된 학생들도 이른바 '문사철(文史哲)'에 흥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영재들은 그것보다는 '과학, 수학'에 더 관심을 둔다. 초등학생 때 수학 영재교육원을 다녔을 만큼 수학을 잘하는 권영재가 수학보다는 사회, 국어를 훨씬 더 좋아하는 '인문사회 영재'인 것처럼 말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권영재는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과학영재와 비슷한 점도 있고, 색다른 점도 있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끼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영재의 정의'에 포함된 남다른 특색을 모두 갖추고 있을까?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은 분명 영재가 아닌 것일까? 우선 영재교육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 속 위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재교육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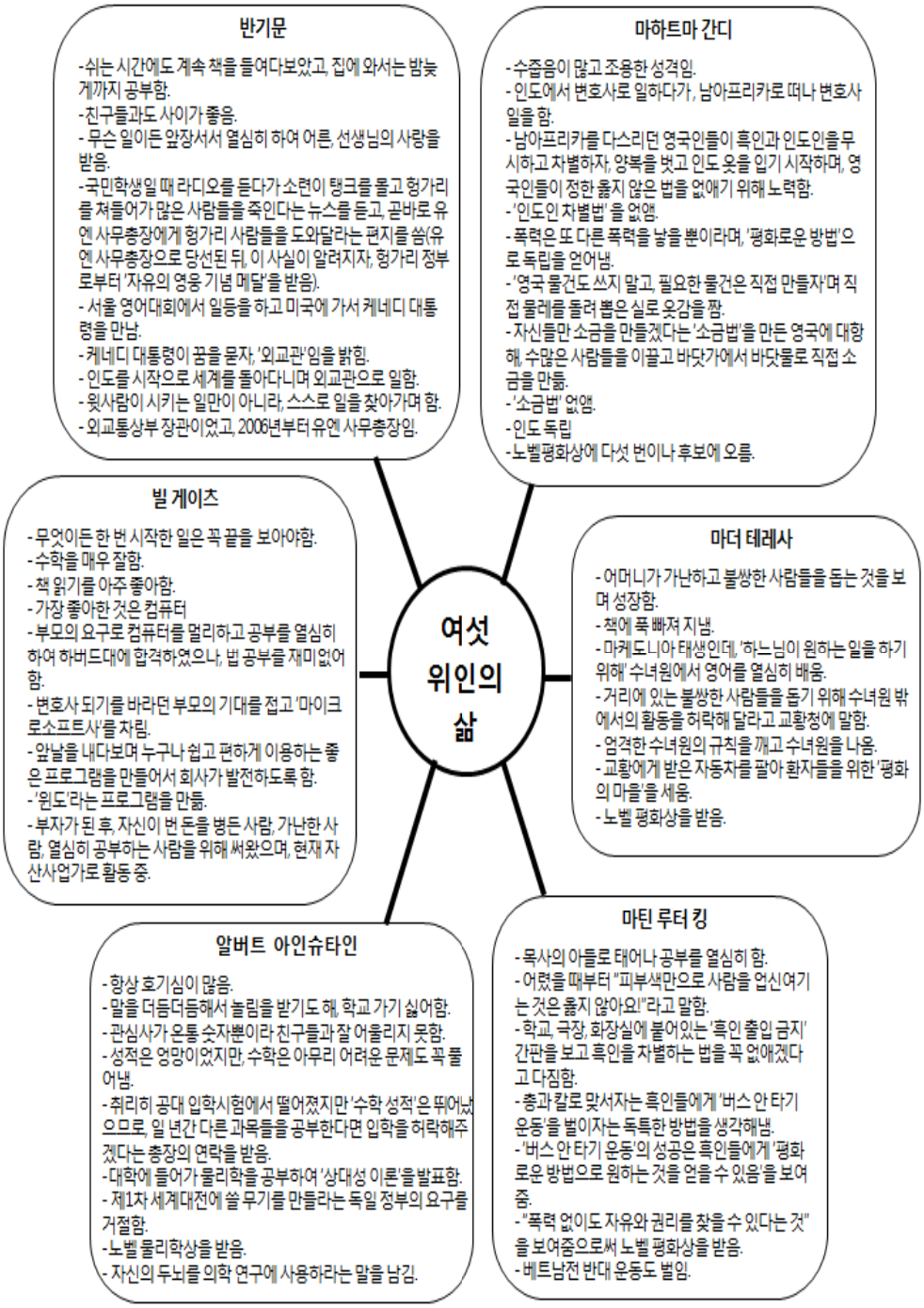
"누가 영재인가?"라는 물음에 손에 잡히는 답은 없다. 영재의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재성에 관해서도 여러 학자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보는 영재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영재라는 용어의 정의와 요소, 특성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갖추었다면 분명 영재인지, 그 중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고 영재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확실치 않다. 말랜드(Marland, 1972)가 제시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나 특수 학업적성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으로 영재성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인문사회 영재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인문사회 영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의 지향점은

위인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재성 구성요소의 근거는 역사 속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사회는 영재성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위대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인재이기를 고대한다. 그렇다면,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지향하는 '인재'의 특성과 현장에서 접한 '선발된 영재'의 특성은 일치하는 것일까?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영재의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참관을 체험해온 '인재고등학교' 회의실 벽면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마하트마 간디",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빌 게이츠"의 액자가 걸려있다. "지혜와 현명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겸손과 헌신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며, "건강한 심신으로 세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는 '인재고등학교'에서 여섯 명의 위인은 학생들의 롤 모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2014년 4월 5일에 있었던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담당한 유교사는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인물로 "간디",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을 제시한다.

최근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전 세계 7천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마하트마 간디와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더 테레사와 마틴 루터 킹이 가장 존경받는 역사 속 인물 5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연구 자료에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는데, 1996년에 개발된 영재교육자료 <닮고 싶어요, 그 분을!> '위인탐구' 단원에는 신사임당, 신채호, 세종대왕의 삶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재고등학교' 회의실에 걸려 있는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각 인물이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풍토는 어떠하였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관계는 어떠하였으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성취를 하였는지에 대해 아이들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같을 것이다. 실제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아이들도 존경하는 인물로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림 Ⅳ-1>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이 지향하는 '여섯 위인의 삶'

‘위인’이라 평가받는 여섯 명의 삶은 다채롭다. 개인의 성품과 성장 배경, 인간관계, 당시의 사회·문화적 풍토, 흥미와 동기가 다르다보니, 성취와 공헌의 분야도 다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빌 게이츠가 ‘과학영재’라면 반기문과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는 ‘인문사회 영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인문사회 계열로 진로를 구상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이공계로 진로를 변경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다는 점, 융합과 통합을 중시하는 교육계 트렌드로 인해 학생의 흥미와 요구, 경험과 수준을 고려한 융합형 영재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학 인재상’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본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지향하는 여섯 위인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과학영재인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빌 게이츠는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상대성 이론’과 ‘윈도(Windows)’라는 창의적 성과물을 내놓는다. 아인슈타인은 제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독일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후에 자신의 두뇌를 의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빌 게이츠는 부자가 된 후, 자신이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모든 과목을 잘하던 빌 게이츠와 달리,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빼고는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고,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였으며, 권위적인 교사에게는 당돌하게 굴었다는 점에서 분명 다르다.

인문사회 영재는 어떨까? 마틴 루터 킹과 마하트마 간디는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해당 사회에서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법이 존속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것이 해결되도록 구성원을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 시절, 다그 함마르셸드 유엔 사무총장에게 헝가리 봉기에 대한 탄원서를 보냈던 반기문과 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엄격한 수녀원의 규칙도 깰 줄 알았던 마더 테레사도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상치 않은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중 마하트마 간디의 어린 시절은 조금 다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았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구구단 외는 것을 힘들어 했고, 받아쓰기 시험도 뒤쳐졌으며, 학교생활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각기 관심 분야가 다른 사회와 과학 영역의 위인들에게도 공통점은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흔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는 사그라지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회적 공헌'을 해낸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탐구 동기 및 목적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다. 여섯 명의 인재의 삶을 돌아보면, '창의성' 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 '동기'이다. 마더 테레사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박애에서, 마틴 루터 킹은 흑백 인종차별을 폐지하려는 투지에서, 간디는 인도인에 대한 영국의 무시와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신념에서, 반기문은 넓은 세계로 나아가 나라를 위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빌 게이츠는 획기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보려는 열정에서,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가려는 호기심에서 동기를 찾아내고, 쉬임 없이 그것에 몰입한다. 위인들은 이러한 동기를 통해 앞서 살펴본 범상치 않은 '창의성'을 발현한다.

전술하였듯이, 그 중 두 위인의 어린 시절은 사뭇 다르다.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교사로부터 "이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 볼 때, 공부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쪽지를 받을 만큼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연설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간디도 학교 다닐 때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학업 능력도 뒤쳐지는 열등생이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일반적 지적 능력'이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 '영재'로 선발되는 학생들과는 그런 점에서 분명 다르다. 요즘 적용되는 영재 선발 방식에 의하면, 반기문 총장과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빌 게이츠는 '합격'이고, 아인슈타인과 간디는 '불합격'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재 선발 방식의 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위인들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2)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앞서 살펴본 권영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제 6기 신입생이다. 매사에 궁금한 게 많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독서와 토론을 즐긴다. 낯가림이 조금 있지만, 줄곧 리더 역할을 해왔다. 글 쓰는 것과 시를 좋아해서 국어학에 관심이 많고, 문화와 사회, 경제와 정치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서 스스로 궁금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짚어내며, 문제점을 간파하고, 대안을 탐구해 나간다. 그가 요즘 생각하는 장래 희망은 "경제학 분야의 교수"이다. 기존 "미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주류 경제학"을 더욱 연구해서 "주류 경제학"으로 끌어 올리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 이러한 동기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탐구해 나간다. 자신의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에서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학습 개념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글을 함께 올린다. 인문사회를 향한 커다란 동기와 열정을 갖고 있다.

권영재가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서 처음 만난 김민지와 양준석도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이다. 김민지는 권영재, 양준석과 달리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양준석은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권영재, 김민지와 달리 '법조인'을 꿈꾸며 '철학' 분야에 심취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세 학생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서 만나본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또 다른 영재원 학생들은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고, 어떠한 점에서 다를까?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서 살펴본 '여섯 위인'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1) 호기심, 집중, 끈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구체적인 관심 분야는 각기 다르다. 권영재와 김민지는 ‘경제학’을, 양준석은 ‘철학’을 좋아한다. 그러나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같다. 권영재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김민지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가며, 양준석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울 줄 안다.

연구자: 본인이 공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권영재: 제 동기는 기본적으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요. 이러한 동기가 항상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민지: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논문 프로젝트에서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조원들과 꾸준히 노력했어요.

양준석: 저는 인문 사회 분야 중에서도 ‘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 입문서, 고전, 해설서 읽는 것을 좋아하고,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누군가는 굉장히 지루하고 일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서를 한다는 면에서 과제 집착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국내외 철학 교수님들께 이메일도 보내보고, 직접 철학 교육기관에 가는 것도 해봤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을 보이며,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해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찾아서 읽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영재는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에서 경제학, 철학, 한국사 등을 다루

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본인의 탐구열에 대한 블로그 이웃들의 관심에서 또 다른 동기를 찾게 된다. 영재원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은 높은 지적 호기심으로 각종 미디어와 자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즐긴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아서인지, 질문도 많다. 남들이 생각할 때 "지루하고, 일상과 무관한 주제"에 대해 답을 찾고자, 양준석이 국내외 철학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철학 교육기관에 들러보는 것처럼 말이다. 높은 주의집중력으로 흥미 영역은 지속되며,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된다. 김민지가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양준석이 철학 입문서와 고전을 "꾸준히"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산만하기보다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어떠한 과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기 위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권영재가 만나본 영재원 친구들의 공통점은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지식을 총동원"하려는 의지이다. 김민지가 생각하기에도 영재원 친구들의 "적극성과 끈기, 노력하는 정도"는 소속 학교 친구들과 다르다. 양준석은 "학문에 대한 진지함"이 학교 친구들과 영재원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한다.

연구자: 영재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권영재: 영재원에 다니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수업 중이나 후에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열심히 제시간 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제집착력이라고 하던가? 내가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걸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는 것 같아요.

김민지: 각자 다른 점이 적극성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가 뚜렷하지 않거나 관심 있는 분야조차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영재원 친구들은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가 뚜렷해서, 활동이나 공부를 할 때 적극성이나 끈기, 그리고 노력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양준석: 학문에 대한 진지함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은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문에 대해서 진정하게 열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대부분이 선행을 많이 했거나 학원에 의존하는 등 스스로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재원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그러나, 영재원의 모든 학생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열정이나 진지함이 부족한 친구들도 눈에 띈다.

연구자: 좀 전에 말한 공통점은 영재원 친구들이 모두 갖고 있나요?

권영재: 솔직히 같은 영재라고 해도 토론이나 발표할 때는 개인마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양준석: 수업 도중에 느낀 건데요. 지적 능력과 같은 면에서는 다들 비슷하지만, '영재'라는 단어가 붙기에는 학문적으로 진지함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연구논문 발표대회에는 각 학생이 학업에 대해 갖고 있는 흥미와 관심,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4년 8월 30일,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각 팀의 발표가 마무리되자, '인재고등학교' 인문영재부 곽교사는 심사평을 통해 학생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직시한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 것은 어제 쓰고서 오늘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3개월 동안, 두 명에서 네 명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

> 게 나누냐 하면, 해당 조가 속해있는 논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서 전혀 스크립트, 원고를 보지 않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냥 내용만 줄줄줄 읽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발표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습득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
> - 2014. 8. 30. 3학년 연구 발표대회 심사평에서

관심과 흥미를 공유하는 영재원 학생들은 전문과정에서 함께 모여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과정을 통해 논문을 작성한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영재원에서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한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연구과정을 수행한 학생들과는 달리, 연구논문에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에서 담긴 것인지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남의 얘기하듯이 발표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곽교사가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당부"한 것에는 이러한 "부류"의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배어있다.

(2) 독특한 생각: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권영재는 남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중에서 스스로 궁금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짚어내며, 문제점을 간파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익히는 요즘 어린이들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것을 "듣기"도 전에 TV 자막을 통해 "보게" 된다. 이처럼 "말을 글로 배우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켜지지 않는 발음 조항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SNS나 인터넷 상에서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남성들이 다시 "순종적인 여성상"의 걸 그룹을 찾기 시작하면서, 과거 "알파 걸" 중심이었던 걸 그룹의 이미지가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변모하였다고 분석한다. 역사 시간에 '빗살무늬 토기'를 배웠는데, 왜 그러한 모양인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다. 불의 온도를 높이지 않았을 과거에는 열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혔을 것이라고 스스로 추론한다.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뭐예요?

권영재: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상자를 꾸며 오라고 하면, 아예 잘라서 모양까지 바꿔오는 사람? 제가 모양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창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내는 면이 있어요. 보통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 왜 빗살이 있을까 잘 설명을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청동기는 민무늬 토기잖아요. 빗살이 없어지잖아요. 빗살무늬 질문하면 보통 설명하시는 게 예쁜 모양이다? 마찰력을 만들려고?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추론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징어 칼집 낼 때 잘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 때에는 불 만드는 기술, 더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덜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빗살이 되지 않았을까요? 잘 구우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 2014. 3. 30.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수학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권영재는 경제학에 수학을 접목하여 남들과 사뭇 다른 새로운 사고를 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주어진 개념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다.

저는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탄력성의 의미에 미분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 점에서의 탄력성 공식'을 구해 본 적이 있어요. 인문사회의 영역에서의 개념이더라도 수학적 사고를 적용시켜보고 새로운 방향에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요.

- 2015. 9. 5.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지와 양준석도 일상생활에 많은 질문을 한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사고를 하며, 독특한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과 해석

을 추구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술적 감각이 풍부하기도 하다. 김민지는 “여러 논리”를 도출해내고, 양준석은 “절묘한 비율과 운율”로 시를 쓴다.

연구자: 본인이 뭔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김민지: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여러 논리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양준석: 저는 예술, 특히 문학 분야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시를 쓸 때에 절묘한 비유와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학교 행사나 과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진정으로 시를 짓거나 소설을 만들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가끔 제가 글을 쓸 때에 시나 소설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이는 분명 보통학생과 다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사고를 중단 없이 지속하고, 수정하고, 재해석한다. 그러나 영재원 학생들이 모두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에는 “개인차”가 있다.

연구자: 영재원 친구들과 자신의 비슷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권영재: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창의성이나 논리력 같은 다양한 자질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탐구해가는 권영재도 스스로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소속 학교

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독특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영재원 친구들을 만나서일 수도 있고, 영재원 교사들이 '창의성'을 더욱 강조해서일 수도 있다.

>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면모는 창의성이에요. 연구 주제를 결정할 때도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내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저의 좋은 점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비교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영재교육원 선생님들도 대체로 '창의성'을 더 높게 사는 것 같아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
> - 2015. 9. 5.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학생들이 가진 창의성은 각각 다를 것이다. 남다른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어떠한 자극을 받거나 문제에 맞닥뜨릴 때, 다양한 상황을 연상하는 학생이 있다면, 상투적인 대응법을 생각하는 데 그치는 학생도 있다.

(3) 높은 학업 성적: "전교 1등이에요."

선발된 학생들은 모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다. 한 두 과목만이 아니라, 전 과목의 시험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권영재는 "전교 1등"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가끔 전교 2등이나 3등을 하는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권영재의 성적을 앞설 때도 있는 두 친구는 모두 이과, 이른바 의대 지망생이다. 정확히 말하면, 권영재는 단 한번도 '문과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김민지와 양준석도 마찬가지다. 김민지는 모든 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벗어났던 경우가 드물고, 양준석은 얼마 전 시험에서 "전교 6등"을 했다. 물론 양준석보다 앞서는 등수에는 이과 지망생들이 포함된다. 김민지와 양준석의 학교에서는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 함께

지원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중 학업 성적이 가장 높은 김민지와 양준석이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다.

연구자: 영재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권영재: 우선 영재원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보다 모두 성적이 우수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권영재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6학년 때 '2012학년도 서울시 초등학생 독서토론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받는다. 다양한 교내대회는 물론, '서울시 과학탐구 토론대회'에서 동상을, '동작구 독서 감상문대회'에서 금상을, '동작구 독서논술대회'에서 금상을 탔고, 최근에 있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말 토론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하였다.

연구자: 최근에 참가한 대회가 있나요? 어떤 대회였어요?

권영재: 한 달 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말 토론대회'가 있었어요. 민사고 토론 방식에 따라서, 4인 1팀으로 이루어지는 토론대회였는데요. 팀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주제가 '청소년은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젓가락질은 바르게 해야 한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당황스러운 것도 많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예선에서 총 승수는 다른 본선 진출자에 비해서 낮았는데, 여러 번 우수 토론자로 선정이 돼서 점수가 쌓여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김민지와 양준석도 그렇다. 김민지는 외대부고에서 주최한 '모의 법정

대회(HAFS Mock Trial Competition)'에서 동상을 받았고, 규모가 큰 다양한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두루 받았다. 양준석은 '국어 논술대회'와 '국어 토론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영어 말하기 대회'와 '영어 경시대회'에서는 은상을 받았다.

영재원에 선발된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매우 좋고, 남들보다 빨리 깨우친다. 이해하는 데 많은 설명과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혼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남들보다 높다. 우수한 사고 능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학생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특정한 분야의 과목만이 아니라, 전 영역 과목의 종합 성적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4)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 "계속 반장이었어요."

권영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낯가림이 있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줄곧 반장을 해왔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흔히 말하는 리더십도 있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심도 있다. 김민지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인 지금까지 계속 부회장을 해왔고, 양준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두 차례의 부회장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학급 회장을 맡아왔다. 영재원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 연구자: 영재원 친구들과 자신의 비슷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 김민지: 영재원 친구들하고 저는 리더십이 있다는 점이나 진로에 관해서 성숙하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재원 친구들 대부분이 공부도 잘하지만, 각 학급이나 학교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여러 번 해봐서인지, 리더십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도 뚜렷하다. 권영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맡은 바

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힘”이, 김민지는 “친구들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양준석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뭔가요?

권영재: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요. 이런 걸 위해서는 ‘나만 열심히 한다’, ‘나만 규칙을 준수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지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맡은 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민지: 제 의견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의 의견을 100프로 반영하려 노력하고, 친구들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준석: 만일 제가 학급 회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관용, 경청, 협력... 이런 다소 일반적인 답변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진정한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전형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소위 이미지 관리를 하는 회장들, 형식적인 것에 과도하게 치중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회장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매우 소홀히 임무를 수행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학급 회장이라는 역할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진정한 지도자란, 한 마디로 진정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지도자의 지도 방식, 그러니까 카리스마냐 경청이냐, 이런 논의는 그 당사자에게 맞는 것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진정 지도자를 판가름하는 건 그러한 수단으

로서의 지도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곧바로 잡혀 있다면, 저는 그 후에 요구될 지도자의 성품이나 능력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영재원에 선발된 학생들이 각각 리더십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두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임원' 역할을 경험해보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5) 인문사회에 대한 흥미와 열정: "경제학, 국어학,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이는 아이가 그 분야의 영재일 것이다. 책을 좋아하고, 남다른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각 분야의 영재가 별반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말'이나 '글'에 능하고, '사회 현상'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남다르다는 점은 인문사회 영재만의 특질일 것이다.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영재는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철학 등에 대한 남다른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 현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 사고를 한다. 권영재는 요즘 수학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경제학"과 임의로 만들어진 언어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국어학"에 관심이 많다. 김민지는 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경제학"이 흥미롭다. 양준석은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을 통해 형이상학적 주제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즐겁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이 담긴 인문사회 영역의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

연구자: 본인은 인문사회 영역의 어떠한 분야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나요?

권영재: 저는 지금은 경제학이랑 국어학에 관심이 깊어요. 경제학

의 경우에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리고 국어학은 임의로 만들어진 언어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과정이 재미있고, 제가 잘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관련 분야를 전공하게 된다면, 경제학은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한 기존의 미시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동경제 같은 비주류 경제학을 더 연구해서 주류 경제학으로 끌어 올리고 싶어요. 국어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평소에 관심 있던 국문법의 허점에 대한 보완점이나 언어 간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또 기술 문법이나 규범 문법의 차이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 싶어요.

김민지: 저는 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요. 전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그걸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양준석: 저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철학에도 인식론, 윤리학, 형이상학 같은 많은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존재나 시간 등과 같은 철학적인 개념들을 오직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과학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무수히 많은 전문적인 시각에서 개념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재정립하는 연구도 하고 싶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다양한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경험한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이 주로 참가한 것은 토론대회였다. 이들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발달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어휘 수준으로 책을 많이 읽어왔고, 말을 유창하게 하며, 적확한 언어로 의견을 제시할 줄 안다.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한 비판과 논쟁, 토론도 즐긴다.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회 현상'에 관한 것이다. 요즘 권영재는 "남북한 관계"와 "경제 문제", 김민지는 "통일 문제", 양준석은 "북한 도발"과 "투쟁

이 갖는 의미”가 궁금하다.

연구자: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는 뭔가요?

권영재: 최근의 사회문제로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요.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동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의 도발과 고위급 회담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했고,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회 현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통신사 과점 현상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문제들이 자유방임이나 정부의 개입 중 어떤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경제학에서는 두 방책이 많은 경우에 갈등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더욱 잘 알아보고 싶어요.

김민지: 이전에는 행동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양준석: 저는 최근에 북한 도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 같이 전쟁 발생 가능성, 나아가 승률 같은 현실적인 주제들보다는 한민족 내의 이런 관계, 또 핵무기라는 무지막지한 존재가 가져다준 허무감 같은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저의 특이점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핵전쟁이라는 상상이 안가는 위협이 임박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허무감과 이상하게 평온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한 인간의 오판에 의해서 수천만의 생명이, 그들의 삶이 단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한 엄청난 힘 앞에서 투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막상 실제로 그러한 재앙이 닥친다면 평온하게, 각자 개인의 자그마한 현실에 충실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정신적인 혼란이 느껴졌어요. 이러한 힘 앞에서 한없

> 이 작아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평화를 소망하면서 제 소박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 상황에 있을 때, 양준석이 관심을 둔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나 충돌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다. 그는 “한 인간의 오판”에 의해 수천만 명의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와 허무감을 느낀다. 실제로 그러한 재앙이 닥친다 해도 평온하게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본인이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양준석이 말한, 사회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진정하게 열정을 느끼는 진지함”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호기심과 집중, 지구력 등의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인문사회 영역을 향한 열정’도 영재원 모든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과목 성적이 모두 우수하지만, 예체능이나 이과 계열에는 특별한 흥미가 없다. 그래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원에 지원을 했고, 전교 1등이므로 선발되었다.” 이러한 학생도 있지 않을까?

3)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와 여섯 위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다. 세 학생을 통해 파악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은 ‘호기심, 집중, 끈기’, ‘독특한 생각’, ‘높은 학업성적’,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 ‘인문사회에 대한 열정’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기심, 집중, 끈기’이다. 세 학생은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을 보이며,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영재와 양준석, 곽교사가 짚어낸 것처럼, 영재원에는 학문적인 열정과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는 학생도 있다. 이들은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었지만, 렌줄리(Renzulli, 1978)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성격

특성으로, 가네가 흥미와 집중, 집착력(Gagné, 2003; 조석희, 2005에서 재인용)으로 제시한 '동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

둘째, '독특한 생각'이다. 세 학생은 남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 중에서 스스로 궁금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짚어내며, 문제점을 간파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주어진 개념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사고를 하며, 독특한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사고를 수정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권영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재원 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에는 "개인차"가 있다.

셋째, '높은 학업 성적'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모두 전교 최상위 등수에 든다. 전 과목의 시험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영재원에 선발된 학생들은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설명과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남들보다 높다. 또한 우수한 사고 능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영재원에 선발된 학생들은 특정 분야의 과목만이 아니라, 전 과목의 성적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넷째,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이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임원' 역할을 줄곧 경험해 왔다. 세 학생은 '리더십'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뚜렷하다. 영재원에 선발된 학생들이 각각 리더십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섯 째, '인문사회에 대한 열정'이다. 세 학생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발달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어휘 수준으로 책을 많이 읽어왔고, 말도 유창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사회 영역을 향한 열정'이 영재원 모든 학생들에게 배어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전 과목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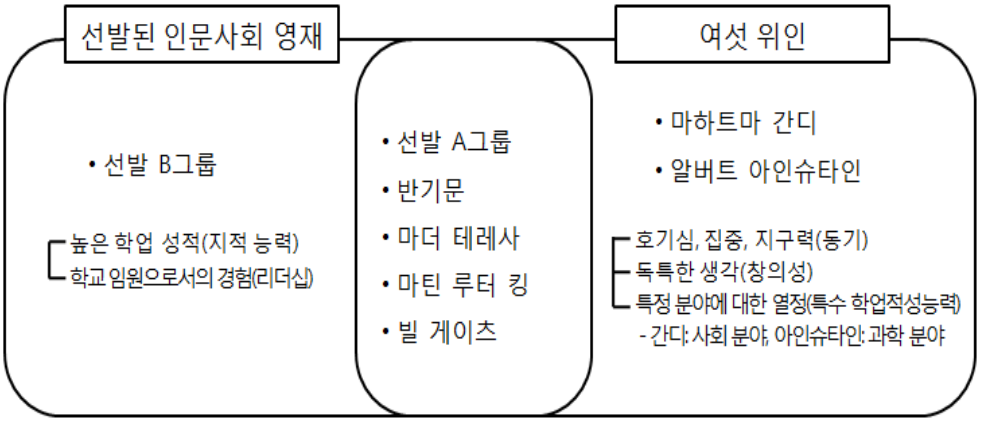
두 잘하지만, 예체능이나 자연계에는 특별한 흥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여 선발된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을 통해 파악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을 말랜드와 렌줄리가 제시한 영재의 특성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 미국 국무부(1972)는 영재의 특성이 '일반적 지적 능력', '특수 학업적성능력', '창의적·생산적 사고', '리더십', '시각 및 행위예술', '운동감각' 등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Marland, 1972), 이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영재교육 대상자의 정의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렌줄리(Renzulli, 1978)는 세고리 모형을 통해 영재성이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동기)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말랜드와 렌줄리가 제시한 영재성과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의 특성을 연결해보면, "호기심, 집중, 끈기"는 '동기'로, "독특한 생각"은 '창의성'으로, "높은 학업 성적"은 '지적 능력'으로,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은 '리더십'으로, "인문사회에 대한 열정"은 '특수 학업적성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는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학생이 있고, 그 중 일부만 갖춘 학생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섯 위인' 중에서도 다섯 가지가 모두 드러나는 인재가 있고, 몇 가지는 보이지 않는 인재가 있다. 그러나 여섯 위인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동기',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이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여섯 위인의 공통점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동기',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과 같은 꼭 있어야 하는 특성은 없고, '과하게 높은 학업 성적'과 '임원 경험'이라는 없어도 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선발 A 그룹'의 학생들은 영재의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섯 위인 중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 동기와 창의성, 높은 지적 능력, 리더십, 특수 학업적성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와 알버트 아인

슈타인은 높은 학업 성적과 리더십 없이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학습 동기와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으로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었다. '선발 B 그룹'의 학생들은 높은 지적 능력과 리더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섯 위인의 공통점인 동기와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발 B 그룹' 학생들은 '선발된 전교 1등'일 뿐, '인문사회 영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Ⅳ-2>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와 '여섯 위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4) 타 분야 영재와는 다른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

앞서 살펴본 예술 분야 영재의 특성은 이러하다. 음악영재는 조성, 하모니, 리듬과 같은 음악적 구조에의 민감성과 음악의 표현 특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악 구조에 민감한 아동들은 음악을 듣고 쉽게 목소리나 악기로 재연할 수 있으며,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음악 생성력을 보이기도 한다(Winner & Martino, 2000). 미술영재는 일반아동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림을 그리고, 시각적 기억력이 탁월하며, 미술적 능력을 계발하려는 동기가 강하다(Winner & Martino, 2000).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각을 통합하는 감수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하는 고

도의 상상력이 잠재되어 있으며,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직관적인 자질로 자신의 삶을 미술로 직접 표현한다(Brittain, 1987; 박성익 외, 2009에서 재인용). 무용영재는 무용 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인 무용 체격(dance physique), 무용 체력(dance fitness), 무용 동작 능력(dance movement ability), 무용 성향(dance disposition)을 가지고 있다(오레지나 외, 2005).

예술 분야의 영재성은 과학이나 수학 등 학문 분야에서의 영재성과는 달리, 높은 지적 능력이나 탁월한 학업 성적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식된다. 가드너는 예술 분야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와 화가 피카소가 정신병리학자 프로이트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는 달리, 난해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Gardner, 1993). 특정 장르에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자신들의 변화하는 예술적 비전을 반영하는 창조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음악영재는 높은 지적 능력보다는 높은 음악적 표현 특성을, 미술영재는 높은 시각적·공간적 능력을, 무용영재는 높은 무용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영재의 특성은 비학업영역(non-academic domain)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과학영재와 수학영재는 학업영역(academic domain)이라는 문화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 분야의 인재인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빌 게이츠는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상대성 이론'과 '윈도(Windows)'라는 창의적 성과물을 내놓았다. 박성익 외(2009)에 의하면, 과학영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 분야에서의 학업성취도와 과학 적성으로 반영되는 과학 특수 능력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는다. 둘째, 많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과학 분야의 과제집착력, 흥미, 동기, 자신감 등의 비지적 요인에서도 뛰어난 면을 보인다. 수학영재는 계산능력이 뛰어나고, 단축된 사고활동을 잘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창적인 방

법으로 수학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인다(Krutetskii, 1976; 강옥기, 1991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학, 수학 영역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인간의 가치문제가 탐구 대상이 된다. 이것이 인문사회 분야의 문화이자,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ity)[12]'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문사회 분야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과 마하트마 간디는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해당 사회에서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법이 존속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반기문은 초등학생 시절, 헝가리 봉기에 대한 탄원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고, 마더 테레사는 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엄격한 수녀원의 규칙에 반기를 든다. 이들은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구성원들에게 해가 되는 문제를 발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상치 않은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권영재와 양준석도 인문사회 영재가 분명 과학 분야의 영재와 구분되는 영역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간다.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는 인문사회 영재란 어떠한 사람인가요?

권영재: 인문사회 영재는 인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문과 달리 인문사회의 영역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답이 딱 떨어질 수 있는 자연과학 계열의 학문과 달리,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문사회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인문사회 영재에게 요구되는 '참신함'이나 '창의성'은 남들이 찾지 못한 '풀이 방법'을 찾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찾지 못한 답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답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들어보

12)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은 다른 영역의 기능 및 성향과는 구별되는 영역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기능과 성향을 말한다(조연순・성진숙・이혜주, 2008).

고, 이를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능력도 인문사회 영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준석: 저는 인문사회 영재가 다른 분야의 영재들에 비해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학 분야에서의 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과학영재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깊은 탐구력과 호기심,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자세, 그 이상으로는 필요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는 인문사회 영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들이죠. 하지만 인문사회 영재와 수학, 과학 영재를 구분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계를 찾아보자면, 저는 그것을 '인문학적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적 쾌락을 느끼거나 생활이 편리해질 수는 있으나, 이는 수학, 과학 분야 탐구의 본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인문사회 분야는 철학, 역사 같은 학문을 통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자세에 대해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사회 분야의 특이점은 개인의 '실천'적인 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문학적 감수성이 다른 분야에서도 공유하는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떠나 인문사회 영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권영재는 "답이 딱 떨어지는" 과학 계열 학문에서 "남다른 풀이 방법"을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인문사회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은 "남들이 찾지 못한 답,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인문사회 영재는 "인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준석은 과학영재가 갖고 있는 "탐구력과 지적 호기심,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인문사회 영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본다. 즉 '영역 일반성(domain-generality)[13]'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와

과학, 수학영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문학적 감수성”이다. 과학, 수학영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한 탐구”와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문학적 감수성”이 인문사회 영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문사회 영재가 갖고 있는 영역 특수성이지 않을까?

권영재와 양준석이 생각한 것처럼 과학영재와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윤경미・유순화(2008)는 과학영재의 논리수학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면, 인문사회 영재는 언어지능과 대인지능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는 점을 밝혀낸다. 이는 인문사회 영역이 주로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언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분야의 영재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경미・유순화(2011)는 과학영재와 인문사회 영재, 일반 중학생의 진로특성을 비교해보았는데, 인문사회 영재와 과학영재의 탐구형이 일반학생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형은 지적인 흥미, 추상적인 사고력,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집착력,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기 좋아하는 특성들과 가장 관련되는 진로유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탐구 지향적 성향은 과학영재와 인문사회 영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일반적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영재의 진로성향에서 실재형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과학영재가 사람과 관계되는 일보다는 물질이나 자연, 또는 기계 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인문사회 영재는 기업형과 예술형이 과학영재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에게는 인문,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와 높은 감각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드너(Gardner, 1983)는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등과 대비되는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뿐 아니라 교사, 정치가, 지도자 등에서 정교하게 나타나는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도 제시하였다. 인간친화지능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능력’

13) 영역 일반성(domain-generality)은 모든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면서 공통적인 능력을 말한다(조연순・성진숙・이혜주, 2008).

으로서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해결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더해 새롭게 추가된 실존지능(existential intelligence)은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와 같은 '큰 질문들과 관련된 지능'으로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숙고하는 인간의 성향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언어적 정보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언어지능과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간파하는 인간친화지능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실존지능도 인문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영재성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인문사회 영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역사적 현상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낸다. 더 나은 인간의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뇌한다.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탁월한 지적 능력과 특출한 사고 능력, 그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 이것이 모든 교과목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이 아닐까? 과학이나 수학, 예술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문사회 분야만의 특질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Ⅴ.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껏 살펴본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2항에 의하면, 영재교육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선발된 학생들의 영재성 향상은 교사나 동료와 같은 인적 변인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데(Tannenbaum, 1986; 1997), 환경적 측면에서는 학교문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iirto, 1999). 이처럼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학생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배움’을 접하고, 그로 인해 ‘향상’의 의지를 다져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곳에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09년 ‘인재고등학교’,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2012년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이들 영재교육원의 주요 목적이다. 영재교육원은 정규학교가 아니므로, 주로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 때 운영된다.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 4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초등분야(초등학교 5~6학년)와 중등 분야(중학교 1~2학년)로 나뉘어 수업을 듣는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6학년생 40명을 선발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인문학(문학, 철학, 역사학)과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수업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참관 현장인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짚어낼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특질은 무엇인가?

1. 인문사회 영재교육 개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으로서, “인문사회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중학생을 선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성을 계발하고 문제해결력을 길러줌”으로써, “21세기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문사회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1) 설립 연혁과 운영 방침

‘인재고등학교’ 부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2009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인문사회영역 3학급 45명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되었다. ‘2014학년도 영재교육 운영 계획서’에 의하면,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인재고등학교’는 “2009년 5월 23일, 제 1회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하였으며, “2010년, 영재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2009년 제 1기 신입생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제 6기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2014년 3월 22일, 2학년 과정에 입학한 40명, 3학년 과정으로 진급한 40명 학생, 총 80명의 영재학생”들이 2014학년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4학년도 제 6회 개원식”에서 ‘인재고등학교’ 교무부 부장교사가 영재교육원의 연혁을 소개한다.

> 학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교 부설 영재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분야 영재교육원으로 개설했고요, 철저한 학사관리,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교 부설 영재교육원은 2009년 3월 2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인문사회영역 3학급 45명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3일 이 자리에서 제 1회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제 1기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2학년 과정의 수료식을 가진 바 있으며, 12월 2일에 제2기 신입생 45명을 선발했습니다. 2010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3학년과정 3학급 증설 인가를 받은 동시에, 2010년 영재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2년 2월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2학년 과정에 2학급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제 6기 신입생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오늘 2014년 3월 22일, 2학년 과정에 입학한 40명, 그리고 3학년 과정으로 진급한 40명 학생, 총 80명의 영재학생들이 2014학년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014. 3. 22.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개원식에서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학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재교육원은 "2014년 3월 22일(토)부터 2014년 11월 22일(토)까지 총 100시간 내외"로 운영된다. 2학년 과정은 "연간 총 50차시 100시간", 3학년 과정은 "총 47차시 94시간"으로 "토요일 및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2) 학생 선발 절차

'2014학년도 영재교육 운영 계획서'에 의하면, 영재 학급은 "각 학년별 2학급, 총 4학급으로 운영"하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는데,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전형과 영재교육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2단계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13년 12월 3일(화)부터 12월 5일(목)"까지 진행되었고, 3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 전형이 "2013년 12월 14일(토)"에, 4단계 "인성 및 심층면접" 전형이 "2013년 12월 21일(토)"에, 5단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2013년 12월 26일(목)"에 발표되었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표 Ⅴ-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과정

단계	주관기관	선발 과정	선발 방법 및 일정
1, 2차 전형	단위학교	학교장 추천	○ 해당 중학교의 '영재교육대상자 추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한 학생
3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행 관찰	○ 모집 인원수의 1.5배수 선발 ○ 일반능력(논리성, 표현력, 이해분석력 등) 검사, 창의성 검사, 특수학업 적성 검사(인문, 사회 영역에 대한 적성 검사) 등
4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인성 및 심층 면접	○ 모집 인원 선발 ○ 인성, 리더십, 창의성, 표현력, 인문사회적 지식 등
5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선정 심사 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선정 및 적격 여부 심의, 예비합격자 순위 및 적격 여부 심의 ○ 최종합격자 중 부적격자 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 선발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2013년 12월 26일,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학생은 여학생 26명, 남학생 14명으로 총 40명이다. 이 학생들의 소속 학교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인재고등학교' 교장은 개원식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 환영사를 전한다.

> 5차례에 걸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너무 축하드려요. 학교 이름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많은 곳에서 모여서, 지역적으로는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학생을 우리 학교 영재교육원에 이끌어주신 학부모님들의 탁월한 선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
> - 2014. 3. 22.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개원식에서

2)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 및 영재캠프로 토요일을 이용하여 운영된다. 2학년 과정은 "연간 총 50차시 100시간", 3학년 과정은 "총 47차시 94시간"으로 진행된다. 2학년 "공통과정"은 "교과별 강사교육(16차시)", "전문과정"은 "체험 활동 및 특강(6차시)", "연구과정"은 "팀별 논문제작과 발표(10차시)", "영재캠프"는 "현장 실습과 리더십 함양 과정(15차시)"으로 이루어진다. 3학년은 "공통과정" 13차시, "전문과정" 6차시, "연구과정" 10차시, "영재캠프" 15차시로 진행된다. 2학년과 3학년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Ⅴ-2>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일일 시간표(1차시=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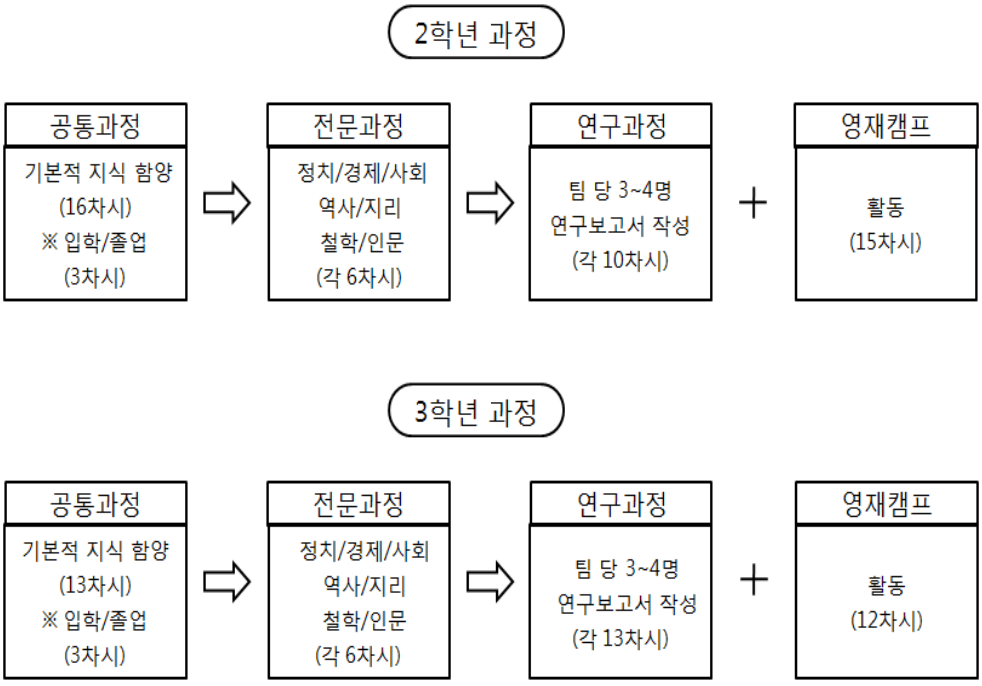
	담임시간	1	2	3	4
수업시간	08:50~09:00	09:00~10:40	10:50~12:30	13:20~15:00	15:10~16:50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표 Ⅴ-3>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2학년 차시(시간)	3학년 차시(시간)	시기	비고
공통과정	16(32)	13(26)	1학기	교과별 강사교육
전문과정	6(12)	6(12)	1학기	논문 관련 체험 활동 및 특강
연구과정	10(20)	13(26)	1,2학기	팀별(3~4명) 논문제작과 발표
영재캠프	15(30)	12(24)	연중	현장 실습 위주/리더십 함양 과정
행사	3(6)	3(6)	3월, 11월	입학/졸업
합계	50(100)	47(94)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그림 Ⅴ-1>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순서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1) 공통과정: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2학년 16차시, 3학년 14차시로 진행되는 공통과정은 인문사회 교과 중심의 기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각각 한 차시씩 공통과정 수업을 담당한다. 공통과정은 일종의 교양 강좌로서, 대략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공통과정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14년 5월 10일(토), '경제적으로 사고하기'를 주제로 하는 공통과정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교사가 경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희소성과 의사결정", "효율성과 형평성",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세금과 정부 보조금", "시장 실패와 독점"에 대해

수업이 진행된다. 아직 학교에서 “기회비용”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늘 “처음” 배운다. “경제의 기본 원리” 설명을 마친 이교사는 경제 원리를 “보드게임 제작”에 활용하는 “창의적 적용(creative applications)”을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이교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드게임을 만들어볼까 해요. 보드게임. 이거 알죠? 뱀주사위 놀이가 있죠. 이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끝이 나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가서 목표에 도달하면 끝나는 게임의 유형. 또 다른 유형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게임 브루마블, 모노폴리. 축적하거나 성장시키죠. 그래서 이제 조별로 해서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럽죠?

학생들: (투정하듯) 네에에~

이교사: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얘기한 경제원리가 게임 안에 녹아있어서 게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원리가 나오는 거죠.

– 2014. 5. 10. “3학년 공통과정: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수업시간에

이교사는 조별로 “창의적인 보드게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창의성 신장”이다. 각 조의 학생들은 도전적이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부 개입”, “경매”, “주식 시장”, “세금” 등의 경제 원리를 보드게임 안에 녹아들게 하는 “창의성”을 보여준다. 각 조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중 이상준 조는 “순환성장형 게임”을 내보인다.

이상준: 우선 우리는 순환성장형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게임을 두 명에서 네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하기 전의 참가인원들은 직업을 정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그 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고, 참가인원은 언제든 자기 차례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때마다 연

봉을 받고 세금을 내며...

학생들: (모두 웃음) 하하하~

이상준: 열 바퀴를 돈 뒤 가진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투자자, 연예인, 공무원 등이 있으며, 각각 고위험 고수익 직업과 저위험 저수익 직업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은 연봉이 낮은 대신에 저위험으로, 고위험 고소득은 위험이 높은 대신에 바퀴를 돌수록 받을 수 있는 연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의 종류는 이벤트 칸, 거래 칸, 미니게임, 한 턴씩 그냥 돈 받는 거고, 이벤트 칸에서는 이벤트 카드를 뽑고, 거래 칸에서는 내가 산 물건을 거래할 수 있으며, 미니게임 칸에서는 동전치기를 통하여 돈을 딸 수 있고, 한 턴 쉬기에서는 한 턴을 쉴 수 있으며, 그냥 돈 받는 칸에서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중 이벤트 카드에서는 북한의 도발, 연예계 찌라시 유포 등등의 사건으로 인해 직원의 연봉과 물건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학생들: (다들 감탄하며) 우와아~

이상준: 물건카드에는 부동산 카드와 상품 카드입니다. 물건의 종류에는 사치품, 식료품, 석유가 있으며 네 장씩 카드가 있습니다. 네 장을 한 명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네 명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큼 가격이 줄어듭니다.

학생들: 오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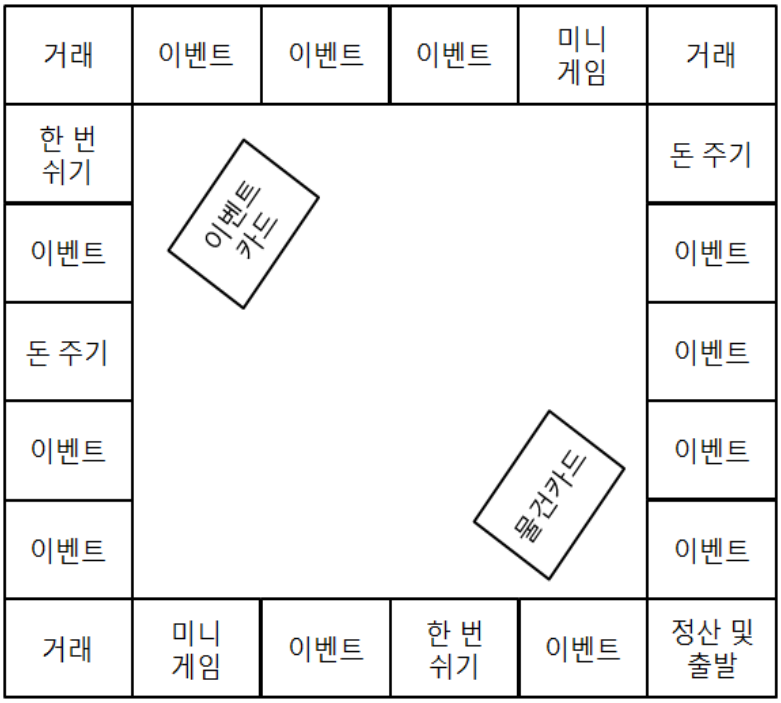
이상준: 물건의 가격도 사건에 따라 변하는데, 예를 들어 사치품은 경기발달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고, 식료품은 북한 도발에 의해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석유는 중동 분쟁에 의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열 바퀴를 돈 뒤에 가진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학생들: 우와아~

이상준: 일단 이벤트 칸에서는 이벤트카드를 뽑는데, 이벤트의 직업마다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고 물건마다 또 영향을 받는 게 다르고요, 미니게임은 정말 운대로 돈을 받는 게임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와 일대일로 게임을 하는 것도

있고요, 출발지에서 정산을 하면서 월급과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2014. 5. 10. “3학년 공통과정: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수업시간에



<그림 Ⅴ-2> 3학년 공통과정 이상준 조의 ‘순환성장형 보드게임’

이상준 조가 발표를 마치자, 다른 조 친구가 질문을 한다. “이벤트 칸”과 “미니 게임” 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래 칸”에는 어떤 경제원리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이상준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교사는 이상준 조가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부 개입”, “누진세율” 등을 보드게임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것에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도 남다른 이해력을 보여주는 것에도 감탄한다.

박경민: (손을 번쩍 들며) 질문 있어요~

이상준: 네~

박경민: 게임에서 이벤트 칸하고 미니게임 말고, 따로 거래를 하

잖아요. 상품을 사고 그런 거는 왜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요?

이상준: (끄덕이며) 이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치품은 50만원인데 독점을 할 경우에 각각 100만원이 되고요, 두 명이 나눠가질 때 각각 90만원이 되고, 세 명은 80만원, 네 명은 60만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교사 : (학생들을 둘러보며) 이해가 되나요?

학생들 : (모두) 네~

이교사 : (감탄하며) 아, 이해가 정말 빠르네요. 수고했어요.

- 2014. 5. 10. "3학년 공통과정: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수업시간에

소속 학교에서 2학기 때 접하게 될 "기회비용"을 "처음 배운"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성취를 지켜본 이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 뿌듯한 마음을 드러낸다.

연구자: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이교사: 처음 해보는 건데 애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보드게임은 거의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20분 안에 금방 하고는, 바로 발표하더라고요. 학생들 참 대단해요.

- 2014. 5. 10. 인터뷰에서

(2)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2학년과 3학년 모두 6차시로 진행되는 '전문과정'은 2014년 6~7월에 걸쳐 오리엔테이션 및 편성에 1차시, 편성된 3개 분야별로 주제 중심의 수업에 5차시를 할애하여 운영되었다. 영재원은 공통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학급을 재편성하고, 학생들은 선택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집중 이수한다. 전문과정은 "정치/경제/사회", "철학/문화", "역사/지리"의 세 분야로 나뉜다. 그 중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14년 6월 14일(토),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선택한 2학년 학생들이 이교사의 전문과정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된다. 수업주제는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이다. 이교사는 학생들이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자료”를 탐색해보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 이교사: 오늘 정치경제 첫 시간이죠?
> 학생들: 네~
> 이교사: 첫 시간. 여러분들이 정치경제 선택했으니까 뭔가 특성화된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신문이나 뉴스 보면,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자료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그게 하도 정교하게 분석되다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수치의 의미는 어떤가, 그걸 오늘 한 번 공부도 해보고, 직접 그걸 바탕으로 탐색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금 내가 강의하고, 그 다음 계속 여러분이 조별로 과제 수행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
> - 2014. 6. 14. “2학년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시간에

“경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수치, 통계,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교사는 “규모(scale)와 변화율(rate)”, “정보의 활용”, “유량(flow)과 저량(stock)”, “경제 변수”, “시계열 그래프(time-series graph)”, “산포도(scatter diagram)”, “파이 도표(pie chart)”, “막대 그래프(bar graph)”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조별 과제를 제시한다. 전문과정 수업을 처음 하는 2학년 학생들은 과제가 “집에서 하는 숙제”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답을 찾아내고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조 편성이 시작된다.

이교사: 여기까지 쭉 살펴본 걸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진행될 조별 과제를 수행할 건데요. 그러면 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도서관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봐요.

김기훈: 이게 집에서 하는 숙제인가요?

이교사: 아니에요. 지금 할 거예요. 근데 여기(교실)에서 하고 갈 게 있어요. 조 구성할거고요. 결과물 낼 방법을 설명해주고. 자료는요. 수치와 통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결과물은 여기에다 만들어서 제출을 할 거예요. 내가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에 예쁘게 그려봐요. 그래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근거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조 편성은 세 명, 네 명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조 편성 해보죠.

– 2014. 6. 14. “2학년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시간에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의견을 나눈다. 권영재 조는 “자살률”과 “실업률”, “국민소득”, “문화시설의 보급” 등이 “행복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싶다.

권영재: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OECD 행복지수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김민지: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냐?

권영재: 우리나라만 하는 건가? 근데 과거는 언제부터 할지 기간을 정해야지. 언제가 과거인지. 한 십년 정도? 아님 20세기부터 할까?

양기영: 20년 전부터?

권영재: 이게 기준이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행복한가.

양기영: 그럼 조사해야 될 거는..

김민지: 자살률.

권영재: 실업자수. 실업률?

양기영: 1인 소득.
권영재: 행복지수 그런 거 있잖아
김민지: 그런 거 옛날 거 있을 수 있어.
권영재: 그러면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김민지: 그럼 우리가 행복지수를 만드는 거잖아.
권영재: 그러면 자살률하고 실업률하고 국민소득하고 이런 게 행복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걸 조사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대충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생각해보자.
양기영: 1인 소득 말고 GDP? 국가안정?
김민지: 그 나라의 문화나 영화 관련 통계자료가 있나?
양기영: 문화시설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유 있고
김민지: 문화 시설의 보급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거지.
권영재: 그러면 일단 찾으면서 생각나면 더 하자.
– 2014. 6. 14. “2학년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시간에

조별 학생들은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도서관 문헌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탐색한다. 탐색한 자료는 “수치, 통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차트”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구민재 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청소년 학교폭력”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최원희 조는 “이익의 성호사설”을 통해 “과거 학업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와는 다른 “현재 학업의 목적”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박정서 조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한다.

권영재 조는 영국 심리학자가 2003년에 발표한 공식을 찾아내어, “인생관과 적응력”을 “1의 비율”로, “생존의 기본 요소”를 “5의 비율”로, “상위 욕구”를 “3의 비율”로 대입하여, “행복지수”를 계산해낸다. “생존의 기본 요소”는 “기대수명”과 “1인당 GDP”로, “개인의 자존심이냐 야망”은 “자살률”과 “실업률”로, “상위 욕구”는 “문화시설 이용 정도”로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1990년대에 비해 2010년에 “생존의 기본 요소”와 “상위 욕구”가 더욱 충족되었다고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교사는 “훌륭하다”고 감탄한다.

이교사: 김민지, 권영재, 양기영 조 시작합니다.

권영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주제에서 우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생각했고, 과거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찾는 과정에서 행복지수의 의미를 인생관과 적응력을 1의 비율로, 건강과 돈과 같은 생존의 기본 요소들을 5의 비율로, 그리고 개인의 자존심과 야망 등 상위 욕구를 3의 비율로 대입하여 행복지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기본 욕구나 사회 욕구를 조사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존의 기본 요소인 건강과 돈은 기대수명과 1인당 GDP를 조사하였는데요, 기대수명은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늘고 있고, GDP도 IMF 위기쯤에 감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2009년에서 2012년을 보면 결과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존심이나 야망은 자살률과 실업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업률이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률도 2010년까지는 계속 올라가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시설 이용을 통해서 상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1990년보다 최근 들어서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존의 기본 요소와 상위 욕구가 모두 동시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행복지수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사: 아유~ 훌륭해요.

- 2014. 6. 14. “2학년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시간에

권영재 조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완료하자, 이교사는 학생들의 자료 제시와 발표의 우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한다. “첫 번째 조”는 “질병, 우울증, 자살”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였고, “두 번째 조”는 “공부를 왜 하는가?”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었으며, “세 번째 조”는 “파이 그래프”를 통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조건의 차이”를 제시하였고, “네 번째 조”는 이교사의 “문항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분석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교사를 “놀라게” 한다.

이교사: 아, 역시 또 놀랍네요. 여러분들의 배고픈 심정을 고려해서 빨리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조사한 것 대단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일단 관점이 다 다르네? 완전히 다 달라요. 그리고 방법도 다 다양하고. 일단 내가 기대하고 했던 것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네 번 째 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데이터로...

(네 번째 조인 권영재, 김민지, 양기영이 깜짝 놀라며 웃음)

이교사: 경제적인 데이터로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다른 조도 굉장히 놀라워요. 첫 번째 조도, 어떤 질병, 병리적으로 우울증과 자살,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느낌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관점 그 자체는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학업이나 공부, 그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놀라운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나? 이것에서부터 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은 부분은 아주 놀라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조는 조건을 분석하는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조건의 차이, 그것을 통해 나이에 따라 사회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그 부분 분석한 거 아주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그 조는 나의 문항 출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 수고 많았어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 2014. 6. 14. “2학년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시간에

(3) 영재캠프

2학년과 3학년 모두 15차시로 편성되는 영재캠프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이 학문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영재캠프는 체험활동, 인성교육 등에 주안점을 둔다. 프로그램은 리더십 함양과 사회현상 탐구 등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어떠한 영재캠프를 체험하고 있을까? 2학년 과정의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과 3학년 과정의 "사회현상 탐구 실습 프로그램"을 들여다본다.

가.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2014년 4월 5일(토), 유교사는 2학년 과정 영재캠프인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차시인 오전 9시, '인재고등학교' 3층 회의실에서 "영재 리더십 캠프"가 시작되었다. 유교사는 "영재와 리더십의 이해 및 의사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영재와 리더십의 이해",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십(followship)의 자세", "팀 구분과 역할 정하기", "팀별 소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2차시에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1부"를, 3차시에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2부"를 체험한다.

<표 Ⅴ-4>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진행 순서

차 시	장 소	활 동
1차시(9:00~10:40)	회의실	영재와 리더십의 이해 및 의사소통 : 리더십의 이해, 리더십과 팔로십의 자세, 팀 구분과 역할 정하기, 팀별 소개 프로그램
2차시(10:50~12:30)	체육관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1부 : 서클 전환하기, 홀라후프 연결하기, 구슬 나르기, 팀별 손잡고 술래잡기

3차시(13:20～15:00)	체육관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2부 : 킨볼(Kinball) 협동게임, 인간 매듭풀기, 모두 함께 일어서자, 핵폐기물 운반

1차시 수업이 진행되는 '인재고등학교' 회의실 벽면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마하트마 간디", "알버트 아인슈타인",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빌 게이츠"의 액자가 걸려있다. 각각의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던 유교사는 "지식채널e"의 "「눈물의 룰라」 1～2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힘겨운 어린 시절과 대통령 당선 후의 리더십, 퇴임 후의 평가까지 그의 인생 드라마와 정치 역정이 담긴 내용이었다. 컴퓨터 음향 효과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과 자막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영상이 상영된 십여 분간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학생들은 깊이 몰입하였다. 양은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한다.

> 그 부분 있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한 말이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 이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
> - 2014. 4. 5. 양은미와의 인터뷰에서

"영재와 리더십의 이해" 강의가 마무리되자, 유교사는 한 조에 여덟 명씩 학생을 나누어, 다섯 팀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하드보드지와 매직펜으로 팀보드를 만들며 팀명과 팀 구호, 팀 규칙을 정하였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2학년 학생들은 각 반에 20명씩 두 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Dream High", "스타카토", "Two Plus One", "BOUNCE", "팔면조" 팀에는 서로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았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한 학생들은 함께 팀명과 구호를 정하면서 친구가 되어간다.

박재현: 팀 이름을 뭐로?

안효승: 짧고, 간단하고, 쉬운 걸로.
모수현: (웃음) 오글거리는 거 말고!
차연우: 조로 끝나는 말로 쓰자.
김민지: 너무 어색하지 않아?
권영재: 칠면조 어때?
(모두 웃음) 하하하
우아란 : 팔면조로 하자! 우리 얼굴이 여덟 개니까!
(모두 웃음) 하하하
- 2014. 4. 5.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수업시간에

오전 10시 50분, 학생들은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1부”를 체험한다. “팀원 친밀감 형성 게임”으로, “서클 전환하기”, “훌라후프 연결하기”, “구슬 나르기”, “팀별 손잡고 술래잡기”로 구성되었는데, “구슬 나르기”는 조별로 연결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구슬을 옮겨 상자 안에 골인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중간에 구슬을 떨어뜨리면 구슬을 주워서 다시 연결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옮기는 것보다 중간에 구슬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 간의 협동심이 배양됨은 “팔면조”의 활동과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사진 Ⅴ-1>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구슬 나르기’

양준석: (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으악! 정말 미안해!
(모두 웃음) 하하하
유교사: 자기 팀 문제해결은 다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죠~
안효승: 꼭 겹쳐서 연결하기!
박재현: 단단하게!
양준석: (구슬을 굴리며) 시작~
안효승: 안돼안돼! 너무 급해!
우아란: 천천히! 천천히!
차연우: 조금 더 기울여!
박재현: 맨 끝에는 너무 내리지 마!
양준석: 골인~!
(모두 부둥켜안고 뛰면서 웃음) 아하하하
- 2014. 4. 5.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수업시간에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20분부터 3시까지 "문제해결 및 협동심 배양 프로그램 2부"가 진행된다. "킨볼(Kinball) 협동게임", "인간 매듭풀기", "모두 함께 일어서자", "핵폐기물 운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간 매듭 풀기"는 팀원들이 서로 바라보며 원형으로 손을 잡은 후, 손을 놓지 않은 상황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원형을 다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팀별로 해결 방법을 구상하면서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매듭을 풀려다가 팀원들이 여러 겹으로 꼬여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은 "스타카토" 팀에 유교사는 "보너스 점수"를 준다. 리더십 캠프에서의 체험에 대해 묻자, "스타카토" 팀원들은 이렇게 답한다.

연구자: 오늘 한 여러 활동 중에 가장 즐거웠던 게 뭐예요?
김연주: 손으로 매듭 푸는 거요. 아침에 이름도 모르던 애들인데, 친해졌어요.
장지혜: 우리 구호! 시~작! (다같이) 통.통.튀.는.스.타.카.토!
(모두 웃음) 하하하
구효성: 우리는~ 인문사회!

(모두 웃음) 하하하

- 2014. 4. 5.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수업시간에

<사진 Ⅴ-2> 2학년 영재캠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인간 매듭 풀기’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과 처음 만나 “손으로 매듭 풀기”를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우리”가 함께 “인문사회” 영재임을 확인한다. 체육관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한다.

> 아무래도 강의로만 듣는 리더십과 현장에서 체험하는 리더십은 다르죠. 강의만 하는 건 애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좀 전에 한 학생이 묻더라고요. 여기 고등학생 돼도 이렇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냐고...
>
> - 2014. 4. 5. 유교사와의 인터뷰에서

나.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100초 영화제’”

2014년 8월 9일(토), “3학년 영재캠프”인 “사회현상 탐구 실습 ‘100초 영화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UCC제작”이 진행되었다. 이교사는 학습 목

표로 “사회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쟁점을 명료화할 수 있다”, “탐구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100초 내외의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팀원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른다”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1차시에 “조 구성 및 기획”을, 2차시에 “촬영”을, 3차시에 “편집 및 발표”를 체험한다.

<표 Ⅴ-5> “사회 현상 탐구 실습: 스마트폰을 활용한 UCC 제작” 진행 순서

차 시	장 소	활 동
1차시(9:00～10:40)	도서관	조 구성 및 기획 : 주제, 표현형식, 대본
2차시(10:50～12:30)	도서관 및 교내	촬영 : 콘티 작성, 촬영 및 녹음
3차시(13:20～15:00)	컴퓨터실	편집 및 발표 : 무비메이커, 상영회, 평가

오전 9시 10분, 이교사는 “동영상, UCC의 예”로 “뉴스 보도 영상”, “EBS 지식채널e”, “공익광고와 기업 이미지 광고”,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유튜브: 레밀리테러블”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영상이 특정한 주제로 제작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 “풍자”, “학교생활”, “입시” 등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담아내는 동영상으로 “100초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교사: 오늘 할 것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동영상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나 주제나 혹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스마트폰을 활용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세상이 온 거죠. 오늘의 학습목표는 그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실습을 발표하는 거죠. 탐구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 여러분의 목표는

장편 동영상이 아니에요. 100초 동영상. 영화 상영될 때 이런 걸 100초 영화제라고 하죠.

학생들: (웃음) 아하하

이교사: 팀원 간의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리더십도 키우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오늘 주제를 조별로 잡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한 입장, 풍자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학교생활, 입시와 관련된 걸 표현할 수 있겠고, 그냥 재미로 하면 안 되죠.

학생들: (웃음) 네~

이교사: 그 다음에 작품의 규격은 권장사항은 100초고요. 최소 30초예요. 지금 9시 4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탐구 주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 형식 결정하고, 대본 작성할 거예요. 자료는 도서관 책과 인터넷, 사진, 음악 등. 약속을 해요. 만약에 배우가 필요할 경우에 다른 팀에서 빌려올 수 있게. 품앗이!

학생들: (웃음) 아하하

이교사: 10시 40분에 끝나잖아요? 11시에 만날게요.

- 2014. 8. 9.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수업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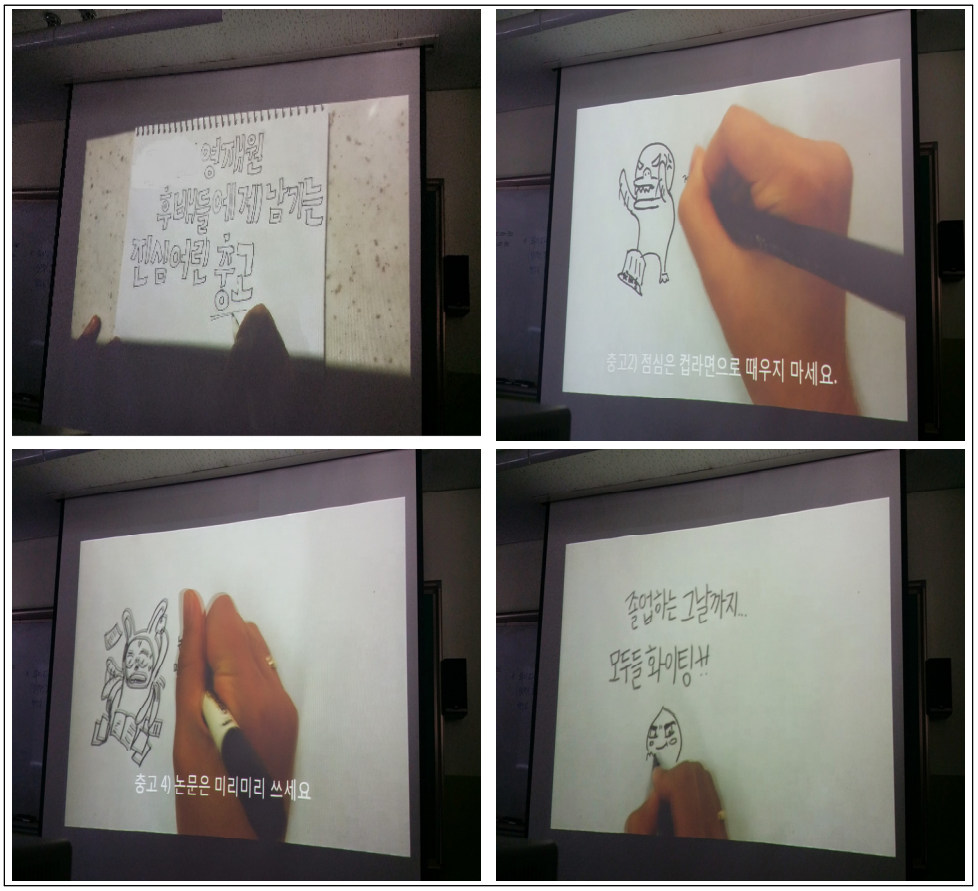
<사진 Ⅴ-3>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100초 영화제’ 동영상 촬영

오전 11시에 시작된 2차시에는 각 조별로 “촬영”이 이루어진다. “대본”의 글 자료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콘티”를 작성한다. “콘티”를 바탕으로 촬영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 안에 “영상 및 음향 자료”를 수집한다. 각 조별로 교실, 운동장, 복도, 화장실, 편의점 등에서 촬영을 진행한 학생들은 오후 1시 20분, 컴퓨터실에 모여서 “동영상 편집”을 수행한다. 3차시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무비메이커(Microsoft Windows Live Moviemaker)”로 “편집”을 한다. “제목”과 “자막”, 그리고 “배경음악”을 넣고, “엔딩 크레딧”으로 동영상 편집을 완료한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고, “100초 영화제”가 시작된다.

이교사: 자, 100초 영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 (웃으며) 와아아아~ 영화제예요, 영화제!
이교사: 첫 번째 작품은 “You Really Got Me”! 팀원은 모주형, 엄성용, 이경윤, 김재근, 이윤주입니다.
학생들: (웃으며) 와아아아~
- 2014. 8. 9.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수업시간에

모주형 조의 “You Really Got Me”를 시작으로, 구아인 조는 입시 전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좌절과 불안을 주제로 한 “계단의 끝”을, 박경민 조는 같은 학급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과 화해를 다룬 “너와 같은 반이어서 행복해”를, 안지환 조는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의 취업 관련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의 고충을 담아낸 “어느 대학생의 힘든 명절”을, 엄지현 조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암기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다루는 “철학 귀신”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은수 조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후배인 2학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종이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낸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후배들에게 남기는 진심 어린 충고”를 상영한다. 사진 속 “충고 2)”는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지 마세요”, “충고 4)”는 “논문은 미리미리 쓰세요”이다.



<사진 Ⅴ-4> 3학년 영재캠프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후배들에게 남기는 진심 어린 충고" 상영

모든 학생의 환호와 감탄 속에 "100초 영화제"가 끝나자, 이교사는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의 탐구 실습" 수업을 마무리한다. 영화 제작은 "전문가"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재원 학생들은 이것을 "너무 잘해냈다." 이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좋은 추억"을 남기고, "좋은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은 서로가 "멋지다"는 것을 알아간다.

이교사: 소소한 교훈을 하나 얻네요. 끝까지 지켜보니까 좋은 작품

나오죠? 영화 제작은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는 거지, 아마추어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오늘 경험 좋은 추억이 될 거고, 앞으로 더 좋은 표현 방법을 익혀서 좋은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기를 바라요.

학생들: (모두 박수를 치며) 네~ (서로 바라보며) 멋지다, 그치?

- 2014. 8. 9. "3학년 영재캠프: 사회현상 탐구 실습" 수업시간에

이은수 조의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후배들에게 남기는 진심 어린 충고"는 2014년 11월 22일에 있었던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제 6회 수료식"에서 2~3학년 영재원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다시 상영되었다. 수업은 종료되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100초 영화제"의 여운은 길게 남는다.

(4) 연구과정

가. 운영 일정

2학년과 3학년에 모두 10차시로 편성되는 연구과정은 대략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팀별 논문제작과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관심과 흥미를 공유하는 학생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연구주제를 결정한다. 학생들은 연구과정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학년별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선보인다. 2학년과 3학년의 연구과정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표 Ⅴ-6> 2014학년도 연구과정 운영 일정

	일 정	2학년	3학년	활 동 내 용
1	전문 과정 분반 및 개인연구계획서 제출	3.29(토)	3.29(토)	○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3개의 전문 과정(정치경제, 철학인문, 역사지리) 중 1개 분야를 선정 ○ 개인 연구 계획서 작성

	일 정	2학년	3학년	활 동 내 용
2	연구과정 안내 및 연구팀 구성	6.14(토)	4.12(토)	○ 연구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자료탐색방법 강의 ○ 개인 연구 계획서를 토대로 한 연구팀 구성 ○ 팀별 연구 주제 선정 및 팀 연구 계획서 작성
3	지도 교사 선정	6.14(토) ~7.11(금)	4.12(토) ~5.16(금)	○ 연구 팀 구성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지도교사 선정 ○ 팀 연구 계획서를 각 팀별 지도교사에게 e-mail로 제출
4	1차 대면 지도	7.12(토)	5.17(토)	○ 팀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지도교사와의 면담(연구 주제 확정 및 연구 방향 설정) ○ 팀 연구 계획서 검토, 보완 및 논문 작성
5	연구논문 작성 활동	7.12(토) ~8.22(금)	5.17(토) ~7.11(금)	○ 지도교사의 지속적 지도를 받으며 논문작성 활동 수행(선행연구 조사, 실험 설계 및 실시, 결과 분석 등)
6	2차 대면 지도	8.23(토)	7.12(토)	○ 연구 활동에 대한 논문 초안을 지도교사에게 제출 ○ 논문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 활동 진행
7	3차 대면 지도 및 3학년 연구 발표대회 참관	8.30(토)	8.23(토)	○ 연구 활동에 대한 논문 수정안을 지도교사에게 제출 ○ 논문 수정안에 대한 수정, 보완 활동 진행 ○ 3학년 연구발표대회 참관 및 강평 활동
8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8.30(토) ~10.16(목)	8.23(토) ~8.28(목)	○ 지도교사의 지속적 지도를 받으며 논문 최종안 완성 ○ 영재교육담당에게 논문 최종안 제출

	일 정	2학년	3학년	활 동 내 용
9	4차 대면 지도 및 연구 발표대회 진행	10.18(토)	8.30(토)	○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논문 발표 준비 ○ 완성된 논문에 대한 발표대회 실시 및 발표 심사 진행
10	논문 심사 및 우수논문 선정	10.17(금) ~10.19(일)	8.29(금) ~8.31(일)	○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서류 심사 진행 ○ 서류심사 결과와 발표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우수논문 선정
11	우수논문 시상	11.22(토)	11.22(토)	○ 수료식에서 연구과정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

출처: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서

앞서 전문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들은 "정치/경제/사회", "철학/인문", "역사/지리" 과정 중 희망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과정 수업을 듣는다. 각각의 전문과정에 근거한 각 과제 연구팀이 연구주제를 선정하면, 해당 분야의 지도교사와 함께 과제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와 중간 결과물을 포함한 모든 결과물(포트폴리오)을 제출한다. 연구팀은 연구논문 발표대회 전까지의 모든 자료와 결과물을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연구과정에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14년 8월 30일(토), 전문과정에서 만난 친구들로 구성된 2학년 연구팀 "노 스페이스(no space)"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를 주제로 선정하고, 컴퓨터실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외국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고급화 전략", "간접 광고"는 한국 청소년의 "과시 소비"를 자극한다. 소속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노 스페이스" 팀은 도서관 컴퓨터로 논문과 자료를 더 찾아보려 한다.

권영재: 과시적이잖아, 그게. 남의 시신경을 자극하잖아. 네가 메일로 보내준 거에 있어.

김민지: 응. 아까 노스페이스는 약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산 이런 거 중심으로 이름도 히말라야고 그렇잖아. 그런 이미지같은 게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권영재: 노스페이스는 약간 과시적인 면이 강해서. 네가 그런 거 쓰고.

김민지: 너는 간접광고. (자료를 짚어가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권영재: 고급화전략 이론적 배경은?

김민지: 아, 그거는 내가 찾은 논문에 몇 개 있기는 했는데, 그게 구체적이지는 않아.

권영재: 과시소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넣어야 돼.

양기영: 과시적 소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권영재: 어, 그것도 같이 보내줘. 그걸 읽을 때 간접광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 과시소비랑 연결을 못하는 거 같아. 계속 과시소비를 언급을 해야지 일관성이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지: 그럼 일단 고급화전략 논문을 더 찾아보고, 그 이론적 배경을 좀 해볼게.

권영재: 그럼 자기가 맡은 부분은 다 하는 걸로. 그리고 설문지를 각자 보내줬잖아.

김민지: 일단 자기 반이라도 하는 걸로. 설문지는 다음 주부터 돌려야겠다.

권영재: 근데 혹시 노스페이스나 뉴발란스 매장은 안 가봤잖아? 거기 사진같은 거 붙어있잖아.

김민지: 사진 찍는 거 안 될 수도 있잖아.

권영재: 저희가 홍보하러 왔어요. 그러면 되잖아. 파워 블로거들이. (모두 웃음) 하하하

양기영: 설문조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돼?

한주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권영재: 보낼 수 있지? 이번에는 메일로 보내. (웃음) 그 다음에 내가 보내주고 결론 및 제언은 내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쓰자. 그럼 일단 컴퓨터 비었나? 일단 논문 좀 찾아보고, 각자 쓸 거 있으면 쓰고, 아니면 책 좀 찾아봐도 되지 않나?

김민지: (컴퓨터) 비었다. 가자.

- 2014. 8. 30. 2학년 연구과정 시간에

나. 연구논문 발표대회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연구논문 발표대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리더십과 창의성을 계발한다." 셋째, "지도교사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성숙한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른 연구자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과정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연구과정은 팀 구성에서부터 연구주제 선정, 연구진행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의 영재성을 가장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팀별 지도교사들의 지도와 조언 아래 2학년 총 12개, 3학년 총 11개 팀이 참여하여, 5개월 동안 공들인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교사의 표현처럼,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1년 동안 활동의 대단원"이다.

(가)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2014년 10월 18일(토),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시작되었다. 각 연구팀은 발표 하루 전날인 10월 17일(금) 정오까지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게시판"에 연구논문 최종본을 올렸다.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까지 2학년 연구팀들은 교실과 도서관 등에서 연구논문 발표를 준비하였다. 오후 1시 30분, “시청각실”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시작되었다. ‘인재고등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들”에게 “개회사”를 한다.

> 부모님들께서는 와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시면, 짜릿한 전율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영재원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주는 행동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3월부터의 긴 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야 말로 앞으로 영재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2014. 10. 18.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2학년 12개 팀의 연구논문 발표가 시작되었다. 각 팀당 발표시간은 “15분”이다. 6개 팀이 발표를 하고, 쉬는 시간 후 나머지 6개 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일곱 번째로 발표를 하는 “노 스페이스”팀의 연구 주제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주로”이다. 양기영은 “서론”의 “연구 주제”, “동기”, “필요성”, “연구 방식”과 “이론적 배경”을, 한주아는 “청소년 모방심리와 활용”을, 김민지는 “고급화 전략과 마케팅 분석”을 발표하였다.

권영재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주로”에서 “설문조사와 결론” 부분을 맡았다. 우선 “설문조사”의 목적과 진행 절차,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마케팅 전략”과 “청소년의 소비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서울시 중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저는 다음으로 설문조사와 결론 부분을 맡은 권영재입니다. 먼저

저희가 설문조사를 왜 했고, 또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페이스의 뉴발란스의 마케팅 전략을 앞에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청소년의 소비 가치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10개 문항으로 리커트 척도라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서울시의 중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략)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10개 문항 중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개 문항만 보여드렸습니다. 문항 1번은 TV 속 연예인의 옷을 보고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즉 간접광고의 영향을 평가한 문항입니다. 문항 2번은 나는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신경을 쓴다. 즉 또래 집단의 영향을 평가한 문항입니다. 이 두 문항 모두 동조심리에 대한 문항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 2014. 10. 18. 2학년 “노 스페이스”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사진 Ⅴ-5> 2학년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발표

설문조사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조심리적 특성”이 훨씬 강하고, 청소년들이 상품을 소비할 때 “희소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조소비와 과시소비”를 자극한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간접광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이를 통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조심리적 특성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 7번은 노스페이스의 최근 인기 하락을 그 희소성과 관련지어서 낸 문항인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꽤 높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희소성을 소비할 때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동조소비를 평가했던 문항은 1~3번, 그리고 과시소비를 평가했던 4~7번에서 모두 과반수에 가까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동조소비와 과시소비를 자극한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필요한 과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간접광고는 여학생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고급화 전략 중에서도 희소성을 강조한 전략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 – 2014. 10. 18. 2학년 “노 스페이스”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권영재는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발표한다. “외국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스페이스”나 “뉴발란스”처럼 청소년들의 소비행동을 “자극”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자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 성공”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기업”의 이미지이다. 동시에 우리는 청소년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는 “청소년 소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주 내용은 외국 기업이 청소년 시장에서 유행을 일으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스페이스나 뉴발란스와 같이 청소년들의 소비 행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자극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관념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기업의 이미지가 장기적 성공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청소년 소비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노스페이스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 10. 18. 2학년 "노 스페이스"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나)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 선거의 선출요인 탐색"

2014년 8월 30일(토),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까지 3학년 연구팀들은 교실과 도서관 등에서 연구논문 발표를 준비하였다. 오후 1시 30분, "시청각실"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시작되었다. 아홉 번째로 발표를 하는 "일렉션(Election)"팀의 연구 주제는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 선거의 선출요인 탐색"이다. 구다인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문제", "이론적 배경"을, 김두한은 "양적 연구 결과"를, 안효민은 "질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 부분을 맡은 이지홍은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가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한다. 설문조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생각"만 알 수 있고, "당선과 낙선"의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네. 이제 드디어 저희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의 한계점은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가 서로 반대된

다는 것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임원 선출요인이 실제의 선출요인과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까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만 알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심층면접은 학생들의 깊은 심리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달랐다고 생각했고, 또한 당선과 낙선의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출요인의 정의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 2014. 8. 30. 3학년 "일렉션"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이지홍은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발표한다. "청소년의 투표 행태"는 "성인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매우 비슷하다. 성인 유권자는 "학연, 지연" 등으로 "감성적 투표 행태"를 보이는데, 학생들도 "인맥" 등을 따진다. 동시에 어른들과 학생들은 후보자의 "능력"도 중요시한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이 "바람직한 기준"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청소년들의 투표 행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성인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인 유권자들은 감성적 투표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학연, 지연, 지역 출신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맥 등을 따졌습니다. 또한 학생들 중에서는 능력과 공약을 많이 중요시했는데, 어른들도 능력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미래 유권자들이 바람직한 기준으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렉션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 8. 30. 3학년 "일렉션"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특징

2013년 12월 26일,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6명과 남학생 14명이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되었다. 2014년 3월 22일(토) 개원식을 시작으로, 11월 22일(토) 수료식까지 2학년은 총 50차시 100시간, 3학년은 총 47차시 94시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공통과정인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시간에 “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보드게임”을 만들어보고, 전문과정 “경제정보의 수집과 활용” 시간에는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해 수치나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영재캠프인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으로 2학년은 “문제해결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을 체험하고, 3학년은 “사회 현상 탐구 실습”을 통해 “100초 영화제”를 제작하여 상영한다. 연구과정인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2학년 “노 스페이스” 팀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주로”를, 3학년 “일렉션” 팀은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 선거의 선출요인 탐색”을 발표한다.

이러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지, 그리고 공통과정, 전문과정, 영재캠프, 연구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짚어낼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학생 선발 방식의 풍토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중학교 1학년생은 여학생 26명, 남학생 14명으로 총 40명이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 운영 계획서”에 의하면, 영재 학급은 “각 학년별 2학급, 총 4학급”으로 구성되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전형과 영재교육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자로 선발한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 및 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Ⅴ-7>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 및 일정

단계	주관 기관	선발 과정	선발 방법 및 일정
1, 2차 전형	단위학교	학교장 추천	○ 해당 중학교의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한 학생
3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	○ 모집 인원수의 1.5배수 선발 ○ 일반능력(논리성, 표현력, 이해분석력 등) 검사, 창의성 검사, 특수학업 적성 검사(인문, 사회 영역에 대한 적성 검사) 등
4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인성 및 심층 면접	○ 모집 인원 선발 ○ 인성, 리더십, 창의성, 표현력, 인문사회적 지식 등
5차 전형	'인재고등학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선정 및 적격 여부 심의, 예비합격자 순위 및 적격 여부 심의 ○ 최종합격자 중 부적격자 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 선발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의 1~2차 전형은 "단위학교", 즉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3~5차 전형은 '인재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인재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3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 4차 전형은 "인성 및 심층 면접", 5차 전형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다양한 선

발 방식이 적용되지만, 단위학교에서 주관하는 1~2차 전형은 '학교장 추천'으로만 이루어진다. '인재고등학교' 3차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이미 '선택된' 학생들이다. 모집 요강에 제시된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은 이러하다.

<표 Ⅴ-8>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

모집 분야 및 인원	총 40명(인문사회 분야 2개 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	○ 2013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이 탁월하고, 과제집착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발전 가능성이 크고,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할 의지가 확고한 학생 ○ 학교별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영재교육진흥법」 제 5조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 중, 일반지능, 특수 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중 각각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에도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 집착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 높은 학업성취도로 발현되지 않은 "잠재 능력"과 인문사회 분야만을 향한 특별한 "과제집착력"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러한 것일까?

단위학교의 1차 전형은 가정통신문 발송에서 시작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입학지원서를 학교에 내고, 각 담임교사는 순위를 매겨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2차 전형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시험 성적이나 교실에서의 수행

정도로 지원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한다. 결국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이라는 영재의 특성을 가진 학생이라도 시험 성적이 밀리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전교 최상위 등수 안에 드는 ‘모범생’이다. 다른 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분야 40명, 수학논리 분야 40명, 과학탐구 분야 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2014학년도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신입생 선발 요강’에 의하면, 1차는 서류 전형으로, 2차는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전형에 제출되는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담당교사가 직접 작성한 교사 추천서”이다. 2015학년도 선발 요강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6학년생 40명을 선발하는데, ‘2014학년도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 선발 공고’에 따르면 1단계는 ‘학교장 추천 서류 제출’로, 2단계는 ‘영재성 검사’로, 3단계는 ‘학문 적성 검사’로, 4단계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와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의 2차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이미 ‘걸러진’ 학생들이다.

과학 분야 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은 수학 분야 20명, 물리 분야 20명, 화학 분야 20명, 생물 분야 20명, 지구과학 분야 20명, 정보 분야 2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의하면, 온라인 지원 후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추천서가 “지원자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사(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지원하는 분과 과목 담당 교사)가 작성하고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추천서”이다. 내신 성적 안에 각 과목별로 할당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만점을 받는다 해서 그것의 탁월함만으로는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취지와 목적은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을 보이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선발하여, 그들에게 인문

사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발 방식은 학생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보다는 '학업 성적'과 '리더십'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교육풍토이자 문화인 것이다.

2) 교육과정의 특징

(1) 공통과정: "주로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를 많이 다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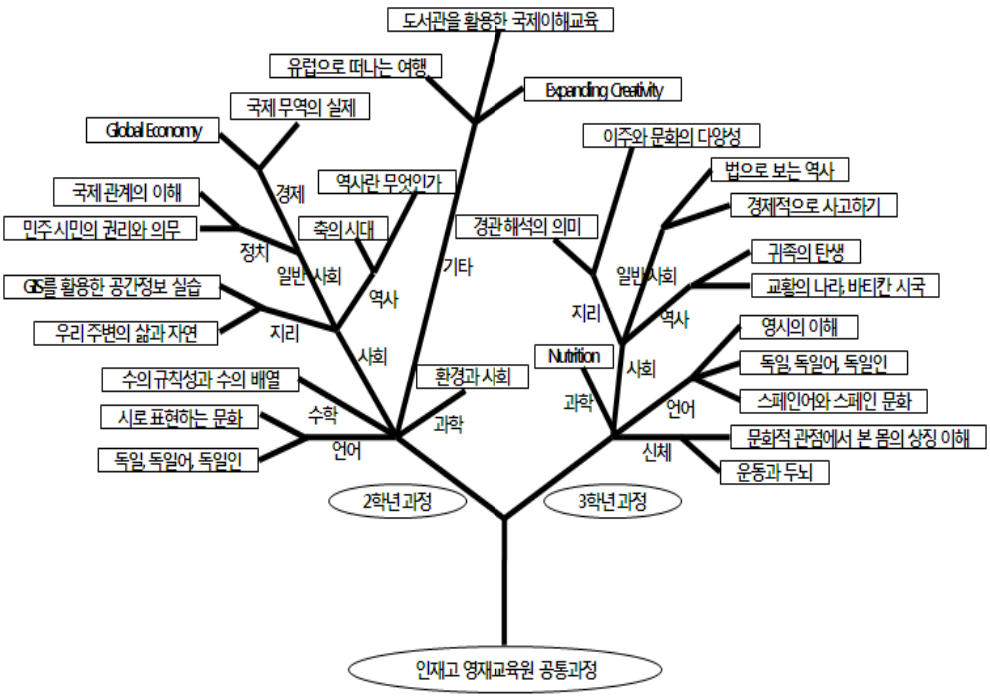
공통과정과 전문과정, 연구과정, 영재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공통과정은 2학년 16차시, 3학년 13차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월에 영재교육원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6월까지 주로 공통과정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주제에 접근한다. 2학년과 3학년 과정의 모든 교사가 각각 한 차시씩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인문사회 영역인 사회와 언어 분야뿐 아니라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얻는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2학년 과정은 사회, 언어, 수학, 과학 분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사회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사회 분야는 일반사회, 지리, 역사로 이루어지고, 일반사회 분야는 다시 정치(예: 국제 관계의 이해,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경제(예: 국제 무역의 실제, Global Economy) 영역으로 나뉜다. 3학년 과정도 역시 일반사회(예: 법으로 보는 역사,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지리(예: 경관 해석의 의미, 이주와 문화의 다양성), 역사(예: 귀족의 탄생, 교황의 나라, 바티칸 시국)로 구성되는 사회 분야에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은 '수의 규칙성과 배열'이나 '환경과 사회', 'Nutrition(영양학)'과 같은 주제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넓히고,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과 '도서관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키워나간다. '시로 표현하는 문화'와 '독일, 독일어, 독일인', '스페인어와 스페

인 문화'로 언어와 인문학을 접하고, '운동과 두뇌', '문화적 관점에서 본 몸의 상징'을 이해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간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영역에의 포괄적인 접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지리과 수업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실습'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삶과 자연'을 돌아보며, '경관'을 '해석'하고 '이주와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 종교가 탄생하고 철학이 시작된 '축의 시대'를 접하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귀족'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교황의 나라'인 '바티칸 시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역사과 수업을 통해 다가간다. 일반사회과 수업으로 학생들은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고, '국제 관계'를 이해해나가며, '법으로 보는 역사'를 통하여 정치적인 견해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사고'하며, 'Global Economy(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의 실제'를 접함으로써 경제의 실체를 파악한다.



<그림 Ⅴ-3>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공통과정

다방면의 다채로운 수업을 제공하는 공통과정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인 전문과정에서 학생들이 '정치/경제/사회', '철학/인문', '역사/지리' 중 어떠한 영역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공통과정은 좀 더 심화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인 전문과정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교양 강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재는 공통과정 수업을 통해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내용"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김민지와 양준석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를 재미있게 다루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자: 공통과정 수업이 도움이 됐나요?

권영재: 많은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독특한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많이 어렵거나 깊이 있는 주제보다도 중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심화해서 공부하는 형식이어서, 쉬워 보이는 내용도 더 깊게 생각해보는 눈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워낙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서 얻어 가는 것도 많았어요.

김민지: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사회, 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볼 수 있었고,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 또, 학교처럼 전 과목을 다 배우면서도 깊이 있는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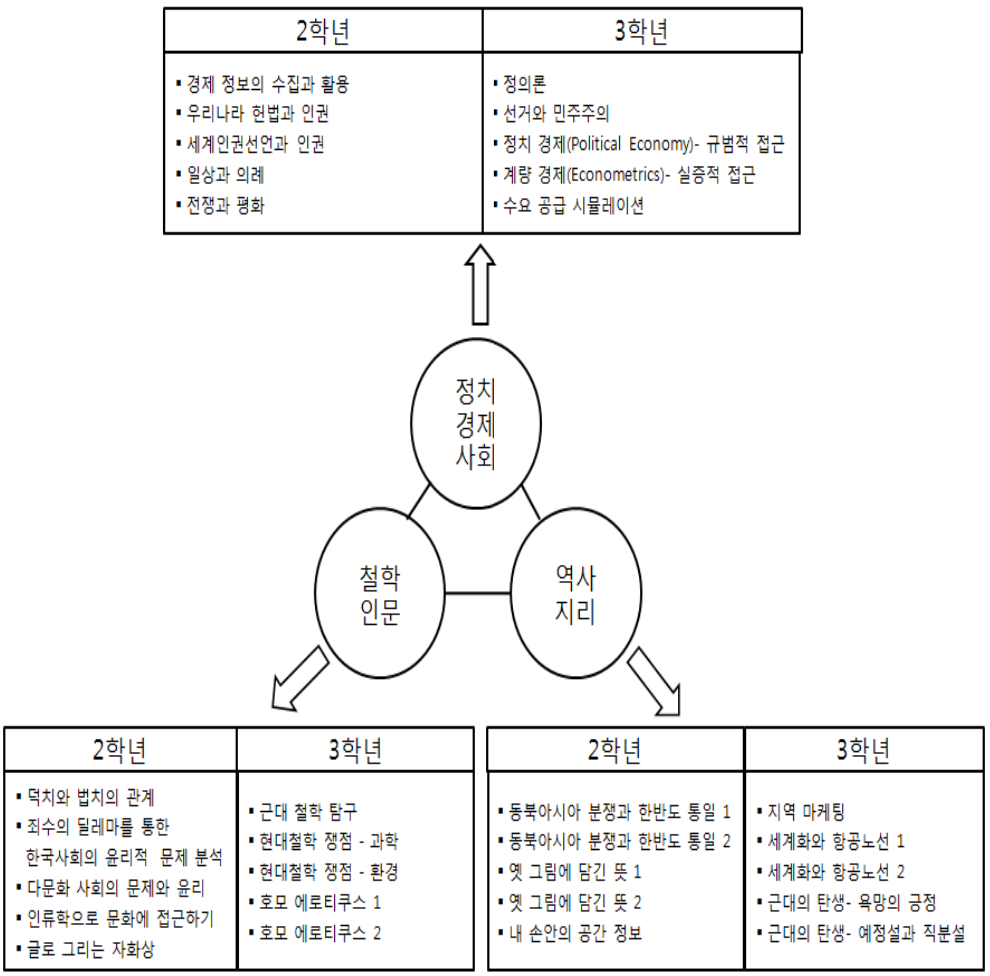
양준석: 공통과정 수업은 주로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2) 전문과정: "저의 관심사와 좀 더 관련 깊은 주제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문과정은 오리엔테이션 및 편성에 1차시, 편성된 3개 분야(정치/경

제/사회, 철학/인문, 역사/지리)별 주제 중심의 수업에 5차시로 운영된다. 1차시에는 각 학년별로 학생 40명 전원이 모여 개인적 연구 주제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관심과 연관되는 전문과정을 선택한다. 그 다음 2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학생이 선택한 정치/경제/사회 분야나 철학/인문 분야, 또는 역사/지리 분야의 수업을 통해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듣는다. 권영재와 김민지는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양준석은 '철학/인문' 분야를 선택하였다.



<그림 Ⅴ-4>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전문과정

연구자: 전문과정에서 선택한 분야가 뭔가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어요?

권영재: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모두 '정치/경제/사회'를 선택했어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공통과정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김민지: 저는 계속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선생님께 자세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진로 직업을 확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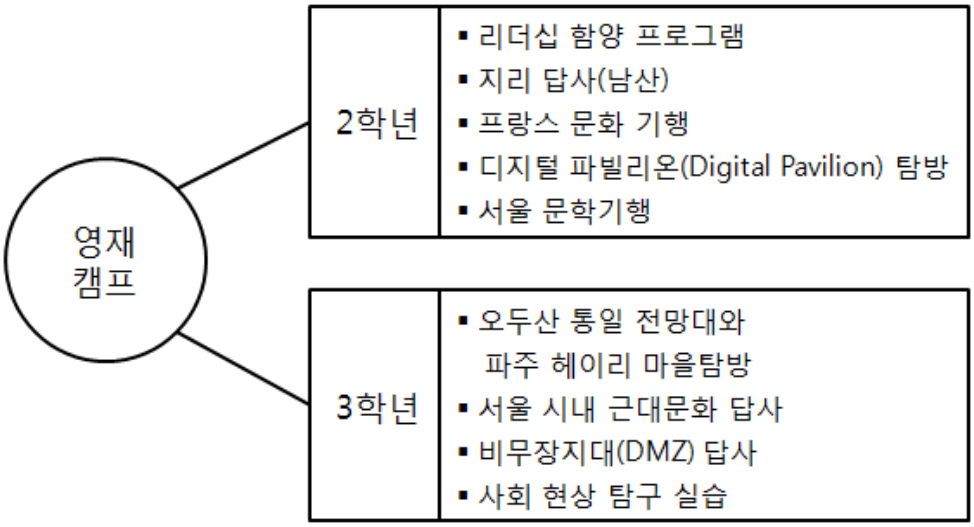
양준석: 저는 2, 3학년 둘 다 '철학/인문' 과정을 선택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사와 조금 더 관련 깊은 주제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자신의 흥미 및 호기심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선택한 2학년생은 "경제 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경제 영역을, "우리나라 헌법과 인권"과 "세계 인권 선언과 인권"으로 정치 영역을, "일상과 의례"와 "전쟁과 평화"로 사회·문화 영역을 익힌다. 2학년 때 이미 전문과정을 체험한 3학년생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규범적 접근"과 "계량경제(econometrics): 실증적 접근", "수요-공급 시뮬레이션"으로 좀 더 심화된 경제 개념을 얻는다.

앞서 살펴본 2학년 전문과정인 "경제 정보의 수집과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도서관 문헌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탐색한다. 도서관, 인터넷 연구 프로젝트가 학생의 강한 흥미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이비스 등(Davis, Rimm & Siegle, 2010, p. 159)의 의견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학생이 직접 선택한 전문과정은 공통과정에 비해 학생 중심 활동이 더욱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 여겨진다.

(3) 영재캠프: “수업에 대한 색다른 인식을 갖게 한 활발한 수업이었어요.”



<그림 Ⅴ-5>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공통과정과 전문과정 수업이 1차시씩 진행되는 것에 비해, 영재캠프는 4차시(오전 9시~오후 4시 50분) 동안 이루어진다. 영재캠프는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과는 달리, 교과학문적인 영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교실에서의 수업보다는 외부활동의 비중이 더 크다. 앞서 살펴보았던 2학년 과정의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체육관에서 진행되었고, 3학년 과정의 “사회현상 탐구 실습 프로그램”은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교내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교사가 진행한 “사회현상 탐구 실습 프로그램: 100초 영화제”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학교나 사회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데 더욱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는 렌줄리 등의 학자가

제시한 귀납적 학습모델과 유사하다(Renzulli, Gentry, & Reis, 2006). 귀납적 학습모델은 형식적인 교실 상황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영화나 비디오 제작 작업 활동 등을 통한 체험 학습은 이교사의 "100초 영화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재캠프는 야외에서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영재캠프를 통해 여러 분야의 체험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단순한 지식 함양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다.

> 연구자: 영재캠프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어요?
> 권영재: 영재캠프는 책으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활동이에요. 특히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 김민지: 영재캠프 수업은 리더십이나 협동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과학이나 지리 같은 평소 별로 관심이 없던 과목도 영재캠프 수업을 통해 체험을 하면서 관심과 흥미가 생겼고, 많은 지식을 쌓은 것 같아요.
> 양준석: 영재캠프 수업은 차분히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야외에 나가서, 또는 학생 중심 활동을 하면서 다소 활발한 수업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업에 대한 꽤 색다른 인식을 주었고,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해줬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4) 연구과정: "처음으로 깊이 있게 저의 관심사를 탐구해본 경험이었어요."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연구과정이다. 그래서인지 2014학년도 연구과정은 전년도에 비해 2차시가 늘어난

10차시, 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자유 연구를 하고,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학년과 3학년 모두 연구과정은 연구팀 편성에서부터 연구논문 발표대회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가시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연구 과정이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기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와 관심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팀을 조성하면, 그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지도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연구과정과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정교하게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연구 주제를 정리해본다.

<표 Ⅴ-9>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1	임○○	이○	성공사례로 본 비프랜차이즈의 성공	이교사
2	오○○	김○○	조선시대 여인들의 신분에 따른 화장법과 의복	유교사
	유○○	이○○		
3	양○○	이○○	성균관 유생들의 일상과 정치 참여	이교사
	정○○	이○○		
4	고○	양○○	풍자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본 프랑스 혁명	허교사
	이○○	경○○		
5	박○○	이○○	학생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	박교사
	김○○	문○○		
6	박○○	조○○	이화학당에서 이화여대까지 : 근현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김교사
	송○○	오○○		
7	권○○	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주로	서교사
	한○○	양○○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8	고○○	정○○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형법개정안 변화에 대한 고찰 : 심신장애 감경불가를 중심으로	김교사
9	공○○	김○○	원작과 각색 작품의 관계에 대한 선호도와 작품 제작 방향	곽교사
	안○○	·		
10	이○○	이○○	웹툰에 관한 청소년의 실태, 인식, 다른 매체와의 관계 조사	이교사
11	이○○	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이를 통해 알아본 역사적 리더들의 속성 및 현대적 의의	조교사
	고○○	·		
12	이○○	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악성 댓글로부터 받는 영향의 관계 분석	김교사
	한○○	·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흥미와 호기심이 서로 다른 연구팀들의 주제는 천차만별이다. 경제와 경영에 관심을 갖는 1번 팀은 "비프랜차이즈의 성공사례"에서 "성공 방안"을 찾아내고, 7번 팀은 "한국 청소년"을 겨냥하는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다. 일상 속 학교 문화를 탐구하려는 5번 팀은 "학생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짚어내고, 10번 팀은 청소년이 "웹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며, 12번 팀은 "자아존중감"과 "악성 댓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낸다. 법에 흥미를 느끼는 8번 팀은 "개정 전 형법"과 "개정 후 형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파헤친다. 12개 연구팀의 주제 중 일반사회과 영역에 해당되는 6개 주제 외에도 역사와 철학, 국어 영역의 주제로 발표한 팀들도 있다. 그렇다면 3학년 학생들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을까?

<표 Ⅴ-10>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1	한○○	정○○	중학생이 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비전	곽교사
2	오○○	김○○	정몽주에 대한 잘못된 통념 비판	허교사
	조○○	황○○		
3	문○○	정○○	도보여행 성공사례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관악구 역사 도보여행 조성에 대한 연구	이교사
4	이○○	이○○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이상향	김교사
5	김○○	김○○	대한제국 생존전략의 한계와 함의	김교사
	권○○	최○○		
6	권○○	이○○	우리나라 철학교육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철학교육 시스템 :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교사
	이○○	·		
7	김○○	권○○	금지곡으로 본 정치와 대중문화	이교사
8	권○○	조○○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서울 중학생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유교사
	윤○○	박○○		
9	이○○	구○○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선거의 선출요인 탐색	이교사
	김○○	안○○		
10	박○○	권○○	스포츠 구단들을 통해서 본 리더십 연구	김교사
	유○○	·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11	이○○	박○○	학생들의 안전인식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해결방안	박교사
	이○○	김○○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정치를 좋아하는 1번 팀은 "중학생이 본 통일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7번 팀은 "금지곡"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와 대중문화"를 읽어내며, 9번 팀은 "중학교 학급임원선거의 선출요인"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구상한다. 학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8번 팀은 "학교 폭력 정책"의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11번 팀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11개 연구팀의 주제 중 일반사회과 영역에 해당되는 5개 주제 외에도 역사, 지리, 국어, 철학, 체육학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로 발표한 팀들도 있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중 연구과정과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

연구자: 연구과정은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어요?

권영재: 연구과정은 인문사회 영재원 교육과정 전체 중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이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김민지: 연구과정 수업에서 저와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둔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과정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직접 통계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준석: 거의 순수하게 저와 제 조원들의 관심사를 종합한 주제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깊이 있게 저의 관심사를 탐구해본

경험이었어요. 일단 많은 관련 서적들과 영어 기사들도 해석하면서 언어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심사는 문제해결력(창의성 등) 30점, 논리성 20점, 연구의 성실성 20점, 내용 이해력 10점, 발표력(표현력) 2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해결력은 말랜드(Marland, 1972)와 렌줄리(Renzulli, 1979)가 제시한 영재 판단 기준의 '창의성'에 해당하고, 논리성과 내용 이해력은 '일반적 지적 능력(평균 이상의 지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성실성은 렌줄리가 제시한 '과제집착력'에, 발표력은 말랜드가 제시한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연구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향점을 성취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의 연구과정은 전문과정을 체험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구팀을 편성한 후, 팀원들이 함께 논문을 완성하고 발표한다는 점에서 베츠(Betts, 1999)가 주창한 '자율적 학습모형(Autonomous Learner Mode)'과 유사하다. 베츠는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후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키우고, 관심 분야에 대한 조사와 그룹 별 토의를 통해 장기간의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시한다(Davis, Rimm, & Siegle, 2010).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의 연구과정은 연구팀 구성과 자료조사, 논문작성과 발표가 대략 5개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수행되는 독립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프로그램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그곳에서도 영재학생들은 좋은 연구문제나 가설을 설정하고, 문헌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독립적인 연구 과정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논문의 탁월함과 우수함 등으로 평가 받고, 상을 타게 된다[14].

또한 반타셀바스카(VanTassel-Baska)의 연구도 이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가 제시한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 Model)은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주도해 왔는데, 이슈와 테마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간학문적 주제로 연구하는 기회를 준다(Davis, Rimm, & Siegle, 2010)는 것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연구과정과 상당 부분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학년과 3학년 연구팀들의 주제를 보면 정치, 경제, 법, 문화, 사회, 역사, 지리, 국어, 철학 등의 학문이 연구 주제에 융합적, 간학문적으로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정체성

(1) 영재교육의 문화 풍토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공통과정은 인문사회 영역인 사회와 인문 분야뿐 아니라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과정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관되는 '정치/경제/사회', '철학/인문', '역사/지리' 분야의 심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영재캠프는 여러 분야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전문과정은 연구팀 편성부터 연구논문 발표대회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인문사회 영역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자유 연구를 하고,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는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보다 프로젝트 학습과 탐구학습, 토론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그리고, 인문사회

14)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Gifted Education Programme(http://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gifted-education-programme) 참조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예술영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주로 레슨과 연습, 작품 제작과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는데(김용희, 2010; 이미경, 2010; 백경미, 2012; 김용희, 2013; Haroutounian, 2007; Worley, 2007), 예술영재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예술영재의 특성은 비학업 영역에 해당하므로, 예술영재 교육과정은 학문 분야 영재교육에 비해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기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악영재는 높은 지적 능력보다는 높은 음악적 표현 특성을, 미술영재는 높은 시각적·공간적 능력을, 무용영재는 높은 무용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업 영역에 속하는 과학, 수학영재에게는 어떠한 수업이 제공되고 있을까?

과학 영재교육원은 보통 수학 분과, 물리 분과, 화학 분과, 생물 분과, 지구과학 분과, 정보 분과로 분류된다. 유경재 외(2012)에 의하면, 과학, 수학영재를 위한 과학영재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 경험과 프로젝트 제작'이 명시된다. 이는 영재교육과정 구성 방침에서 '학생 스스로 탐구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 강조된다는 점이 과학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영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실험보고서'와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이고, 그래서인지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관찰', '체험', '실험', '실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으로 제시된다(유경재 외, 2012).

이처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된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학습 모형이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안내하고 보조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과는 매우 다르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 학습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세워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모형이다.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들은 복잡한 실제 상황의 문제를 협동을 통하

여 해결해나간다. 교사 주도적인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간다는 점이 강조된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시되는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각각 다른 분야인 과학 영재교육원과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영재교육에서 시작되고 형성된 교육정책과 문화풍토가 그대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에서도 관찰된다.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 교육과정의 특성은 '문제 중심-프로젝트 중심 학습', '주제 통합적 접근', '언어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멀티미디어-첨단 매체의 활용'이다. 학사일정을 보면, 거의 모든 수업은 '영역별 주제 교육'으로 진행된다. 문제 중심-프로젝트 중심 학습이나 멀티미디어-첨단 매체 활용을 통해 수업마다 제시되는 주제에 관하여 탐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15]. 그러나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학습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이론과 지식 체계의 전달도 중시하는 곳이 있다.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공통과정)'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전공과정)'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은 '창의적 활동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심화과정은 '탐구방법 및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1학년생들에 제공되는 기초과정 수업은 '문학적 통섭의 기초', '역사학의 기초', '철학의 기초', '정치학의 기초', '경제학의 기초', '사회학의 기초', '법학의 기초', '지리학의 기초', '독서토론의 기초' 등으로 이루어진다. 2학년생들이 듣는 심화과정 수업이 '문학적 통섭의 심화', '정치문제', '정책 탐구', '사회문제', '모의재판', '언론 탐

15)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giftedewha.or.kr) 참조

구' 등으로 진행되는 것에 견주어 보면[16], 2학년이 되어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심화하기에 앞서, 1학년생들에게는 기초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3단계 교육법'도 이와 유사하다.

1996년에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이다. 이곳에서는 신입생 선발 인원을 165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소수정예 영재교육'을 표방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영재교육원'에 해당한다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영재학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1~3학년 전교생은 457명인데, 학기마다 개설되는 수업은 무려 250과목에 이른다. 학생들은 학년이나 계열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한다. 정규 과목 대신 개별 탐구활동이나 학생의 개별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족사관고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중점을 두지만, 교육과정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사관고 교육과정의 운영 특징은 '3단계 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단계 교육은 '강의학습(teaching/lecture)-토론학습(discussion/debate)-사사학습(writing/tutoring)'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이론과 지적 토대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들으며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방식과 비판의식을 함양한 후에, 개별 사사학습을 통하여 완전학습에 이르게 하는 것[17]이 민족사관고 3단계 교육법 운영의 취지이다. 인천국제고 영재교육원과 민족사관고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토론, 탐구학습이 아니라, 체계적 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다.

최호성(2014)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창의성・인성・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늘어나면서 수・과학, 인문사회, 예술, 발명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형, 주제형, 체험학습형의 교육 자료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

16)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 홈페이지 (http://iigc.icehs.kr) 참조
17) 민족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minjok.hs.kr) 참조

다(최호성, 2014).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교과 내용 중심으로부터 자기 주도적이고 탐구지향적인 수업으로 다양화되었는데, 그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수업, 창의성 신장과 협동학습 등을 증진하는 수업 실천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프로젝트형, 탐구형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영재교육의 주류문화일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목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유경재 외, 2012).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영역별 영재의 특성은 다르다. 각 영역별 영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걸맞은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재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영재들의 개인적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수 환경을 제공하였을 때, 학습목표의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과학, 수학 영재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실험 및 프로젝트 중심의 영재교육 문화가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태생적으로 가시적 산출물을 단시간에 보여주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학, 수학, 음악, 미술이 ‘눈에 보이는 창의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Big-C에 해당한다면, 사회는 ‘어떠한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비가시적인 little-c에 해당한다. 인문사회 영재에게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관한 심도 있는 지적 토대이다.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인문사회 영역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성이 담긴 인문사회 영재교육 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2) 사회과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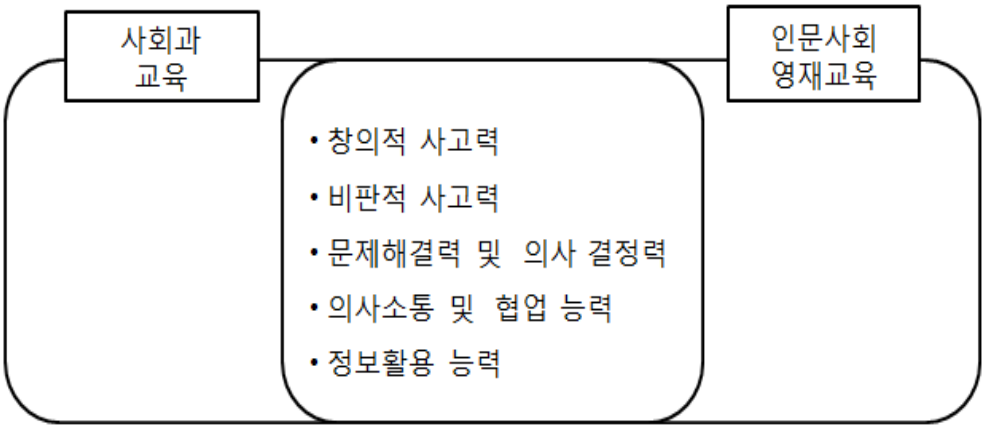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연구 주제는 경제, 정치, 법, 문화, 사회, 역사, 지리 등으로 주로 사회과에 속한다. 학생들은 기업체의 경영 전략, 정치계와 학교의 선거문화, 개정 전·후의 형법, 역사 속 리더십, 일상 속 학교문화, 통일한국의 비전, 정치와 대중문화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한다.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사회과교육이 표방하는 목표와 성격에 합치한다.

사회과교육의 전통적인 교육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성(citizenship)' 함양이다. 시민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형성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사회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즉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심리학 등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학문들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교육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 현상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 사회과의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세부 목표이다(교육부, 2015). 이러한 사회과의 교과 역량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사회 영재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발견하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교과 역량은 인문사회 영재교육 목표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Ⅴ-6> 사회과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 목표의 공통점

한국의 교육문화에서 '창의성'은 불문율이다. 위에 제시된 사회과교육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공통점 중에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은 과학영재교육과 예술영재교육에서도 명시하는 교육목표이다.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과학,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성의 의미와 창의적 산출물의 형태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과학에서 창의성의 의미는 과학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탁월한 과학적 산출물에서 찾는다(박성익 외, 2009). 예술적 창조성은 여러 문화권과 시대가 남긴 음악, 설계, 뛰어난 걸작 등의 외적 형태를 포함한다(Boyd, 2009). 과학 영재교육원에서는 실험 등 탐구과정을 통한 산출물 발표회를 실시하고, 예술영재교육 기관에서는 창의적 작품을 보여주는 음악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다.

사회과의 창의성은 '새로운 물건'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과에서 창의성은 공공의 쟁점(public issue)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탁월한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과의 창의성은 문제해결을 통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산출물’에 해당한다. 인문사회 영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역사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뇌한다.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통해 쉽게 파악되지 않았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남다르고 특출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 이것이 사회과교육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 의의이자,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사회과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이지 않을까?

Ⅵ.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아실현'이다. 학습자의 의지와 욕구에 바탕을 두는 교육은 부단한 자기 계발과 자아 발견이라는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자아의 본질을 완성해간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가르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가르침'에 앞서 '배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학생이 존재하는 한 '배움'의 기쁨과 보람, 참된 의미도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배려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철학이고, 원리이다.

일반 학생에 비해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충족시키고,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영재교육'이라 하면, '과학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의미하였다.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영재'는 당연히 '과학영재' 혹은 '수학영재'로만 여겨져 왔다. 방송이나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항상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을 의미하였다. 영재교육은 이른바 이과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중 인문사회 분야 영재학생이 거의 전무했던 2000년대에 비해, 2014년에는 3.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 즉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교사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조용환, 2012b). 교사의 '가르침'은 학생으로 하여금 '배움'을 통해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의 '인문사회 영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
: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

가드너는 「열정과 기질(Creating Minds)」에서 '창조성이란 무엇인가?'를 '창조성이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시켜 대답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 피카소와 스트라빈스키 등 20세기의 창조적인 인물 일곱 명의 특정한 성품과 시대적 조건을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individual)-일(the work)-타인(other person)'이라는 창조성 소재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내부에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될 만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만으로는 창조성이 발휘되는 성인으로 성장해가지 못한다. 우선 개인은 그러한 소질을 심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일'의 체험 기회(교육, 훈련 등)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러한 체험의 과정에서 가족이나 교사와 같은 '타인'(가족, 친구, 경쟁자, 후원자 등)으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받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창조성이 단지 한 개인의 탁월한 재능만으로 실현되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우호적인 문화와 풍부한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발현된다는 것을 교육현장에 시사한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개방적 분위기'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차별화된 교육', 그리고 이러한 체험의 과정을 함께 하는 '타인' 곁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의 '배움'은 '지금의 나'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나'를 구상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1) '창의적 사고', 2) '자아 성장', 3) '융합과 통합', 4)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 5)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힘'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인재

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1) 창의적 사고

'창의성'은 시대적 화두이다. "창조적 대가들의 공통점은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조성이 성숙하였고, 그 후 10년간 창조성이 발휘되었으며, 다음 10년간 그 창조성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가드너는 창조적 거장들의 삶을 통해 창의성의 본질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스턴버그(Sternberg, 2002)는 창의성이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교육에서 창의성의 강한 잠재력에 대해 연구해왔다(Davis, 1982; Amabile, 1986; Runco, 1992; Renzulli, 1992; Sternberg, 2003). 이처럼 창의성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창의성은 중요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Sternberg & Kaufman, 2010, p. 473).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창의성 신장'이다. "학생의 영재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학사일정 운영 계획에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운영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창의성 신장'이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임은 2014년 3월 22일, 개원식에서 있었던 '인재고등학교' 교장의 환영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올해 처음 인문학을 언급하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부흥시켜야 한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고의 화두인 인성교육을 시키는 지름길로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산학협력 체제를 거쳐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
> - 2014. 3. 22.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개원식에서

지금 학생들이 영재교육원 수업을 듣는 것도 가드너가 말한 10년이라는 준비기간에 속하는지 모른다. 단 2년간의 체험으로 '가시적인 창의성'의 발현을 기대하거나 그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간다.

연구자: 영재원 다니고 나서 스스로 달라진 게 있다고 느껴요?
권영재: 영재원 수업을 경험하고 나서 우선 아는 게 많아진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창의적인 친구가 많아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길러진 거 같아요.

- 2014. 10. 18. 인터뷰에서

연구자: 영재원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요?
김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교양과 지식을 얻게 돼서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도전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친구들과 풀면서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양준석: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인문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개인연구 과제가 교육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에 '기본 방향'으로 명시된 문구이다. "최종적인 결과물"인 "개인연구 과제"는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뜻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영재부 허교사는 제 6기 개원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연구논문 발표대회 자체가 영재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밝힌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과정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연구과정은 팀 구성에서부터 연구주제 선정, 연구진행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의 ‘영재성’을 가장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이에 대한 고민은 많다(Fasko, 2000-2001; Jeffrey & Craft, 2004; Murdoch & Keller-Mathers, 2008). 코프만과 베어(Kaufman & Baer, 2004), 그리고 스미스(Smith, 2008)가 주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구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심사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30점, 논리성 20점, 연구의 성실성 20점, 내용 이해력 10점, 발표력 20점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말랜드(Marland, 1972)와 렌줄리(Renzulli, 1979)가 제시한 영재 판단 기준의 ‘창의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이 교육의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정보해석능력의 계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오하라와 스턴버그(O′Hara & Sternberg, 2000-2001)의 견해도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취지와 유사하다.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연구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향점을 성취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4학년도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인재고등학교’ 교감은 “깜짝 놀랄 정도로” 연구를 해내는 학생들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감탄한다.

> 제가 발표대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학생들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볼 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학교 3학년이면 내용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연구도 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학생들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주제가 열한 개 분얀데, 역사에 관한 것도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임원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도 다방면에 걸쳐서

많다. 어리다고만 느끼지만,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은 굉장히 성숙해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 2014. 8. 30.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창의성'은 강조된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가 '창의성 신장'에 있음은 수업 참관록의 평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서에는 "교사의 설명이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가?",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상위 학습 적용 및 창의적 응용 방향을 제시하거나 논의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3학년 공통과정 프로그램인 "경제적으로 사고하기" 수업 목표도 '창의성 신장'이다. 이교사는 경제 원리를 보드게임 제작에 적용하는 '창의적 적용'을 팀별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창의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교사의 말에서, 수업 목표가 '창의성 신장'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별 토의에 들어가자 이상준은 친구들에게 "좀 쓸 만한, 획기적인, 창의적인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부 개입", "경매", "주식 시장", "세금" 등의 경제 원리를 보드게임 안에 녹아들게 하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점점 "참신한" 것을 욕심낸다.

연구자: 이전에 비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나요?

권영재: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팀원들도 다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더 좋은 주제, 뭔가 더 참신한 주제로 연구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 2015. 1. 31. 인터뷰에서

창조적 대가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의성이 성숙하였고, 성인이 되어 창의성이 발현되었으며, 그 후 창의성을 다른 분

야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창의적 성취는 개인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시작되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더 나은 인간'을 통한 '더 나은 사회'를 가능케 한다. 2014년 10월 18일,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인재고등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을 부탁한다.

>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토요일을 반납하고, 아침 일찍 먼 곳에서 와서 열심히 공부에 임해준 학생들, 훌륭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인문사회 영재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2014. 10. 18.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2) 자아 성장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즉 가능한 것을 향해 스스로를 던지는, 기투(企投: Entwurf, Projection)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내적 동기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키워나간다. 가드너(Gardner, 1983)가 내적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학습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도 동기가 지적 영재성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이나 스티브 잡스도 동기 자극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계발을 이루어냈다(Puccio & Cabra, 2010).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자질과 경험의 진가를 깨닫는다.

> 연구자: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본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뭔가요?
> 권영재: 인문사회 영재원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다방면에 관심이 깊다는

건 여전하지만, 지금은 나름의 전공 분야를 결정했다는 점이 인문사회 영재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문사회 영재원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돌아볼 수도 있었어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겠다는 큰 자극이 됐어요.

김민지: 서울 각지에서 온 똑똑하고 활동적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실력과 지식을 기를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 탐구하면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었어요.

양준석: 이번 영재교육을 받기 전에는 제가 인문사회 전체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심이 있다고만 느꼈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학문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아직 저의 진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제가 어떠한 분야와 어떠한 유형의 연구에 적합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교육의 본질은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이다. 교육은 인간 속에서 인간의 변화를 지향하는 활동이고, 인간은 누구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조용환, 2012b). 향상의 의지를 자극하는 힘, 즉 동기를 통해 인간은 변화한다. 내재적 동기가 과제 자체의 즐거움과 흥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외재적 동기는 과제의 보상과 타인의 평가로 인한 것이다(Hennessey, 2010). 사람들이 외적인 보상을 노릴 때보다는 순수한 즐거움만으로 행동을 할 때 창조적인 해법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몰입 상태(flow state)'나 '몰입 경험(flow experience)'은 자신이 관심을 쏟는 대상에게 완전히 몰입되거나 빨려 들어가도록 한다(Gardner, 1993). 연구논문 발표대회에는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지만, 상을 타지 못했어도 권영재는 여전히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관한 애정을 드러낸다. '과제의 보상'이 아닌 '과제 자체의 즐거움'에 매료되었기 때문

이다.

연구자: 본인이 경험한 영재원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요?

권영재: 영재원 수업의 꽃은 당연히 연구발표대회라고 생각해요. 인문사회 분야에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적어요. 일반 공교육에서도 '과학탐구 발표대회', '과학발명대회' 같이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을 펼칠 기회는 많지만, 문과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인문사회 영재원에서 팀을 이루어서 제가 쓰고 싶은 주제로 논문을 써보고,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영재원에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스스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영역에 대한 그들의 꾸준한 관심 덕분이다. "풍자화"를 통해 "프랑스 혁명"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공"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을 탐구해가며,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낸다. 일반학교에서는 도전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탐구는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선물한다. 이제는 외부에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받았다는 '스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고,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른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은 내신 성적 관리와도 무관하다. 그래도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 대한 권영재의 애정과 신뢰는 공고하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다.

연구자: 영재원 수업이 이른바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나요?

권영재: 내신 성적 향상에는 아마..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았나 싶

어요. 아무래도 교과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저의 생각하는 능력이 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부담스러울 때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배우고 저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 2014. 10. 22. 인터뷰에서

영재교육원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계획해 나간다.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고, 더 깊이 있는 안목이 돋아난다. 권영재의 블로그, <컵라면의 인문사회> 첫 화면에는 세계지도 속 대한민국에 “Center of the World”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던 그의 열정이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나간다.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한 ‘몰입’의 즐거움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 영재는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구상해나간다.

3) 융합과 통합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학교에서는 그냥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모두 따로 배운 반면에 영재원에서는 역사와 지리의 융합, 과학과 경제의 융합 등 다양한 과목들을 융합시켜서 더 큰 그림을 보는 수업을 많이 했다는 점이에요.

- 2015. 9. 5. 김민지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 ‘융합’과 ‘통합’이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목표인 것은 현재 교육 현장에 보편화되어 있는 분절된 교과목 수

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들과 어느 정도 대비된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은 인문, 사회 분야의 통합을 추구한다. 일반 중학교는 15개 정도의 전 과목을 한 차시 당 45분씩 배분하여 분절된 수업을 하지만,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학생들은 ‘정치・경제・사회’, ‘철학과 문화’, ‘역사와 지리’ 등 다양한 인문사회 영역의 수업을 한 차시 당 100분으로 체험한다. “시로 표현하는 문화” 수업으로 문학과 사회를, “법으로 보는 역사” 수업으로 법과 역사를, “우리 주변의 삶과 자연” 수업으로 사회와 지리를 통합한다. 법, 지리, 역사, 경제, 정치, 철학, 문학 등 전형적인 인문사회 영역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수학, 과학 분야의 수업까지 학생들에게 다채롭게 제공된다. 올해 3학년생들이 체험한 영재캠프 프로그램 “화성탐사선 만들기”는 인문사회 위주로 관심이 국한되었던 양준석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 연구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재캠프 수업은 뭔가요?
> 양준석: 과학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화성탐사선 만들기 영재 캠프가 있었어요. 물론 이 수업은 인문사회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지만,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인문학 쪽으로 치중하게 된 제가 다시 균형 잡힌 관심사를 갖도록 도와준 수업이었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양준석이 말한 것처럼, 통합은 “균형”이다. 인문사회 영역에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수의 규칙성과 배열”이나 “화성탐사선 만들기”와 같은 주제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넓힌다. 이는 “사회과는 시민의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해야 한다”는 NCSS(1994)의 제안이 인류학과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설파한 하킷(Hockett, 2007)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지금까지 과학과 수학 영역 위주의 차별화된 교육을 경험해온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학

교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인문, 사회 분야의 수업도 남다르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통합형 수업 체험은 학기말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도 이루어진다. 실제로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연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방식은 융합적이었다. 2014년에 있었던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팀별 연구 주제는 "풍자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본 프랑스 혁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이를 통해 알아본 역사적 리더들의 속성 및 현대적 의의", "이화학당에서 이화여대까지: 근현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등이었다. 일반학교에서는 분절되어 있는 미술, 정치, 역사, 사회, 철학, 체육, 음악, 지리 등의 교과목이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한 몸 속에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융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은 미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공계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사회(science-technology-society: STS) 교육을 근간으로,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통틀어 STEM이라 지칭하였다. STEM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 교육'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조은별 외, 20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I)의 영재학생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물학, 역사,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법, 도덕, 비판적 사고, 문학 이해, 사회관계 형성 등 사회, 인문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이재분, 2012, pp. 160-162). 전술하였듯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통합교육과정 모형(ICM)도 융합과 통합에 해당한다. 그곳의 사회과 영재교육과정은 미국의 역사, 정부, 고대문화, 그 외에 다양한 이슈에 관한 주제들을 제시함으로써[18], 학생들이 각 시대의 문학, 예술, 음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정체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18)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School of Education (http://education.wm.edu/centers) 참조

mathematic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 선봉에 선 STEM 교육에 예술교육을 더하여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다루는 새로운 차원으로 융합교육을 이끌고 있다(이부연, 2014). 즉, 우리나라의 STEAM은 STEM에 순수 예술,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예술(art)을 연계함으로써 맥락적 의미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태진미, 2011). 그동안 주로 과학에만 초점을 두어 왔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인문학 및 예술의 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송인섭 외, 2010).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6기 신입생인 권영재가 과거 "수학영재"였고, 이윤정이 한 때 "미술영재"였다는 점은 학생의 흥미와 요구, 경험과 수준을 고려한 융합형 영재교육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문사회 영재는 인문과 사회 분야에 관한 기본 토대를 공고하게 다지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사고를 넓혀,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4)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

> 수업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쌓인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준석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고, 기영이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는 항상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영재원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노력하려는 마음이나 겸손함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
> - 2014. 10. 18.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 속에는 자기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그 부정은 '파괴를 위한 부정'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부정'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배움은 자신의 무지, 무능, 부족, 모순, 부조화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조용환,

2012b). 자신이 뒤쳐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학생도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학교에서 항상 “칭찬”을 받아온 학생들은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못하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보다 토론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배경지식이 많은 친구도 있다. 남다른 시각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면에서 부족한지를 알아챈다. 다니는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 없었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친구들의 다양하고 남다른 의견은 감탄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이다.

연구자: 영재원에서 만나본 친구들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 적 있어요?

권영재: 네.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면, 학교 애들은 답이 똑같거든요. 근데 영재원 애들은 엄청 다른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친구 본 적이 없어서... 영재원 친구들이 되게 남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수학영재원 다닐 때 어려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애들이 특히 남다르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확 다르더라고요. 영재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저도 같이 동화되는 것 같아요.

- 2014. 8. 17. 인터뷰에서

그러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의 “내신 관리”를 둘러싼 경쟁의식은 다니는 학교에만 있지, 영재교육원에는 없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연구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한 팀을 이룬다. 양준석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가진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좋다.

연구자: 영재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가요?

양준석: 학문에 대한 진지함이에요. 제가 아는 학교 친구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학문에 대해서 진정하게 열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대부분이 선행을 많이 했거나 학원에 의존하는 것처럼 스스로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하지만 영재원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논문을 작성하며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앞서 살펴본 아인슈타인과 간디에게도 이러한 경험은 있었다. 아인슈타인과 간디는 가까운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이론적, 정서적 도움을 받고 위대한 도약을 한다.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젊은이들이 만나, 공부 모임이나 회합을 결성함으로써 창의적인 도약을 꿈꾼다(Gardner, 1993). 영재원 학생들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서로의 독특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고를 구상해나간다. 2년간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수업을 마무리하는 양준석은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와 더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

각자 진로가 다양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같이 시도해보고 싶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진지하고 실력 있는 친구들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가 아쉬워요.

- 2015. 9. 5. 양준석과의 인터뷰에서

5)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대로, 영재교육이 과도한 사교육 열풍

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된 영재교육이 그릇된 조기교육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흔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가 16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점차 과열되고 있다. 자주 바뀌는 대학 입시제도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4년 3월,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연구자는 사교육 광풍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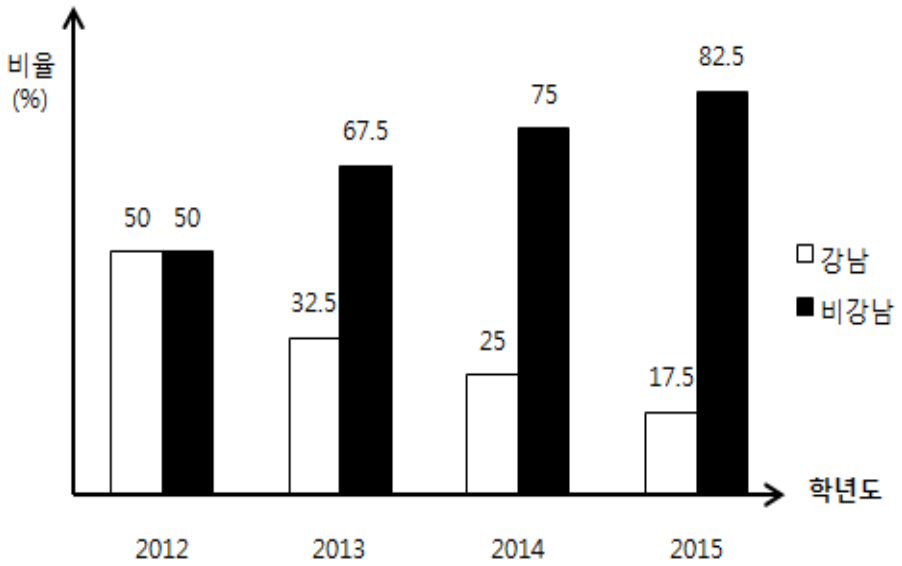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매년 중학교 1학년생 40명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 합격생 소속 학교의 해당 구를 분석해보면, 총 40명 중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소재 중학교와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가 2012년에는 20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13명(32.5%), 2014년에는 10명(25%), 2015년에는 7명(17.5%)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에서 신입생 선발을 담당해온 이교사에 의하면, 강남 3구 소재 중학교의 영재교육원 지원자수는 매년 비슷하다. 1차 전형은 각 소속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학교당 학생 한 명이 2차 전형에 지원한다. 강남 3구 학생들의 지원율은 그대로인데, 합격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Ⅵ-1> 2012~2015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강남권・비 강남권 중학교 학생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강남 3구 소재 중학교 ·국제중학교 재학생	20명	13명	10명	7명
비 강남권 중학교 재학생	20명	27명	30명	33명

신입생: 총 40명



<그림 Ⅵ-1> 2012~2015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강남권·비 강남권 중학교 학생 비율

몇 년 전만 해도 영재교육은 주로 과학이나 수학 영재를 위한 교육으로만 여겨져 왔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존재감이 덜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인문사회 영재'를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초기에는 "강남엄마의 정보력" 위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 4기 신입생이 입학한 2012년만 해도, 강남 3구 중학교와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체 신입생의 50%를 차지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 후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되고, 정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 강남권 학생들의 지원이 확대되었

고, 그로 인해 합격생도 서울시내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리라 유추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많은 곳”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입학하였다는 사실은 ‘인재고등학교’ 교장의 개원식 환영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 먼저 5차례에 걸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너무 축하드려요. 학교 이름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많은 곳에서 모여서, 지역적으로는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 - 2014. 3. 22.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제 6회 개원식 환영사에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이른바 강남 대 비 강남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를 잃은 것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80년대부터 30년 이상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과학고등학교는 여전히 강남 3구 중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2013학년도 서울 지역 과학고 입학생 출신지역’을 알아본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의 입학생 중 30%가 강남 3구에 출신학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그 중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도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볼 때, 과학영재 선발에는 여전히 사교육의 영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수학 영재교육원 입시 경쟁도 마찬가지다. 과학・수학 영재교육의 첫걸음을 뗀 아이들의 상당수는 6살 무렵부터 대치동 등 교육특구의 전문학원을 다닌다. 이곳은 시・도교육청 및 대학, 영재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입시를 따로 준비해주는 학원들이다. 영재교육원 합격생 비율을 봐도 유명 학원 출신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5년에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비 강남권 학생들은 어떻게 82.5%에 달하는 것일까?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대상자 선발 1, 2차 전형이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만의 특

19) 뉴시스(2013년 9월 12일자) 참조

화된 선발과정은 3차 전형부터 이루어진다. 3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로, 4차 전형은 '인성 및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인문사회 영역은 그 범위가 넓고, 출제 문항은 적은만큼 단순 암기 위주가 아닌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험을 위한 별도의 준비나 벼락치기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배경지식을 근거로 재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는 없다. 제시된 지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지식들을 조합하고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학원도 슬슬 나오지만, 반응은 시들하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입학시험을 출제해온 이교사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시험문제는 "넓고 깊기" 때문이다.

> 연구자: 학생들 선발할 때 3차, 4차 시험은 어떤가요? 학원 다니면 도움 될까요?
> 이교사: 제가 입학시험 출제를 대부분 하고 그랬는데, 시험문제를 정말 넓고 깊게 내요. 아마 선행학습이 불가능할 거예요. 사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난감한... 인문사회는 학원으로는 안 될 거예요.
>
> - 2015. 11. 11. 인터뷰에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요즈음, 권영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독서학원 말고는 다녀본 학원이 없다. 김민지와 양준석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해 특별히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입학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 영재교육원과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는 분명 다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고난도의 입학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교육 시장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성장해가는 권영재, 김민지, 양준

석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권영재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2년 선배인 김현진이 남긴 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실 수학이나 과학 영재교육원은 흔하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아예 그곳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원도 많고, 기출문제집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녀도 이곳의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신문을 읽으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인문사회 분야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 입학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
> - 2013. 11. 3. 김현진의 블로그에서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한계와 과제
: '영재 속 영재교육'이 아닌 '영재교육 속 영재'의 아쉬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국강병을 위해 사회적 공헌을 하도록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배우는 즐거움'을 향유하여 스스로 '향상'의 의지를 채워나가도록 할 때, 그 교육은 '교육다운 교육'이다. 인적 자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교육의 틀 안에서 영재를 바라보는 것, 즉 '영재교육 속 영재'는 교육다운 교육이 아닐 것이다. 영재의 열정과 동기를 헤아려보고, 그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채움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을 끌어내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재 속에서의 영재교육'이자, '교육다운 교육'이지 않을까?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인 동시에,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입학 전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선발된 학

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점에서 한계를 보이는가? '영재교육다운 영재교육'을 위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의 교육적 함의를 1)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 2) '넘치는 학생 중심 수업과 부족한 교사 중심 수업', 3)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 4) '인문사회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부족'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떠한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1)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

1921년, 터먼(Terman)은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 IQ가 140~200인 아이들 1,470명을 선발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지능과 성공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35년간의 종단연구는 '개인의 성공에 지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던 터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종단 연구의 대명사가 된 터먼 프로젝트(Terman Longevity Project)는 높은 지능 집단의 소수만이 교수, 변호사, 의사가 되었을 뿐, 노벨상을 받거나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만한 업적을 세운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능 지수가 탁월한 집단의 성과가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목을 받았다. 머리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월등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큰 여운을 남긴다.

터먼 프로젝트로 성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지능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40여년 지나서도, 우리나라 영재 선발에는 IQ검사가 동원되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첫 번째 시기인 2002~2006년까지는 '다양한 검사도구들과 다단계 선발방법의 실험기'로서, IQ 검사, 논리적 사고력 검사, 학교성적 등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시기인 2007~2009년까지는 다단계 선발방법과 단계별 사용도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로,

KEDI에서 개발한 영재성 검사와 학문적성 검사라는 새로운 검사 도구가 개발된다(송인섭 외, 2012, p. 17). 그러나 이러한 지필검사 중심의 선발 방식이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광풍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세 번째 시기인 2010년 이후에는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이 아닌 '교사 관찰·추천제'가 도입된다. 학생의 과제집착력 등의 동기가 선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교사의 체계적인 학생 관찰을 통한 교사 추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관찰·추천제도 '동기'보다는 '학업 성적'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 1~2차 전형은 단위학교에서, 3~5차 전형은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졌다. 3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 4차 전형은 "인성 및 심층 면접", 5차 전형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다양한 선발 방식이 적용되지만, 소속 학교에서 1~2차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1차 전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입학지원서를 소속 학교에 내고, 각 담임교사는 순위를 매겨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2차 전형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시험 성적과 교실에서의 수행 정도로 지원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한다. 결국 추천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이라는 영재의 특성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소속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밀리거나 수상실적이 부족하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어 현장에서 지켜봐온 학생들은 대부분 '전교 최상위권에 드는 모범생'이다. 렌줄리도 이처럼 높은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영재로 선발되는 학교 현장이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가 영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재직하던 학교에서 지능은 평범하지만, 최고 성적이나 최고 지능을 지닌 학생들보다 더욱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만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렌줄리는 '학업 영재'와 '창의적·생산적 영재'를 구분해 왔다. 학업 영재는 높은 시험 점수와 등수, 그리고 다양한 학업

성적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는 능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창의적・생산적 영재는 예술작업, 작곡, 시, 과학 프로젝트와 같은 창의적 산출물에서 특출하다. 렌줄리는 많은 학교에서 선발된 영재는 창의적・생산적 영재가 아니었고, 뛰어난 창의적 작업을 하는 영재는 교사나 학교에 의해 따로 평가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Jarvin et al., 2007). 렌줄리와 그의 동료들(Renzulli, Gentry & Reis, 2006)은 교사의 판단이 가족배경, 행동, 외모에 의해 편파적일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중류계층의 고정관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영재로 판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일갈한다. 킴 외(Kim, Cramond & VanTassel-Baska, 2010)의 연구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생에 대한 판단은 창의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들보다는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잘 이해하며, 더 성실하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선발되는 영재도 '높은 동기'가 아닌 '높은 학업 성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렌줄리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이거나 과제집착력이 뛰어난 학생보다는 '더 바람직하고, 더 잘 이해하며, 더 성실한' 모범생이 '영재'로 선발된다.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일렉션 팀의 연구주제는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선거의 선출요인 탐색"이었다. 발표를 시작하는 구다인은 앞에 앉아있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임원 경험 여부를 묻는다.

구다인: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중 현재 임원이거나 임원 선거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학생들: (전부 다 손을 들면서 웃음) 아하하
구다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 웃음) 저희 주제는 그런 여러분의 선거 경험으로 들으시면, 다음 선거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웃음)

- 2014. 8. 30. 3학년 “일렉션” 팀의 연구논문 발표에서

권영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반장을 해왔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는 가끔 전교 2등이나 3등을 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권영재 성적을 앞설 때도 있는 두 친구는 모두 이과, 이른바 의대 지망생이다. 정확히 말하면, 권영재는 ‘문과 1등’이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김민지는 모든 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벗어났던 경우가 드물고, 양준석은 얼마 전 시험에서 “전교 6등”을 했다. 물론 양준석보다 앞서는 등수에는 이과 지망생들이 포함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다.

영재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 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신 성적 안의 각 과목별로 할당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만점을 받는다 해서 그것의 탁월함만으로는 대상자로 선발될 수는 없다. 더불어 서울대 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의 화학분과 학생들의 경우, 81.8%가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맡고 있거나 맡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유미현, 2008). 정정인・박종욱(2011)도 교사관찰・추천제가 과학영재로서의 영재 특성이 아닌 시험성적(학업성취도), 수상실적, 교실에서의 수행정도로 영재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학생의 드러난 수행 능력에만 치우친 교사관찰・추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방미선・김용권, 2013). 예술 분야 영재의 선발 방식도 마찬가지다. 음악영재의 선발이 교사의 추천만으로 제한될 경우, 교사의 눈에 들어오지 못한 숨은 영재들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이미경, 2010). 원영실(2013)도 국악, 서양음악, 미술 분야 영재에 대한 교사관찰・추천 시에 교사들이 매우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학생의 잠재성이 아니라, 학과성적과 수상실적, 수업태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도, 서울대 과학 영재교육원도 높

은 학업 성적과 리더십이 검증된 학생들이 대상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선발된 학생들은 렌줄리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요소 중 '보통 이상의 지적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과제집착력(동기)'과 '창의성'에서는 개인차가 크다. 렌줄리도 창의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제집착력은 창의적인 개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인지적인 특성으로, 특정한 것에 극도로 집중하는 형태의 '동기'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Renzulli, 2012; 이선영, 2014, p. 113에서 재인용).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동기'가 영재원 모든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권영재와 양준석에게도 열정이나 진지함 같은 동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눈에 띈다.

> 연구자: 영재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인문사회 영재라는 생각이 드나요?
> 권영재: 솔직히 같은 영재라고 해도 토론이나 발표할 때는 개인마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 양준석: 아, 저는 수업 도중에 느낀 건데요. 지적 능력과 같은 면에서는 다들 비슷하지만, '영재'라는 단어가 붙기에는 학문적으로 진지함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여섯 위인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 바로 과제 집착력, 즉 '동기'이다. 마더 테레사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서, 마틴 루터 킹은 흑백 인종차별을 비판함으로써, 간디는 영국이 인도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에 분노하는 데에서, 반기문은 넓은 세계로 나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빌 게이츠는 독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서,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동기를 찾아내고, 쉬임 없이 그것에 몰입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연설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간디도 학교

다닐 때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학업 능력도 뒤쳐지는 열등생이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일반적 지적 능력이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 '영재'로 선발되는 학생들과는 그런 점에서 분명 다르다. 요즘 적용되는 영재 선발 방식에 의하면, 반기문과 빌 게이츠는 '합격'이고, 아인슈타인과 간디는 '불합격'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재 선발 방식의 난점이기도 하다.

최근 "2016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모집요강"이 발표되었다. '지원단계'는 KEDI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GED)에서 학생이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추천단계-담임교사 관찰・추천'에서 담임교사는 GED에서 지원자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추천단계-학교추천위원회 추천'에서 학교추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추천 학생을 선정하여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 제출한다. 그 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단계'와 '인성・심층면접 단계'는 이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Ⅵ-2> 2016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모집 요강

전형단계	주관기관	일정	GED 절차 및 세부내용
지원단계	학생	학생지원 2015.10.8.(목)~ 2015.10.20.(화)	1. 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 회원가입 2. 기본지원정보 입력 3. 지원기관・모집과정 선택 4. 지원서, 자기체크리스트 작성 5. 가상계좌로 선발 전형료(45,000원)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불가) 납부 기간: 2015.10.21.(수)~10.23.(금) 6. 지원서 출력하여 담임에게 제출
추천단계	소속학교	담임교사 관찰・추천 2015.10.21.(수)~ 2015.10.29.(목)	1. 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 회원가입 2. 교원 인증하기 및 학교 설정하기 3. 담임학급의 지원자 확인 및 체크리스트 2개 작성(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참조)

전형단계	주관기관	일정	GED 절차 및 세부내용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2015.11.2.(월)~ 2015.11.9.(월)	1. 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 학교추천 위원회 아이디로 로그인(교육청 일괄배포) 2. 담당자 연락처 관리 및 비밀번호 변경 3. 온라인 지원 학생 및 교사관찰추천 확인 4. 심사대기 추천서 작성(추천결격사유 확인 일반/특별전형) 5. 심사완료 추천서 작성(추천 클릭)
창의적문제해결력평가단계	'인재고' 영재교육원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대상자 전형 장소 공고 2015.11.25.(수)	1.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전형 대상자 전형 장소 공고 - 일시: 2015.11.25.(수) 18:00 - GED 및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2015.12.12.(토)	1.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인문사회 분야) - 일시: 2015.12.12.(토) 10:00~11:30(90분) - 장소: GED 및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 내용: 창의적 문제해결력(인문사회 분야) - 배점: 100점 2. 정원의 1.2배수 선발 3. 인성ㆍ심층면접 전형 대상자(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전형 합격자) 공고: 2015.12.22.(화) GED 및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해당 학교 공문 발송
인성심층면접단계	'인재고' 영재교육원	인성・심층면접 2015.12.26.(토)	가. 인성ㆍ심층면접 - 응시대상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전형 합격자 (면접평가 대상자 학교별 인원제한: 모집정원의 5%) - 일시: 2015.12.26.(토) 10:00~ (면접 종료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인재고등학교' - 내용: 리더십(자아정체성),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태도 - 배점: 10점

전형단계	주관기관	일정	GED 절차 및 세부내용
최종합격자 발표	'인재고' 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합격자 발표 2015.12.30.(수)	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나. 합격자 선정은 교사체크리스트 점수(10점),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100점), 면접 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시: 2015.12.30.(수) 18:00 - GED 및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해당 학교 공문 발송

출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GED를 통한 선발 전형은 2016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처음으로 시도된다. GED는 우수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영재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주먹구구식 '성적순'으로 진행되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 좀 더 체계적인 판별 방식으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싶다. 그러나 영재교육 대상자 학생을 관찰·추천하는 것은 여전히 담임교사의 몫이고, 담임교사가 시험성적이나 학습 태도로 지원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기순·양태연·박인호(2014)는 실제 교사 추천 시에 동기적 특성과 특수재능, 창의성 등의 인지적 특성은 중요도에 비해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리더십이나 학습능력, 성취관련 특성은 중요도에 비해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을 통해, 교사관찰·추천제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사 친화적인 학생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일갈하였다.

교사 관찰·추천제의 난점을 인식해서인지, GED는 최근 교사가 별도의 관찰이나 평가를 치르지 않고도 일반 정규 교과 수업 중에 자연스럽

게 영재성을 관찰,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교사관찰·추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과학영재 선발을 위한 것일 뿐, 인문사회 영재 선발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업성취도나 성실함 등 인정받기 쉬운 학문적 행동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추천서로 인하여 영재 선발의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현장 교사들에게 교사 관찰·추천제에 관한 안내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재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동기는 영재성을 설명하는 '무언가'이다. 갓프라이드와 갓프라이드(Gottfried & Gottfried, 2004)는 동기를 단순히 지능 상승에 도움을 주는 촉매제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영재성의 한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렉산더와 슈닉(Alexander & Schnick, 2007)도 학교를 벗어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아이들은 교실에서의 일과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확언한다. 소속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되는 학생은 '전교 1등 모범생'이다. 그렇다면 선발되지 않은 영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과 동기를 발현하여 자아성취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교육다운 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은 언제 가능해질 것인가?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아 고되고 힘들 테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선발'은 영재교육의 시작점이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선발을 통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유명한 직업학교는 4:1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선발 기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보다는 선택한 학과에 대한 '동기'이다. 우리나라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면 성적순으로 선발되는 게 우선이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도, 과학 영재교육원도 그렇다. 전교 1등을 하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고, 학습 동기가 뛰어나기까지 하는 학생이 선발되는 경우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내신 성적으로는 전교 1등이지만, 창의성과 학습 동기가 그에 비례하지는 않는 학생은 생각보다 흔하다. 반대로 창의성이 탁월하고 학습 동기가 뛰어나지만 전교

등수가 밀린다는 이유로 영재로 선발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소수 정예로 선발된 '전교 1등'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사 관찰·추천제의 도입은 잠재성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차별화된 '가르침'을 제공하는 영재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영재교육이 정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영재교육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강병직·서혜애·전경남, 2011). 특목고 혹은 영재교육원 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인문사회 분야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과 관찰이 시도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선발된 전교 1등'도, '선발되지 못한 영재'도 아닌, '꾸준히 지켜보는' 교사 곁에서 '꾸준히 성취해가는' 영재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말이다.

2) '넘치는' 학생 중심 수업과 '부족한' 교사 중심 수업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및 해외에서 개발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프로젝트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 수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인간의 삶과 사회현상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이 홀대되는 탓에,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수중심주의"(조용환, 2012b)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교수중심주의 수업은 그동안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외면하고,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단순 지식을 습득

하도록 하는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유행처럼 번져왔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만나본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교사 중심 수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아쉬워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도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 수업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앞서 살펴본 이교사의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 영재캠프 수업은 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이론적인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그에 관련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수업이 종료되기 전 팀 단위로 결과물을 발표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수업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데 근본 취지를 두는 것이 공통과정, 전문과정, 연구과정, 영재캠프 수업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방식에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권영재는 영재원 수업을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개원식 후 일주일 만에 첫 인터뷰를 하던 날, 권영재는 들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 철학 같은 거는 약간 철학사에 대해 깊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경제는 정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건지, 그래서 일단 경제서적이 하나 있기는 한데, 한 페이지 이해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인문사회 영재원에서 하려고요.
>
> – 2014. 3. 30.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수업은 교사가 심도 있는 강의로 '가르침'을 행하는 것보다는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배움'의 비중이 더 크다. 영재원 수업을 들어본 권영재는 그 점을

아쉬워한다. 다섯 달 전에 기대하던 바와는 달라서이다.

> 연구자: 영재원 입학 전에 기대했던 바가 있을 텐데, 그만큼 얻어 가고 있나요?
>
> 권영재: 저는 내심 지식 위주의 수업 같은 것도 강의 같은 것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느끼기에 영재교육원의 궁극적 목표가 연구발표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단 전문적인 얘기 같은 걸 듣고 싶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딴 애들 말 들어봐도 저 같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
> - 2014. 8. 17. 인터뷰에서

권영재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강의식 수업 대 프로젝트 학습 비율이 "1대 3 정도 된다"고 말한다. 그 드문 강의식 수업도 공통과정에서 일부 이루어진다. 개원식에서 '인재고등학교' 허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사일정을 소개할 때, 공통과정은 "일종의 교양 강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은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허교사가 말하였듯,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은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최종적인 목표"인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학생들은 팀별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자기주도적 연구"를 실행한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지적 토대를 목말라하던 학생들은 학구적 열정으로 선택한 전문과정에서 교사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한 '배움'을 얻지 못한다. 권영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교사 중심 수업"이 더욱 제공되기를 원한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학생 중심 수업은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발표나 토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일반학교 수업 정도에 그친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

어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학교수업과 비슷해요. 토론의 주제나 과정이 사실 크게 학교에서 했던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 2014. 10. 22. 권영재와의 인터뷰에서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프로젝트 수업은 일반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영재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표에 미리 제시된 수업 주제를 보고 진지한 강의식 수업을 기대하고 갔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권영재는 이미 다단계 입학 전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이므로, 토론이나 발표수업 못지않게 "인문사회 쪽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지도록" 하는 강의식 수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영재원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단편적인" 수업은 체계성이 없었고, 매번 전혀 다른 주제로 "1시간 40분" 내에 수업이 끝나다 보니, 배운 내용을 "확장시키거나 발전시킬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이 모두 같은 의견이다.

연구자: 강의식 수업과 프로젝트식 수업 중에 어떠한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권영재: 강의식 수업이요. 가장 아쉬운 점인 체계적인 강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했을 때 기대했던 건 경제학에 대한 개략적인 학습, 잘 알지 못했던 철학 사조의 흐름과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였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매번 전혀 다른 주제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전혀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개개의 수업 중에서는 훌륭한 것이 많았지만, 1시간 40분 안에 하나의 과목이 끝나다 보니, 배운 사실을 확장시키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김민지: 수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만들어나가는 수업들이어서 재밌고 흥미롭긴 했지만, 영재원인 만큼 어려운 내용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기를 수 있게 한 후에, 나중에 프로젝트식 수업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준석: 영재원 수업이라고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식 수업을 떠올리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체적인 탐구 과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학문적으로 기본 바탕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주로 강의식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가끔 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이는 과학영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양태연·한기순·박인호(2007)는 대학 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프로젝트형과 토론식 수업이었다. 그들은 교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학교 수업에 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의 목적과 방법 등을 살펴보게 하여, 스스로 결론을 유도하게 하는 '실험 위주의 교육 과정'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고급 장비와 실험 기구를 마음껏 다루면서 경험한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박경빈 등(2015)도 과거 과학영재교육을 경험한 사회적 성공 인사들이 '탐구, 체험, 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가장 차별화된 교육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남다른 실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영재의 말대로, 토론의 주제나 과정, 프로젝트 수업이 소속 학교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더욱 필요한 것이 강의식 수업이라는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학습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이론과 지식 체계의 전달도 중

시한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공통과정)'은 '창의적 활동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에 주안점을 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1학년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초과정 수업은 '문학적 통섭의 기초', '역사학의 기초', '철학의 기초', '정치학의 기초', '경제학의 기초', '사회학의 기초', '법학의 기초', '지리학의 기초', '독서토론의 기초' 등으로 이루어진다. 2학년이 되어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심화하기에 앞서, 1학년생들에게는 기초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설계하고 있다[20]. 민족사관고등학교의 '3단계 교육법'도 이와 유사한데, 3단계 교육은 '강의학습(teaching/lecture)-토론학습(discussion/debate)-사사학습(writing/tutoring)'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이론과 지적 토대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들으며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방식과 비판의식을 함양한 후에, 개별 사사학습을 통하여 완전학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민족사관고 3단계 교육법 운영의 취지이다[21]. 인천국제고 영재교육원과 민족사관고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토론, 탐구학습이 아니라, 체계적 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다.

렌줄리와 라이스(Renzulli & Reis, 1985)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프로젝트 학습이나 소집단 심화활동, 현장견학 등 흥미와 게임에 치중하여, 이론에 근거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가드너(Gardner, 1983)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 그는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 개개인의 특별한 강점과 특이성을 드러내도록 하며, 도서관이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이나 교사와의 협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도 프로젝트 학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어떤 프로젝트는 학생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다른 프로젝트는 필수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을 숨기는 데 일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드너는 학생들이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수행'에 관

20)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 홈페이지 (http://iigc.icehs.kr) 참조
21) 민족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minjok.hs.kr) 참조

심을 가져야 함을 설파한다. 그러나 '수행'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출발과 시작, 노력의 중요성을 '점을 연결하는 일(connecting dots)'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신의 서체 공부와 매킨토시의 경우처럼, 연관되지 않을 듯 보이는 일들이 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미 갖고 있던 점을 '연결하는 방법'만 구상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는 일'일 텐데 말이다. 학생 중심 수업은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중심 수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사 중심 수업과 절충점을 찾아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연구자: 어떤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도 말해 줄래요?
>
> 권영재: '창의성'을 중시하는 영재교육의 특징 때문인지 강의보다는 지나치게 토론이 많았어요.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주지 않은 채 진행하는 토론은 그저 각자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해요. '토론하는 학문', '답이 없는 학문' 등을 내걸고 인문사회에 관한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은 큰 간과라고 생각해요. 인문사회도 엄연히 학문이고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문학,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지리, 심리 등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 있어 아주 기초적으로라도 체계적인 교육과 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3)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하였듯이, 각 분야별로 개발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시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물'이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실험 결과 발표'로,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연주 발표'로,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작품 전시'로, 무용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무용 발표'로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결과물의 발표에만 관심을 둘 뿐, 그것을 이루어낸 '과정'이나 그에 관한 '피드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배움을 통한 결과'뿐 아니라 '배움의 과정'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기능'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 조용환(1997)은 교육이 "'인간'의 형성"보다는 "'인력'의 양성"에 치우쳐 왔음을 갈파한다. 우리는 인간 형성의 '과정'보다는 인력 양성의 '결과'에만 치중해왔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산출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 영역과 예술 영역에 영재교육이 집중되어 왔다면, 요즘은 사회, 언어 등의 영역으로 영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의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사회적 요구는 변함이 없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반드시 가시적 성과물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종착점인 것이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영재원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개원식부터 마무리되는 연구논문 발표대회까지 관찰해온 연구자는 연구논문 발표대회와 같은 '결과물'뿐 아니라, 부단히 연구해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성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그러다보니 '과정'보다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영재라면 남다른 과제집착력, 즉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으로 그 '과정'을 겪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 없다. '결과'를 보면 당연히 '과정'도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정'과 '결과'는 비례하고, '결과'에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는가? '결과'가 우수하면 당연히 '과정'도 우수하고, '결과'가 뛰어나지 않다면 '과정'은 돌아

볼 필요도 없는가? 우수한 '과정'이 아직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시적 산출물만으로 그 '과정'도 훌륭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재고등학교' 교감도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 오늘 보니까 주제가 열한 개 분야인데, 역사에 관한 것도 있고, 선거와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도 다방면에 걸쳐서 많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은 굉장히 성숙해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편의상 심사를 위해서 상을 주기도 하지만, 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같이 협동하고 같이 자료도 조사하고 분석도 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 2014. 8. 30.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개회사에서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는 "편의상"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뿐, 연구논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반응을 전달하는 일, 즉 '피드백'은 없다. 학습의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섣불리 평가할 수도 없는데 말이다. 권영재와 양준석도 이러한 점을 아쉬워한다.

> 연구자: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
> 권영재: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심사위원장의 총평 정도가 전부였어요. 팀별로 지도교사와의 만남은 더 없었고, 성적표에는 연구 발표대회 등수만 기재돼 있었어요. 객관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
> 양준석: 연구과정에서 중간 중간 검토해주시고 조언해주신 건 있었지만, 발표 대회가 아예 끝난 후에는 없었어요.
>
> - 2015. 9. 5. 인터뷰에서

이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만 관찰되는 일이 아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세부추진 계획 안내' 자료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은 자체 계획에 의거한 '과제연구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를 운영해야 한다. 과학・수학・정보 분야는 “발표회”를, 음악・성악・기악 분야는 “음악회나 연주회”를, 미술・발명・문예창작 분야는 “전시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의 특색사례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수한 결과물’을 제작한 일부 팀에게 상을 주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연구과정을 수행해낸 모든 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표 Ⅵ-3>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세부추진 계획 안내

영재교육 과제연구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운영	
추진 방향	○ 영재교육기관별로 자체 계획에 의거 과제연구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운영 ○ 운영 형태: 팀별 과제연구 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수료식 또는 수료식 직전에 동료, 학부모, 강사 등을 모시고 개인별 또는 팀별로 제작한 산출물(과제연구 결과물) 전시 또는 발표 ○ 영재교육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 예) 과학, 수학, 정보 → 발표회 음악, 성악, 기악 → 음악회, 연주회 미술, 발명, 문예창작 → 전시회
실시 방법	○ 영재교육기관별로 교육계획 내에 과제연구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포함시키고 일정 및 추진 방법 명시 ○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별도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산출물(과제연구 결과물) 제작을 진행시킴 ○ 영재교육의 특색사례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출처: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 세부추진 계획 안내 자료

2015년 일본인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을 잇달아 받음으로써,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총 21명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연구 지원을 결정한 분야가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

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묵묵히 기다린다. 꾸준한 투자로 결실을 보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과제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연구를 막을 수밖에 없다. 성과를 꾸준히 내야하므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보다는 안전한 과제만 수행하는 연구 문화가 자리 잡혀있다. 과제 수행기간이 대부분 3년 정도로 호흡이 짧아,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20~30년간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는 일본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풍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에도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정혜승・서수현・김지연(2014)도 한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의 부침은 곧 그 분야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일갈한다. 인문사회 영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수학이나 과학 영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고, 이것에는 '가시적이고 신속한 성과'를 지원의 척도로 삼고 싶어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드너(Gardner, 1983)도 정부 관료들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몰두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계한다. 과학영재교육에 비해 홀대받아 온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으려면, 과학 분야와 같은 '가시적 산출물'을 생산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결과' 중심 풍토는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그대로 배어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실패'로 보기 쉽다. 백년지대계의 의미에 부합하는 '너른 가슴'을 가진 장기간의 계획은 드물다. 우리 사회에는 '창의성 신장'이 교육정책의 중차대한 일인 듯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물을 중시하므로, 교육 '과정'의 '창의성'보다는 '결과'로서의 '생산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와 스미스(Smith & Smith, 2010)는 수행 및 결과물 중심 모형(Performance/Product-oriented Model)뿐 아니라, 창의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인지 및 사고 과정 중심 모형(Process-oriented

Models)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주력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 그들의 중요한 몫이라는 것이다. 안도희・한기순・김명숙(2009)도 교사들이 영재학생들에게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 자체나 성취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터득해 나가는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영재학생들이 학습을 통한 지적 희열과 만족감에 가치를 두는 '과제지향적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에 가치를 두는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육은 기능, 성공, 완벽을 강조하는 삶의 형식들과 달리, 무능과 실패와 실수를 존중하고(조용환, 2001), 부단히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조용환, 2012b)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과는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는 '과정 중심 평가 확대 등을 통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되려면, 연구논문 발표대회와 같은 '결과물'뿐 아니라 부단히 연구해가는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는 결과 못지않게 '고기를 잡겠다는 의도'와 '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용환(2012b)에 의하면, 교육은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며, 대화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피드백 과정이다. 그러므로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대화는 있는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동행이다(조용환, 2012b). 연구논문 발표가 완료된 후에도 교사와 학생의 동행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 본인이 수행한 연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를 바란다. '배우는 울타리'인 학교에서 교육은 학생들을 테스트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학문적 기반과 세계관, 또는 인생철학을 고민하도록 하는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이 진정한 '가르침'이

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4) 인문사회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부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종착역은 연구논문 발표대회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희망과 적성대로 3개의 전문 과정(정치/경제/사회, 철학/인문, 역사/지리)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각각의 전문 과정에 근거한 과제 연구팀을 구성한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학사일정 운영 계획"에는 각 팀별 주제가 결정되면, "해당 분야의 지도 교사가 선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팀이 선정한 연구 주제와 배정된 지도교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팀별 주제가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역사를 담당하는 사회과 영역에 해당하지만, 지도교사는 비 사회과인 경우가 꽤 많았다.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의 연구 주제와 지도교사의 해당 교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4>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2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과목)
1	임○○	이○	성공사례로 본 비프랜차이즈의 성공	이교사 (음악)
2	오○○	김○○	조선시대 여인들의 신분에 따른 화장법과 의복	유교사 (일반사회)
	유○○	이○○		
3	양○○	이○○	성균관 유생들의 일상과 정치 참여	이교사 (역사)
	정○○	이○○		
4	고○	양○○	풍자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본 프랑스 혁명	허교사 (국어)
	이○○	경○○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과목)
5	박○○	이○○	학생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	박교사 (화학)
	김○○	문○○		
6	박○○	조○○	이화학당에서 이화여대까지 : 근현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김교사 (국어)
	송○○	오○○		
7	권○○	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주로	서교사 (윤리)
	한○○	양○○		
8	고○○	정○○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형법개정안 변화에 대한 고찰 : 심신장애 감경불가를 중심으로	김교사 (일반사회)
9	공○○	김○○	원작과 각색 작품의 관계에 대한 선호도와 작품 제작 방향	곽교사 (지리)
	안○○	·		
10	이○○	이○○	웹툰에 관한 청소년의 실태, 인식, 다른 매체와의 관계 조사	이교사 (일반사회)
11	이○○	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이를 통해 알아본 역사적 리더들의 속성 및 현대적 의의	조교사 (윤리)
	고○○	·		
12	이○○	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악성 댓글로부터 받는 영향의 관계 분석	김교사 (윤리)
	한○○	·		

2학년 12개의 연구팀이 선정한 주제 중 6개의 주제인 “성공사례로 본 비프랜차이즈의 성공방안(순번 1)”, “학생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순번 5)”,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연구: 노스페이스와 뉴발란스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위

주로(순번 7)",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형법개정안 변화에 대한 고찰: 심신장애 감경 불가를 중심으로(순번 8)", "웹툰에 관한 청소년의 실태, 인식, 다른 매체와의 관계 조사(순번 10)",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악성 댓글로부터 받는 영향의 관계 분석(순번 12)"은 법, 정치, 경제 등으로 사회과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로 본 비프랜차이즈의 성공방안"을 연구한 1번 팀의 지도교사는 음악과 이교사였고, "학생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5번 팀의 지도교사는 화학과 박교사였다. 이러한 현상은 3학년 연구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표 Ⅵ-5>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3학년 연구논문 발표대회 연구 주제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과목)
1	한○○	정○○	중학생이 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비전	곽교사 (지리)
2	오○○	김○○	정몽주에 대한 잘못된 통념 비판	허교사 (국어)
	조○○	황○○		
3	문○○	정○○	도보여행 성공사례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관악구 역사 도보여행 조성에 대한 연구	이교사 (역사)
4	이○○	이○○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이상향	김교사 (국어)
5	김○○	김○○	대한제국 생존전략의 한계와 함의	김교사 (윤리)
	권○○	최○○		
6	권○○	이○○	우리나라 철학교육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철학교육 시스템 :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교사 (윤리)
	이○○	·		
7	김○○	권○○	금지곡으로 본 정치와 대중문화	이교사 (일반사회)

순번	이름		연구 주제	지도교사 (과목)
8	권○○	조○○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서울 중학생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유교사 (일반사회)
	윤○○	박○○		
9	이○○	구○○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선거의 선출요인 탐색	이교사 (음악)
	김○○	안○○		
10	박○○	권○○	스포츠 구단들을 통해서 본 리더십 연구	김교사 (일반사회)
	유○○	·		
11	이○○	박○○	학생들의 안전인식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해결방안	박교사 (화학)
	이○○	김○○		

3학년 연구팀은 총 11개이고, 그 중 5개의 주제는 사회과 영역에 해당한다. “중학생이 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비전(순번 1)”, “금지곡으로 본 정치와 대중문화(순번 7)”,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서울 중학생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순번 8)”,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학교 학급임원선거의 선출요인 탐색(순번 9)”, “학생들의 안전인식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해결방안(순번 11)”이 그러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서울 중학생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팀은 음악과 이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인식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팀은 화학과 박교사가 지도교사를 맡았다. 이러한 점은 ‘팀별 주제가 결정되면 해당 분야의 지도교사가 선정된다’는 연구과정 프로그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연구과정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어요?

권영재: 2학년 때 우리 팀 연구 주제는 ‘경영’이었는데,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전공은 ‘윤리’였어요. 큰 차이가 있어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문장 수정이나 맞춤법 교정 정도가

전부였어요.

- 2015. 9. 5. 인터뷰에서

옥현진・고진아(2015)도 지금까지의 영재교육,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영재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영재교육이 공급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수행되어 온 면이 많고, 지역의 사정이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변인에 따라 지역별로 프로그램의 수준 차가 현저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재교육 기본과정 직무연수(60시간)'를 받고, 그 후에는 '영재교육 심화과정 직무연수(60시간)'가 권장된다. 또한 이들이 지도교사 역할을 하는 연구과정은 2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처럼 고된 일상을 사회과 교사만이 감내하기란 벅찬 일이고, 타과 교사들의 참여 없이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연착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교과별 교사 구성비라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팀별 연구 수행에 대한 지도교사의 계속적인 지도가 산출물 제작과 연구논문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재고등학교' 이교사가 "휴일인 토요일에 굳이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다"고 말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빈곤 못지않게 사회과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 전문성의 부족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 영재수업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과 이러한 교원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문사회 분야별 영재교육 전문가와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영재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타셀바스카 외(VanTassel-Baska et al., 2008)는 싱가포르 교사와 미국 교사의 영재 수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제2외국어 등 5개 영역의 싱가포르 교사 67명과 미국 교사 33명이었다. 이 연구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미국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과 차별화된 수업 전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싱가포르 교사들이 흔하게 접해온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수업 연수 경험'이 교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흔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일이기도 하다.

Ⅶ. 결론 및 제언

<그림 Ⅶ-1> 보그다노프 벨스키(1918): 「교실 속 아이들」

보그다노프 벨스키(Bogdanov-Belsky, 1918)의 작품, 「교실 속 아이들(Children in a Class)」에는 다양한 표정의 아이들이 담겨있다.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의 아이도 있고, 수업에 푹 빠진 아이도 있으며, 지루해하는 아이도 있다. 모든 아이들의 관심과 재능이 같을 수는 없다.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교육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끌어내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걸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가르침'이 곧 '배움'이 아니듯이, '배움'이 없고서야 '가르침'이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급'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교사는 학생

의 ‘배움’을 안내하고, 학생은 교사에게서 원하는 ‘가르침’을 얻는다. 동시에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접하고, 학생은 ‘배움’을 통해 ‘가르침’을 접한다. 이것이 바로 ‘교학상장’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향상’의 의지가 있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듀이(Dewey, 1916)가 말하였듯이, 성장은 삶의 특징이므로, 교육은 성장과 동일하다. 학교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계속적인 성장에의 열의를 얼마나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열의를 실천에 옮기는 수단을 얼마나 제공하는가에 있다. 2001년, 인적 자원 개발을 교육의 근본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었고, 2008년에는 과학과 기술의 가시적 성과물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칭되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을 위해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 요구된다(조용환, 2012b).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어떠한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개별성과 학습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 ‘배움’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동기를 채워주는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 즉 ‘교육다운 교육’은 진정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1. 결론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일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인문사회 영재들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체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교육

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호흡과 숨결을 접함으로써,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는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과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교육'에 대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관점은 어떠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영재의 열정과 동기를 채워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므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분야 영재교육원으로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 개원식이 있었던 2014년 3월 하순부터 수료식이 있었던 11월 하순을 거쳐, 제 7기 신입생 개원식이 있었던 2015년 3월 하순까지, 총 13개월의 기간 동안 12차례(22차시 44시수)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또한, 권영재를 처음 알게 된 2014년 1월 하순부터 2016년 1월 하순까지 약 24개월의 기간 동안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된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 그리고 이들의 수업을 담당한 '인재고등학교' 소속 이교사와 10차례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수업 참관은 수업 주제와 영역에 따라 각각 1차시(2시수), 2차시(4시수), 3차시(6시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10차례에 걸친 면담은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1)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 2)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첫째,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인가?'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란 어떠한 존재인지,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은 보통

학생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학년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제 6기 신입생”으로 선발된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세 학생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높은 학업성적을 유지하며, 학교에서 줄곧 임원 역할을 해왔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발달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한 비판과 논쟁, 토론을 즐긴다. 또한,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을 보이며,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을 말랜드(1972)와 렌줄리(1978)가 제시한 영재의 특성과 연결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선발된 학생들의 “호기심, 집중, 끈기”는 ‘동기’로, “독특한 생각”은 ‘창의성’으로, “높은 학업 성적”은 ‘지적 능력’으로, “학교 임원으로서의 경험”은 ‘리더십’으로, “인문사회에 대한 열정”은 ‘특수 학업적성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는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학생이 있고, 그 중 일부만 갖춘 학생이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빌 게이츠,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하트마 간디 등 ‘여섯 위인’ 중에서도 다섯 가지가 모두 드러나는 인재가 있고, 몇 가지는 보이지 않는 인재가 있다. 그러나 여섯 위인의 ‘공통점’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동기’,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이다. 그렇다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여섯 위인의 공통점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선발 A 그룹’의 학생들은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 동기와 창의성, 높은 지적 능력, 리더십, 특수 학업적성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높은 학업 성적과 리더십 없이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학습 동기와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으로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었다. ‘선발 B 그룹’의 학생들은 높은 지적 능력과 리더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섯 위인의 공통점인 동기와 창의성, 특수 학업적성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발 B 그룹’

학생들은 '선발된 전교 1등'일 뿐, '인문사회 영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영역 특수성의 관점에서 인문사회 영재가 타 분야 영재와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다. 예술 분야의 영재성은 과학이나 수학 등 학문 분야에서의 영재성과는 달리, 높은 지적 능력이나 탁월한 학업 성적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식된다. 특정 장르에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자신들의 변화하는 예술적 비전을 반영하는 창조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음악영재는 높은 지적 능력보다는 높은 음악적 표현 특성을, 미술영재는 높은 시각적·공간적 능력을, 무용영재는 높은 무용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영재의 특성은 '비학업영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학영재와 수학영재는 '학업영역'이라는 문화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과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과학영재는 과학 특수 능력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 분야의 과제 집착력, 흥미, 동기, 자신감 등을 가지고 있다. 수학영재는 계산능력이 뛰어나고, 단축된 사고활동을 잘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학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과학, 수학 영역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인간의 가치문제가 탐구 대상이 된다. 이것이 과학 분야의 영재와는 구분되는 인문사회 분야의 문화이자, '영역 특수성'이라고 보았다.

인문사회 영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역사적 현상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낸다. 더 나은 인간의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뇌한다.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탁월한 지적

능력과 특출한 사고 능력, 그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 이것이 모든 교과목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일 것이다. 과학이나 수학, 예술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문사회 분야만의 특질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었다. 권영재, 김민지, 양준석과 같이 중학교 1학년 때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인재고등학교' 부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다. 우선, 그곳에는 학생 선발 방식의 문화적 풍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인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조건에는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 높은 학업성취도로 발현되지 않은 "잠재 능력"과 인문사회 분야만을 향한 특별한 "과제 집착력"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단위학교의 1차 전형에서 담임교사는 희망 학생들에게 순위를 매겨 학교장에게 제출하는데,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시험 성적이나 교실에서의 수행 정도로 지원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한다. 결국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 집착력"이라는 영재의 특성을 가진 학생이라도 시험 성적이 밀리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와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에서도 2차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이미 '걸러진' 학생들이다. 과학 분야 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취지와 목적은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 집착력"을 보이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선발하여, 그들에게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선발 방식은 학생의 '잠재 능력과 과제 집착력'보다는 '학업 성적'과 '리더십'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교육풍토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인문사회 영역인 사회와 인문 분야뿐 아니라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

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얻는 '공통과정', 자신의 관심과 연관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나 '철학/인문' 분야, 또는 '역사/지리' 분야를 선택하여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듣는 '전문과정', 교과학문적인 영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재캠프', 학생들이 인문사회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유 연구를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하도록 하는 '연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은 공통과정을 통해 "주로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를 접하였고, 전문과정으로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 깊은 주제"들을 배웠으며, 영재캠프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색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연구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깊이 있게" 본인의 관심사를 탐구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권영재와 김민지, 양준석이 체험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존 영재교육의 문화 풍토가 배어있었다. 이는 과학, 예술 등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원과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예술영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주로 레슨과 연습, 작품 제작과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술영재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예술영재의 특성은 비학업영역에 해당하므로, 예술영재 교육과정은 학문분야 영재교육에 비해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기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학업영역에 속하는 과학, 수학영재를 위한 과학영재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 경험과 프로젝트 제작'이 명시된다. 과학영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실험보고서'와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이고, 그래서인지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관찰', '체험', '실험', '실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으로 제시된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시되는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각각 다른 분야에 속하는 과학 영재교육원과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하다. 이처럼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에서도 관찰되었으나,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학습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이론과 지식 체계의 전달도 중시하는 곳이 있다.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은 2학년이 되어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심화하기에 앞서, 1학년생들에게는 기초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3단계 교육법'도 이와 유사하다. '소수정예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영재학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사관고 교육과정의 운영 특징은 '3단계 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단계 교육은 '강의학습-토론학습-사사학습'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이론과 지적 토대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들으며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방식과 비판의식을 함양한 후에, 개별 사사학습을 통하여 완전학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민족사관고 3단계 교육법 운영의 취지이다. 인천국제고 영재교육원과 민족사관고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학생중심의 프로젝트, 토론, 탐구학습이 아니라, 체계적 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영역별 영재의 특성은 다르다. 영역별 영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걸맞은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재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영재들의 개인적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수 환경을 제공할 때, 학습목표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과학, 수학 영재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실험 및 프로젝트 중심의 영재교육 문화가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태생적으로 가시적 산출물을 단시간에 보여주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학, 수학, 음악, 미술이 '눈에 보이는 창의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Big-C에 해당한다면, 사회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비가시적인 little-c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영재에게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관한 심도 있는 지적 토대이다. 인문사회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인문사회 영역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사회 영재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성이 담긴 인문사회 영재교육 문화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의 정체성을 사회과교육의 특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회과교육의 전통적인 교육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다. 시민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 현상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 사회과의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세부 목표이다(교육부, 2015). 이러한 사회과의 교과 역량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사회 영재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교과 역량은 인문사회 영재교육 목표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문화에서 '창의성'은 불문율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과학,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성의 의미와 창의적 산출물의 형태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과학에서 창의성의 의미는 과학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탁월한 과학적 산출물에서 나오고, 예술적 창조성은 여러 문화권과 시대가 남긴 음악, 설계, 뛰어난 걸작 등의 외적 형태를 의미한다. 과학 영재교육원에서는 실험 등 탐구과정을 통한 산출물 발표

회를 실시하고, 예술영재교육 기관에서는 창의적 작품을 보여주는 음악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다.

사회과의 창의성은 '새로운 물건'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과에서 창의성은 공공의 쟁점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탁월한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산출물'에 해당한다. 인문사회 영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뇌한다.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통해 쉽게 파악되지 않았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남다르고 특출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 이것이 사회과교육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 의의이자,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사회과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일 것이다.

셋째,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의 답을 찾고 싶었다.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 즉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교사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조용환, 2012b).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의 상호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학생들이 '지금의 나'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나'를 구상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살펴본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1) '창의적 사고', (2) '자아 성장', (3) '융합과 통합', (4)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 (5)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힘'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해석하였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창의성 신장’이다. 단 2년간의 체험으로 ‘가시적인 창의성’의 발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수준 높은 인문사회 분야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간다. 창조적 대가들이 어린 시절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인이 되어 창의성을 발현하였듯이, 인문사회 영재의 창의적 성취는 개인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시작되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더 나은 개인’을 통한 ‘더 나은 사회’를 가능케 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동기를 부여받아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미래의 나’를 설계함으로써 ‘자아 성장’을 경험한다. 교육의 본질은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이다. 교육은 인간 속에서 인간의 변화를 지향하는 활동이고, 인간은 누구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조용환, 2012b). 향상의 의지를 자극하는 힘, 즉 동기를 통해 인간은 변화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계획해나간다.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고,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견고해진다. 자신이 진정 어떠한 학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분야에 더욱 적합한지를 생각해본다. 경제, 정치, 사회, 역사, 철학 분야에 대한 ‘몰입’의 즐거움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 영재는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구상해나간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융합과 통합’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바라본다. 법, 지리, 역사, 경제, 정치, 철학, 문학 등 전형적인 인문사회 영역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수학, 과학 분야의 수업까지 학생들에게 다채롭게 제공된다. 학생들의 통합형 수업 체험은 학기말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도 이루어진다.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방식은 융합적이었다. 앞으로도 인문사회 영재는 인문과 사회 분야에 관한 기본 토대를 공고하게 다지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사고를 넓혀,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학생들은 흥미와 열정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연구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한 팀을 이룬다. 학교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서로의 독특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고를 펼쳐나간다. 학교에서 항상 칭찬을 받아온 학생들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점도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보다 토론을 잘하는 친구, 배경지식이 많은 친구, 남다른 시각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면에서 부족한지를 알아간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사교육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과학영재 선발에는 여전히 사교육의 영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합격생이 소속된 학교의 해당 구를 분석해보면, 총 40명 중 강남 3구 소재 중학교와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가 2012년에는 20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13명(32.5%), 2014년에는 10명(25%), 2015년에는 7명(17.5%)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과 더불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배경지식을 근거로 재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만큼 단순한 암기나 주입식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요즈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이라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적 자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교육의 틀 안에서 영재를 바라보는 것은 '교육다운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영재의 열정과 동기를 헤아려보고, 그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채움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을 끌어내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재 속에서

의 영재교육'이자 '교육다운 교육'일 것이다. '영재교육 속 영재'가 아닌, '영재 속 영재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한계와 과제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의 교육적 함의를 (1)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 (2) '넘치는 학생 중심 수업과 부족한 교사 중심 수업', (3)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 (4) '인문사회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부족'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열정과 동기를 홀대하는 선발 방식'에 묶여 있다. 그동안 지필검사 중심의 선발 방식이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광풍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이 아닌 '교사 관찰·추천제'가 도입되었다. 학생의 과제집착력 등의 동기가 선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교사의 체계적인 학생 관찰을 통한 교사 추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관찰·추천제도 '동기'나 '특수 학업적 성능력'보다는 '학업 성적'과 '리더십'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재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 부설 과학영재원의 선발 방식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술 분야 영재의 선발 방식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술영재의 선발이 교사의 추천만으로 제한될 경우, 교사의 눈에 들어오지 못한 숨은 영재들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화여대-서대문 영재교육센터와 인천국제고 인문영재교육원에서도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원처럼 높은 학업 성적과 리더십이 검증된 학생들이 대상자로 선발된다. 추천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 능력과 과제집착력"이라는 영재의 특성을 가진 학생이라도, 소속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밀리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주먹구구식 '성적순'으로 진행되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 좀 더 체계적인 판별 방식으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수업'은 넘치고, '교사 중심 수업'은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유행처럼 번져왔다. 대학 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은 프로젝트형과 토론식 수업을 선호한다. 교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학교 수업에 비해, 일반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고급 장비와 실험 기구를 마음껏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남다른 실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의 주제나 과정, 프로젝트 수업이 소속 학교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지적 토대를 목말라하던 학생들은 교사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한 '배움'을 갈망하고, 학생들은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교사 중심 수업'이 더욱 제공되기를 원한다.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중심 수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사 주도 학습과 절충점을 찾아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세 번째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풍토에 놓여 있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성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그러다보니 '과정'보다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영재라면 남다른 과제집착력, 즉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으로 그 '과정'을 겪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 없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과 학생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발표와 시상으로 끝날 뿐, 연구논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반응을 전달하는 일, 즉 '피드백'은 없다. 인문사회 영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수학이나 과학 영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고, 이것에는 '가시적이고 신속한 성과'를 지원의 척도로 삼고 싶어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는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교육은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며, 대화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피드백 과정이다(조용환, 2012b). 학생들은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음

으로써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 본인이 수행한 연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를 바란다. 교사들은 영재학생들이 학습을 통한 지적 희열과 만족감에 가치를 두는 '과제지향적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도 중시하는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가 부족하다.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종착역인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팀별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역사 등 사회과 영역에 해당하지만, 지도교사는 비 사회과인 경우가 꽤 많았다. 물론 휴일인 토요일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을 사회과 교사만이 감내하기란 벅찬 일이고, 교과별 교사 구성비라는 학교 현장의 상황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팀별 연구 수행에 대한 지도교사의 계속적인 지도가 산출물 제작과 연구논문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문사회 영재수업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과 이러한 교원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2. 제언

1911년, 마리 퀴리(Marie Curie)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과학은 가치중립적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인문학입니다."[22] 마리 퀴리는 자연의 비밀을 캐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비밀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인류가 성숙해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선을 위해 과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인문학에서 찾아야 한다

22) 코리안스피릿(2012년 3월 16일자) 참조

고 보았다. 100년 전 마리 퀴리의 선견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수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현대에는 과학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이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인간의 마음과 과학 기술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될 뿐이지요.
>
> - 2015. 9. 1. 양준석과의 인터뷰에서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의 일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인문사회 영재들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호흡과 숨결을 체험함으로써, 어떠한 학생이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과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인간'과 '교육'에 대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관점은 어떠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영재의 향상과 성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을 참관하여, '가르침'과 '배움'을 체험하는 학생이 행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내외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치우쳐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인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하고, 인문사회 영재교육의 내부를 심층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그 주인공인 학생이므로, 인문사회 영재로 선발된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그 학생이 어떠한 특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부재하다. 선발된 학생의 내면을 면밀히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과연 인문사회 영재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인 동시에, 교육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를 짚어냄으로써,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재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갖춘 이론과 개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향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흔하게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식이나 토론식 수업방식만으로는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지적 토대를 목말라하는 인문사회 영재의 학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 관찰·추천제의 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교사 관찰·추

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과거 지필검사 중심의 선발 방식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 교사 관찰·추천제이다. 잠재성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그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를 지켜내려면, 현장의 교사가 일반 정규 교과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영재성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관찰·추천 도구의 개발과 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넷째, 다양한 인문사회 영재교육 기관과 그곳에 선발된 인문사회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재고등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는 국지적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자로 선발된 중학생만을 참여자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 및 해석한 바를 인문사회 영재교육 문화 전체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내신 성적 향상'과 같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물에 매달리지 않고, '교육비'라는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 학생들의 '향상' 의지를 존중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장도를 함께하는 교육. 공교육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사교육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교육. 이것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이 아닐까?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학생의 동행(師弟同行)이 '더 나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싶다.

참 고 문 헌

강무섭(2000). “인적 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교육개발」, 통권 124호, pp. 16-25.

강병직・서혜애・전경남(2011). 「해외 영재교육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옥기(1991). “수학 영재교육 개선을 위한 소고”, 「교육연구」, 제 263권, pp. 19-22.

김건희(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안에서 미술영재의 선발 현황과 개선 방향: 교육청 주도 미술영재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 26권, 제 2호, pp. 151-173.

김용희(2010). “음악영재 아동의 특성 및 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제 14권, 제 2호, pp. 43-62.

김용희(2013).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음악교육연구」, 제 42권, 제 1호, pp. 71-86.

교육부(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2013. 10.).

교육부(2015).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 자료」, 교육부(2015. 7.).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2).

김경자・김아영・조석희(1997).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교육과정 연구」, 제 15권, 제 2호, pp. 129-153.

김미란(2013).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 혁신 방안”, 「교육개발」, 통권 184호, pp. 60-65.

김미숙(2007).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숙(2008).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신복(1979). “고급 두뇌의 양산과 인력 개발 효율화”, 「교육개발」, 통

권 1호, pp. 30-33.
김종서(1994). “청소년은 국가의 원동력”, 「교육개발」, 통권 92호, pp. 5-7.
김주훈・이은미・최고운・송상헌(1996). 「과학영재판별도구 개발연구 Ⅰ」,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2001).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교육개발」, 통권 129호, pp. 53-58.
노종희(1985). “과학기술계 고급 인력 장기양성 방안”, 「교육개발」, 통권 34호, pp. 37-42.
모경환・박정서・안보형(2014). “사회과 영재교육의 동향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제 46권, 제 1호, pp. 87-119.
박경빈・이재호・박명순・이선영・전미란・류지영・안성훈・변순화(2015). “성공적인 성취자의 심층 면담을 통한 영재교육의 방향성 탐색”, 「영재교육연구」, 제 25권, 제 2호, pp. 217-236.
박성익・조석희・김홍원・이지현・윤여홍・진석언・한기순(2009).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박의수・강승규・전영수・강선보(1998).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박종률(2008). 「수학 영재교육 길잡이」,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방미선・김용권(2013), “과학영재 관찰・추천 선발 방식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초등과학교육」, 제 32권 제 2호, pp. 169-184.
백경미(2012). “한국 미술영재교육 현장의 요구”, 「한국기초조형학회」, 제 13권, 제 3호, pp. 153-163.
서범석(2004). “우수인재의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교육개발」, 통권 146호, pp. 3-5.
서예원(2014). “21세기 인재강국 DNA, 우리가 만든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교육개발」, 통권 189호, pp. 80-85.
송상헌(2006a). 「수학 영재의 판별과 선발」, 서울: 한국학술정보.

송상헌(2006b). “수학영재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점검”, 「과학교육논총」, 제 19집, pp. 89-99.

송인섭(2002). “영재교육의 새 지평”, 「영재와 영재교육」, 제 1권, 제 1호, pp. 5-29.

송인섭・한기순(2008). 「한국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서울: 학지사.

송인섭・문은식・하주현・김누리・성은현(2009). “영재를 위한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영재와 영재교육」, 제 8권, 제 1호, pp. 49-68.

송인섭・문은식・하주현・한수연・성은현(2010). “과학영재를 위한 인문사회와 예술의 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와 영재교육」, 제 9권, 제 3호, pp. 117-138.

송인섭・이신동・김윤수・서재경・이인호・윤부섭・황광일(201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 총편」, 한국교육개발원(2012. 2.).

신동아(2008). “미국영재교육 대부 조지프 렌줄리 교수”, 신동아(2008. 5.).

안도희・한기순・김명숙(2009).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과학영재의 과학문제 발견력과 정의적・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 「영재교육연구」, 제 19권, 제 2호, pp. 179-302.

안보형(2012). “사회과 시각 예술 활용 수업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제 44권, 제 3호, pp. 75-110.

양태연・한기순・박인호(2007).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이 인식하는 영재교육의 의미”, 「영재교육연구」, 제 17권, 제 8호, pp. 463-493.

오레지나・문영・김윤진・안문경・김기웅(2005). “무용학: 무용영재성의 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 제 44권, 제 4호, pp. 745-752.

옥현진・고진아(2015). “초등 인문사회 영재 학습자 특성 분석”, 「독서연구」, 제 34호, pp. 171-196.

유경재・이경숙・서혜애(2012). 「영재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발 연구 Ⅰ」, 한국교육개발원.

유미현(2008). 「과학영재의 사회・정의적 특성과 과학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과학자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현숙(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교육개발」, 통권 129호, pp. 34-39.

윤경미・유순화(2008).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일반중학생의 다중지능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 15권, 제 5호, pp. 287-313.

윤경미・유순화(2011). "Holland 이론에 의한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일반중학생의 진로특성 비교", 「중등교육연구」, 제 59권, 제 4호, pp. 1101-1130.

원영실(2013).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음악, 전통예술, 발레 분과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제 23권, 제 6호, pp. 919-945.

에후드 바라크(2013). "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 「교육개발」, 통권 186호, pp. 20-27.

이미경(2010).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저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제 39권, pp. 157-182.

이부연(2014). "미술과 융합 STEAM 교육을 통한 두뇌발달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 17권, pp. 293-304.

이선영(2014). "영재성과 창의성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영재성과 창의성: 동질적인 개념인가? 이질적인 개념인가?", 「영재와 영재교육」, 제 13호, pp. 107-127.

이용태(2003).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고등학교", 「교육개발」, 통권 137호, pp. 6-12.

이재분(2012). 「초·중등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융합인재교육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전명남・신수정・강현석・조철기・정성윤・우청란(2008a). 「인문사회 영재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전명남・신수정・강현석・조철기・정성윤・우청란(2008b). 「인문사회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 중등탐색 단계 Ⅰ/Ⅱ, 중등발전 단계 Ⅰ/Ⅱ, 중등심화 단계 Ⅰ/Ⅱ」, 한국교육개발원.

정기오(2003).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 부총리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개발」, 통권 137호, pp. 41-45.

정정인・박종욱(2011). “관찰추천에 의한 초등과학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나타난 문제점: 교사 추천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제 50권, 제 3호, pp. 1-12.

정혜승・서수현・김지연(2014).「KEDI 인문사회 적성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1996). 「우리 아이는 어느 분야의 영재일까?」, 서울: 사계절.

조석희・시기자・지은림(1997). 「과학영재판별도구개발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2002). 「영재교육연구원 설치・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2005). “영재성 개념의 정의와 발달”. 서혜애. 「창의적 지식 생산자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공통이론)」, 한국교육개발원, pp. 307-308.

조연순・성진숙・이혜주(2008). 「창의성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력 계발과 교육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일조각.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제 4권, 제 2호, pp. 1-27.

조용환(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pp. 11-13.

조용환(2012a).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 15권, 제 2호, pp. 1-21.

조용환(2012b).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

혁의 의미", 조용환 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pp. 3-3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조은별・이선영・신종호・홍윤정(2015). "융합교육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델파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제 25권, 제 1호, pp. 37-58.

차경수・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최영기・도종훈(2001). "수학영재들의 특성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영재 대상",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 62집, pp. 149-168.

최은식(2003). 「음악영재: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 연구 보고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최한기(1860). 「인정(人政): 교인문(敎人門) 1」, 홍혁기・오호영・이광호(1981), 「국역 인정 Ⅱ: 제 8권」,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최호성(2014). "한국 영재교육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고슴도치와 여우의 협업을 지향하여", 「영재와 영재교육」, 제 13권, 제 3호, pp. 5-30.

태진미(2011). "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왜 예술교육에 주목하는가", 「영재교육연구」, 제 21권, 제 4호, pp. 1011-1032.

한국교육개발원(1996). 「닮고 싶어요, 그 분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한국교육개발원(2014). 「초・중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4. 12.).

한국교육방송공사(2014).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한국교육방송공사(2014. 1.).

한국예술영재학회(2005). 「예술영재교육」, 서울: 미진사.

한기순・양태연・박인호(2014). "관찰-추천제는 어떤 특성의 영재를 선발하는가?: 선발시험 vs. 교사관찰추천으로 본 영재들의 지능, 진로유형, 자기조절 학습능력", 「영재교육연구」, 제 24권, 제 3호, pp. 445-461.

한명희・고진호(2010). 「교육의 철학적 이해」, 서울: 문음사.
한종하(1985). “인력개발의 효율화”, 「교육개발」, 통권 35호, pp. 39-44.
한종하(1994). “미래는 고급두뇌 개발에 달려있다”, 「교육개발」, 통권 88호, pp. 1-3.
홍영란(2003). “우리의 인적 자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개발」, 통권 141호, pp. 104-107.

Alber, S. R., Martin, C. M. & Gammill, D. M.(2005). “Using the Literacy: Masters to Inspire Written Expression in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Today,* Vol. 28, No. 2, pp. 50-59.
Alexander, J. M., & Schnick, A, K.(2007). "Motivation". Callahan, C. M.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423-441.
Amabile, T. M.(1986). "The personality of creativity". *Creative Living*, Vol. 15, No. 3, pp. 12-16.
Beghetto, R. A.(2007). "Creativity Enhancement". Callahan, C.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139-152.
Beghetto, R. A.(2010). "Creativity in the classroom".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7-463.
Black, S.(1999). “Alternate doorways; Teaching writing to children with varied gifts”. *Gifted Child Today,* Vol. 22, No. 3, p. 18.
Borland, J. H.(2007). "Identification". Callahan, C. M.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262-280.
Boyd, B.(2009). On the Origin of Stories, 남경태 역(2013), 「이야기의

기원」, 서울: Humanist.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avis, G. A.(1982). "A model for teaching for creative development". *Roeper Review*, Vol. 5, No. 2, pp. 27-29.

Davis, G. A., Rimm, S. B. & Siegle, D.(2010).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6th Edition). Pearson.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이홍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Diffily, D.(2002). "Project-Based Learning: Meeting Social Studies Standards and the needs of Gifted Learners". *Gifted Child Today,* Vol. 25, No. 5, pp. 60-61.

Dolette, K.(2002). "R.I.T.E. reading: Constructing meaning by finding what's "wrong" in an informational text". *Gifted Child Today,* Vol. 25, No. 2, pp. 36-41.

Fasko, D. Jr.(2000-2001). "Educational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13, pp. 317-327.

Frey, C. P.(2000). "A writers' workshop for highly verbal students". *Gifted Child Today,* Vol. 23, No. 5, p. 38.

Gabora, L. & Kaufman, S. B.(2010). "Evolutionary Approaches to Creativity".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9-300.

Gagné, F.(1985). Giftedness and Talent: Reexamining a reexamination of the definition. *Gifted Child Quarterly*, Vol. 29, pp. 103-112.

Gardner, J. W.(1961). *Excellence: Can we be equal and excellent*

too?. New York: Harper & Row.

Gardner, H.(1983). *Multiple Intelligences: New Horizons in Theory and Practice,* Basic Books, 유경재·문용린 역(2007), 「다중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Gardner, H.(1993). *Creating Minds: an anatomy of creativity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Einstein,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andhi,* Basic Books, 임재서 역(2004), 「열정과 기질」, 서울: 북스넛.

Gottfried, A. E. & Gottfried, A. W.(2004).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ization of Gifted Motivation". *Gifted Child Quarterly*, Vol. 48, No. 2, pp. 21-32.

Haroutounian, J.(2007). "Musical Talent". Callahan, C.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449-467.

Hennessey, B. A.(2010). "The Creativity-Motivation Connection".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2-365.

Hockett, J. A.(2007). "Social Studies". Callahan, C.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603-615.

Jarvin, L., Newman, T., Randi, J., Sternberg, R. J., & Grigorenko, E, L.(2007). "Match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Callahan, C.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385-410.

Jeffrey, B. & Craft, A.(2004). "Teaching creatively and teaching for creativity". *Educational Studies*, Vol. 30, No. 1, pp. 77-87.

Kaufman, J. C. & Baer, J.(2004). "Sure, I'm creative - but not in

diverse domains".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Vol. 22, pp. 143-155.

Kaufman, S. B.(2008). *"Is Every Child Gifted? Probably not: Definitions of giftedness"*, Beautiful Minds.

Kim, K. H., Cramond, B. & VanTassel-Baska, J.(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Intelligence".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95-412.

Kozbelt, A., Beghetto, R. A., & Runco, M. A.(2010). "Theories of Creativity".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47.

Marland, S. P.(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urdoch, M. C. & Keller-Mathers, S.(2008). "Teaching and learning creativity with the Torrance Incubation Model: A research and practice updat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Vol. 18, No. 2, pp. 11-33.

O'Hara, L. A. & Sternberg, R. J.(2000-2001). "It doesn't hurt to ask: Effects of instructions to be creative, practical, or analytical on essay-writing performance and their interaction with students' thinking styl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13, pp. 197-210.

Piirto, J.(1999). *Talented children and adults: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2nd ed.).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Powers, E. A.(2008). "Independent Study: as a Viable Differentiation Technique for Gifted Learners in the Regular Classroom". *Gifted*

Child Today, Vol. 31, No. 3, pp. 57-65.

Puccio, G. J. & Cabra, J. F.(2010). "Organizational Creativity: A Systems Approach".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5-173.

Renzulli, J. S.(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Kappan Classic*, Vol. 92, No. 8, pp. 81-89.

Renzulli, J. S. & Reis, S. M.(1985).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Clearinghouse on Handicapped and Gifted Children, ERIC, pp. 1-3.

Renzulli, J. S.(1992). "A general theory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oductivity through the pursuit of ideal acts of learning". *Gifted Child Quarterly*, Vol. 36, pp. 170-182.

Renzulli, J. S., Gentry, M., & Reis S. M.(2006). *Enrichment Clusters: A Practical Plan for Real-world, Student-driven Learning*, Sourcebooks Inc, 이미순 역(2007), 「심화집단: 실제세계, 학생-주도적 학습을 위한 실제적 지침」, 서울: 박학사.

Runco, M. A.(1992). "Children's divergent thinking and creative ide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 12, pp. 233-264.

Simonton, D. K.(2010). "Creativity in Highly Eminent Individuals".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4-188.

Smith, J. K. & Smith, L. F.(2010). "Educational Creativity".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50-264.

Smith, K.(2008). "Teaching Talented Writers in the Regular Classroom". *Gifted Child Today,* Vol. 31, No. 2, pp. 19-26.

Smith, L. F.(2008). "The art of science and the science of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Vol. 18, No. 2, pp. 101-113.

Sternberg, R. J.(2002). "Raising the achievement of all students: Teaching for successful intelligen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14, pp. 383-393.

Sternberg, R. J.(2003). "Creative thinking in the classroom".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pp. 325-338.

Sternberg, R. J. & Kaufman, J. C.(2010). "Constraints on Creativity: Obvious and Not So Obvious". Kaufman, J. C. & Sternberg, R. J.(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67-482.

Tannenbaum, A.(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scmillan.

Tannenbaum, A.(1986). The enrichment matrix model. In Renzulli(Ed.), *Systems and model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gifted and talented*.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pp. 391-429.

Tannenbaum, A.(1997). The meaning and making of giftedness. In N. Collna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pp. 27-42.

Treffinger, D. J. & Feldhusen, J. F.(1996). "Talent Recognition and Development: Successor to Gifted Educatio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Vol. 19, No. 2, pp. 181-193.

Troxclair, D. A.(2000). "Differentiating Instruction for Gifted Students in Regular Education Social Studies Classes". *Roeper Review,* Vol. 22, No. 3, pp. 195-198.

VanTassel-Baska, J. & Brown, E. F.(2007). "Toward Best Practice: An Analysis of Gifted Education Curricular Models". *Gifted*

Child Quarterly, Vol. 51, No. 4, pp. 342-358.

VanTassel-Baska, J.(2009). "Translat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Model Into Units of Study". *Newsletter Systems,* Vol. 18, No. 1, pp. 1-15.

VanTassel-Baska, J., Feng, A., MacFarlane, B., Heng, M. A., Teo, C. T., Wong, M. L., Quek, C. W. & Khong, B. C.(2008). "A Cross-Cultural Study of Teachers' Instructional Practices i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Vol. 31, No. 3, pp. 338-387.

Winner, E. & Martino, G.(2000). "Giftedness in Non-Academic Domains: The Case of the Visual Arts and Music". Heller, K. A., Mönks, F. J., Subotnik, R. F. & Sternberg, R. J.(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Elsevier Science, pp. 95-110.

Worley, B. B.(2007). "Visual and Performing Arts". Callahan, C. & Plucker, J.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 Prufrock Press, pp. 735-747.

민족사관고등학교 (http://www.minjok.hs.kr)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http://gifted.snu.ac.kr)

서울시교육청 서울영재교육 (http://sge.ssp.re.kr)

이화여자대학교-서대문 영재교육센터 (http://giftedewha.or.kr)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교육원 (http://iigc.icehs.kr)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ged.kedi.re.kr)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School of Education (http://education.wm.edu/centers)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Center for Talented Youth

(http://cty.jhu.edu/summer)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Gifted Education Programme (http://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gifted-education-programme)

Abstract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oh-Hyung Ahn

Departm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Kyung-Hwan Mo, Ph. D.

Gifted education centering on natural sciences and mathematics has expanded to the spheres of social sciences and language arts. While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 been actively attempted, research on it has been rare. Even scarcer has been research that seeks to explore the fundamental aspect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examining what kinds of students are selected a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what kinds of learning these students experience through what kinds of teaching. Consequently, the present study sought to diagnose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o search for its direction

by selecting a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 the site of research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students selected a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ecause the present study sought to understand interaction i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tally and in depth, it selected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rough an ethnographic case study as the research methods. To achieve these goals, the first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South Korea evaluated to implement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ost actively was selected as the site of research. Gifted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in the 2014 academic year were subjected to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three students selected as the subject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ne teacher in charge of classroom sessions were interviewed. The present study sought to answer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kinds of students are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How do teaching and learning occur i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What a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irst,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kinds of students are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as searched for.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selected a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rdinary stud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three students in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 grasped through the three student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ve considerable interest in human society. They see with great inquisitiveness the economic, political, cultural, social,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phenomena that occur amidst daily life. They discover with a keen eye the social problems that emerge from such phenomena and, by facing those problem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find the causes behind such circumstances. They ponder on ways of resolving diverse social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so as to realize better human lives and a better world. They possess outstanding intellectual competence and special thinking skill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uncommon curiosity and passion regarding them. These surely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must be prioritized over excellent grades in all courses. It is because they are characteristics and a culture not to be found in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and arts.

Second, answers to the question "How do teaching and learning occur i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searched for. The curricula at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sisted of: the common curriculum, where the students were given chances integratively to study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not only social studies and language arts, which belong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ut also mathematics, natural scienc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he advanced curriculum, where the students chose fields linked to their respective fields of interest such as politics/economics/social studies, philosophy/humanities, or history/geography and took more intensive courses; the gifted students' camp, which did not emphasize curricular and academic fields but was operated with a focus on hands-on

activities; and the research curriculum, where the students were to present creative products through free research on the fields of their respective interest out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common curriculum, advanced curriculum, gifted students' camp, and research curriculum programs as experienced by the three students bore the cultural practices of existing gifted education. In that student-centered project classes took up a greater share than did lecture-style classes transmitting theory and knowledge, the programs offered by gifted education centers in natural sciences and gifted education cent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belong to disparate fields, were similar. However, the gifted in various fields differ from one another in their characteristics. I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music, and fine art belong to the Big-C, where visible, creative accomplishments can be presented, social sciences belong to the invisible little-c, where one creatively discovers and resolves particular social phenomena or problems. It is necessary effectively to integrate both the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to curricula and programs for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us constructing a culture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at reflects the identity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sequently, the present researcher sought to find the identity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ciences education.

The traditional educational goal and ultimate go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s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a, social studies education aims at stude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oth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grasping social phenomena and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and grasp of the nature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diverse problems that must be resolved for democratic public life. In addition, the cultivation of curricular competence in social studies such as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skills and decision-making skills, and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skills is presented as a detailed goal. Based on insights into human society, such curricular competence in social studies forms the core of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enables students to re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Consequently, the curricular competence emphasized in social sciences can be seen as identical to the goal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rd, the present researcher wished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a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irst, the potentials for new education examined at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and interpreted:

(1) The students come to engage in creative thinking, whereby they see the world from uncommon perspectives. Through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y explore advanced topic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ot easily encountered in daily life, thus developing a previously unknown, “skewed” perspective from which to look at the world. (2) Motivated, the students build their confidence and design their future selves, thus experiencing the growth of their own selves. Through challenges and achievements at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students come to understand what they truly like and to plan what they wish to do in the future. (3) Through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he students learn to see an even bigger world. They are provided diversely with classes in not only typical field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law, geography, history, economics, politics, philosophy, and literature but also music, fine art, physical education,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Even in the future,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ust continue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grow into creative, convergent figures. (4) The students encounter "alter egos" who share their interests and passion. Meeting academically earnest peers, who are not found at regular schools, they together explore fields of their interest and share unique opinions, thus developing new ideas. (5)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monstrates the power to be free from a climate that emphasizes private/extracurricular education. The selection of the gifted in natural sciences continues to be influenced by private/extracurricular education. However, at gifted education cent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ents are judged for their ability to reinterpret and apply the humanist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knowledge that they already possess, simple memorization and rote learning are of no help.

The limitation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tasks at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nd examined:

(1)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as tied down to a selection method that neglected students' passion and motivation. Hitherto implemented at unit schools in a haphazard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candidates' grades, the selection of students for gifted education needs become public through

more systematic screening methods. (2) As for the curricula, while student-centered classes abound, teacher-centered classes are deficient. Students who thirst for intellectual foundations in the fields of their interest want more teacher-centered classes to be provided in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The gifted education center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situated in an educational climate that stresses results over processes. The research paper presentations, on which both the center and the students place the greatest weight, end only with announcements of the winners and an award ceremony. The conveyance of experts' opinions and responses to the research papers, or feedback, is absent. Teachers must play the role of active helpers who place weight on not only the results but also the processes of learning. (4) There are not enough teachers in charge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this point, urgently needed are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increasing the expertise of teachers in charge of classroom sessions and the fostering of experts on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o can be responsible for such teacher training.

Keywords :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haracteristics of gifted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ocial studies education goals, Big-C and little-c, creative thinking, research paper presentations, qualitative research, ethnographic case study

Student Number : 2012-30394